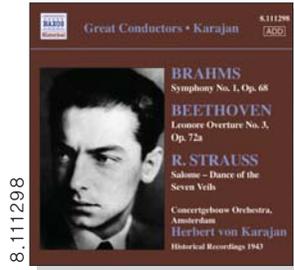


20 Years of Classical Music/ November 2008

Naxos new release



8.111298

브람스:
교향곡 1번,
베도벤:
레오노레 3번 서곡 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헤보우



8.111300

말라: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죽은 자식을 그리는 노래,
슈만 : 리더크라이스
피셔 디스카우(bar)
푸르트 벵글러, 켐페
필하모니아, 베를린 필,
제랄드 무어(pf)



8.111327

쇼팽:
피아노소나타 2번,
슈만:
어린이 정경, 사육제 외
알프레드 코르토 (pf)



8.111351

아르투르 미켈란젤리
초기 레코딩
바흐, 갈루피, 스키타리,
브람스, 그라나도스,
알베니스, 모푸 외



8.111252

베도벤:
바이올린소나타 5, 6, 7번
조셉 퍼치스(vn)
아르투르 발삼(pf)



8.111253

베도벤:
바이올린소나타 8, 9, 10번
조셉 퍼치스(vn)
아르투르 발삼(pf)



8.570593

독일 플루트 협주곡
(빈터 1, 2번, 라흐너,
로제티)
브루너 마이어(fl)
프라하 챔버 오케스트라



8.570517

리스트:
피아노협주곡 1, 2번,
죽음의 춤
엘다 네블신(pf)
바실리 페트렌코
로알 리버풀 필하모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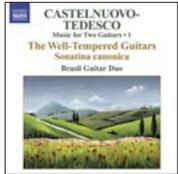
8.570588

차이코프스키:
만프레드 교향곡
바실리 페트렌코
로알 리버풀 필하모닉 오
케스트라



8.559382

앤더슨:
뮤지컬 <곰발미녀> 발레,
캐럴 모음곡
킴 크리스웰(sop)
윌리엄 데이즐리(bar)
레너드 슬래트킨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8.570778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
두 대의 기타를 위한 평
균율, 소나티나 카노니카
브라질 기타 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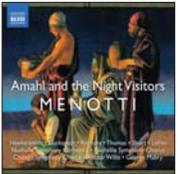
8.570518

모차르트:
피아노트리오 1, 3번,
디베르티멘토 KV.254
콩스바츠카 삼중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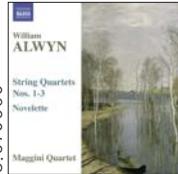
8.572083

블레이크:
바이올린소나타,
피아노사중주, 챔즈댄스 외
마델레인 미첼(vn)
하워드 블레이크(pf)
케네스 에섹스(va)
피터 윌슨(vc)



8.669019

메노티:
아말과 밤의 방문자들,
나의 크리스마스
여러 가수들
알래스타어 윌리스
내시빌 심포니 오케스트
라와 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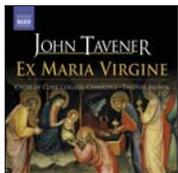
8.570560

얼윈:
현악사중주 1-3번
마기니 현악사중주단



8.572195

차피:
교향곡 D단조,
판타지아 모리스카
호세 라몬 엔시나
오케스트라 드 코무니다
드 드 마드리드



8.572168

태브너:
합창과 오르간을 위한
크리스마스 음악들
(Ex Maria Virgine) 외
제임스 맥비니(org)
티모시 브라운
캠브리지 클레어 칼리지
합창단



8.559274

아이브즈:
가곡 Vol.6
Various Artists



8.559615

랑: 피어스트, 헤로인,
숙임수 거짓말 절도,
기도하는 법, 혼인
여러 음악가들, 질 로즈
보스턴 모던 오케스트라
프로젝트



8.570966-67

헨델: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알비노, 브라운, 몰롤로,
마흔, 맥레오드, 네덱키 외
케빈 말론
아라디아 앙상블



8.572113

돼지가 날 수 있다면
(어린이 합창단을 위한
20세기 음악들)
알렉산더 웰즈(pf)
로널드 콕스
뉴 런던 어린이 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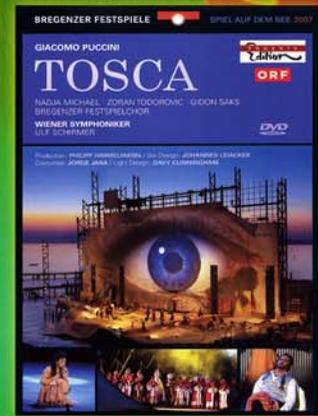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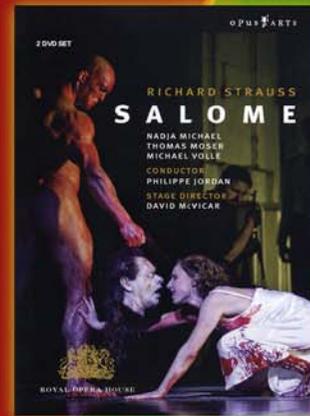


8.578011-12

Toon Time
(만화에 사용된 클래식
음악들)
Various Artists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34호 | October, November 2008



New Release

월드뮤직 컴필레이션의 대명사 '세상의 모든 음악 5집'
떠돌이별 임의진의 '러시아 여행', 천상의 보이소프라노 '알레드 존스'

CD Hot Issue

마크 코소어의 두 장의 CD 제작기

Cover Story

이 달의 주목할만한 DVD들



Medici Arts DVD 2056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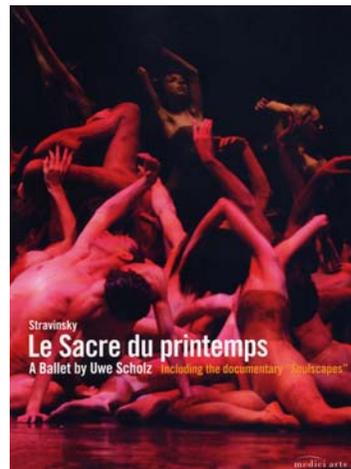
2DVD

R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안네 슈바네빌름스(원수부인)/ 안케 본통(옥타비아)/ 마키 모리(조피)/ 쿠르트 라이들(옥스남작)/ 한스 요아힘 케헬젠(파니날) 외/ 파비오 루이지(지휘)/ 드레스덴 슈타츠오페

일본 오페라마니아들을 열광시켰던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장미의 기사

호프만슈탈의 리브레토에 R 슈트라우스가 음악을 붙인 <장미의 기사>는 작곡가의 오페라들 중에서 가장 상연빈도가 높은 인기작이다. '장미의 기사'는 약혼 축제 때 은으로 만든 장미를 약혼녀에게 바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18세기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에 빈에서 유행한 관습이다. 슈트라우스가 바그너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보다 드러내던 시절의 작품으로, <살로메>, <엘렉트라>와 같은 과격한 이전 작품에 비해 단순한 화성, 세련된 관현악법, 우아한 선율로 채워진 매력적인 오페라다. 드레스덴은 1911년 1월 바로 이 오페라가 초연된 도시다. 초연이후 지금까지 <장미의 기사>는 드레스덴 슈타츠오페를 대표하는 레퍼토리로 사랑받고 있으며, 그만큼 이 오페라에 대한 이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지난 2007년 11월 드레스덴 슈타츠오페는 26년 만의 일본투어를 위해 바로 이 오페라를 선택하였다. 본 영상물은 그중 11월 25일 도쿄 NHK홀에서의 공연을 수록한 것이다. 2007년부터카펠마이스터를 맡고 있는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봉을 잡았고, 현재 유럽 오페라무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두 재능 있는 여가수들이 원수부인과 옥타비아를 맡았다. 일본투어라는 점을 고려해서 1998년 플라치도 도밍고가 주관하는 오페렐리아 콩쿠르 우승자인 일본출신 소프라노 마키 모리가 조피 역할을 노래하였다. 오페라의 시대적 배경을 2차 대전 직후로 바꾸어놓았던 우베 에릭 라우펜베르크의 2000년 프로덕션을 리바이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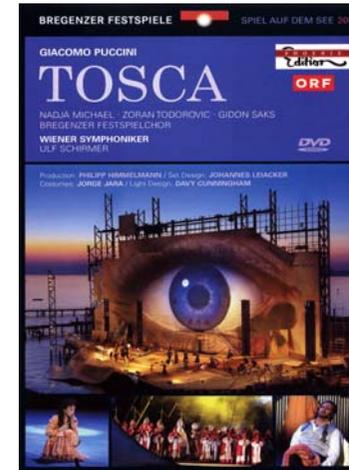
Medici Arts DVD 2055728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안무: 우베 솔츠)

조반니 디 팔마 & 키요코 키무라(솔로)/ 라이프치히 발레
볼프강 만츠 & 롤프 플라게 (pfs)/ 헨릭 새페(cond)/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천재 안무가 우베 솔츠의 마지막 열정을 담은 두 가지. 충격적인 <봄의 제전>

스트라빈스키를 대표하는 발레음악이지만, 발레보다는 콘서트 관현악레퍼토리로 더 익숙해진 <봄의 제전>. 명실상부한 발레 <봄의 제전> 영상물이 등장하였다. 지난 2004년 11월 45세의 많지 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독일의 천재적인 무용가 우베 솔츠가 두 가지 포맷으로 연출한 <봄의 제전>을 함께 만날 수 있다. 첫 번째 <봄의 제전>은 라이프치히 발레의 대표 발레리노 조반니 디 팔마의 독무를 위한 것으로 작곡가 자신이 2대의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버전을 반주로 삼았다. 솔츠 자전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현대인의 고독과 절망감을 충격적인 이미지의 배경영상과 더불어 표현한 것이다. 두 번째 <봄의 제전>은 보다 전통적인 형태의 군무다. 육정과 폭력으로 대변되는 인간집단의 원초적 본능이 강렬한 안무를 통해 생생하게 펼쳐지며, 여성제물의 선택과정과 마지막 희생이 파격적으로 연출되었다. 솔츠가 13년 동안 갈고 다듬었던 라이프치히 발레의 조직적인 퍼포먼스와 솔로 발레리나 키요코 키무라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이 멋지게 조화를 이룬다. 두 공연 모두 2003년 2월 22일 라이프치히 오페라 무대에 올려진 실황과 드레스 리허설을 편집한 것이다. 74분 가량의 발레실황영상과 더불어 우베 솔츠의 짧지만 굵은 족적과 고인에 대한 주변인들의 회고를 다룬 권터 아텔른의 다큐멘터리 필름 <Soulsapes>가 함께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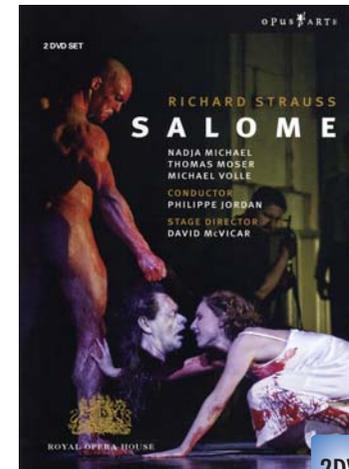


Phoenix DVD 801

푸치니: 토스카

커다란 푸른 눈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토스카의 비극

스위스 국경 인근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의 작은 산골마을 브레겐츠는 매년 여름마다 특별한 오페라 축제를 펼쳐 전세계 음악애호가들의 발걸음을 유혹한다. 보덴 호수의 잔잔한 수면 위에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일반 오페라 하우스에서 상상하기 힘든 스펙터클한 스케일의 무대세트와 연출로 오페라 애호가들을 열광케 만들기 때문이다. 2007/8년 시즌 브레겐츠에서 공연되었던 작품은 푸치니의 대표적인 걸작 오페라인 '토스카'였다. 본 DVD는 2007년의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거대한 크기의 푸른 눈으로 무대 전면을 장식했던 요하네스 라이악커의 강렬한 세트 디자인으로 큰 화제를 낳았던 공연이다. 연출자 필립 히엘만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이 오페라를 현대적으로 연출하였다. 스킨피어에게는 빅 브라더의 이미지가 덧입혀졌고, 무대 전면의 눈은 "빅 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소설속의 한 구절을 시각적으로 상징한다. 눈의 홍채 부분이 열리며 등장하는 성가대의 장엄한 행렬이나, 수면 위로 부상하는 십자가, 호수 위로 던져지는 카바라도시의 시체 등등 브레겐츠에서만 가능한 파격적인 연출들이 이어지며, 최근 급부상중인 독일 출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나디아 미카엘의 열연 또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Opus Arte DVD OA0996D

2DVD

R 슈트라우스: 살로메

나디아 미카엘(살로메)/ 토마스 모저(헤롯)/ 미카엘 폴레(요한안)
미카엘라 슈트터(헤로디아스)
필립 조르당(지휘)/ 로얄 오페라 하우스 코벤트 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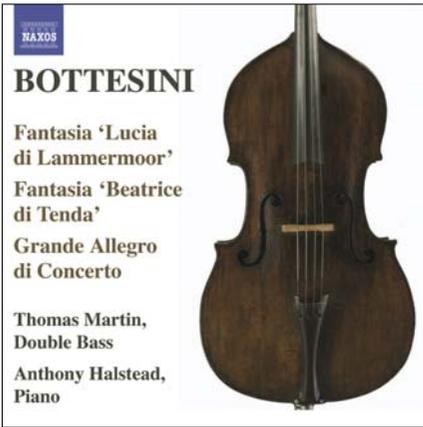
영국 오페라계를 강타했던 화제의 공연 DVD로 선보이다.

2008년 3월 로얄 오페라하우스 코벤트가든 무대에서 펼쳐졌던 R 슈트라우스의 '살로메'는 영국 오페라계의 크나큰 충격파를 안겨주었던 화제만발의 공연이었다. 항상 폭력적이고도 음란한 연출로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 악동 연출가 데이비드 맥비카의 약취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R 슈트라우스의 첫 오페라 출세작인 '살로메'는 복음서에 기록된 세례요한의 마지막 순간을 자극적으로 각색 해놓은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에 기초한 작품이다. 근친애, 스트립 댄스, 잔혹한 참수, 잘린 머리에 대한 끔찍한 애정행각 등등 온갖 문란하고도 참혹한 소재들이 등장하는 이 문제의 오페라는 맥비카의 그로테스크하고도 에로틱한 개성을 맘껏 펼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 작품 후반부를 뒤덮는 붉은 선혈과 너무나 사실적으로 만들어진 요한안의 잘린 목은 웬만한 호러무비를 능가하는 공포감을 안겨주며, 정상급 오페라무대를 통해 현역 최고의 살로메로 급부상한 나디아 미카엘의 혼신의 열연은 맥비카가 정성껏 준비한 잔혹 드라마의 놀라운 정점을 만들어낸다. 우람한 저음이 돋보이는 토마스 폴레의 열창과 비정상적이 헤롯의 행태를 리얼하게 연기한 토마스 모저의 열연도 놓칠 수 없으며, 망나니 역에 특별 채용된 보디빌더 출신 배우의 근육질 몸매는 색다른 볼거리를 안겨준다.



Naxos

www.naxos.com



8.570399
보테시니: 람메르무치아 판타지, 알라 멘델스존, 엘레지 1,2번
토마스 마틴(db)/ 안소니 할스테드(pf)
 더블베이스의 파가니니'로 명성을 날렸던 보테시니는 이 둔중한 저음악기를 화려한 독주악기로 변모시켰던 장본인이다. 본 음반에는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소품들이 수록되었다. 도니제티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와 벨리니의 '텐다의 베아트리지체'의 선율을 패러프레이즈한 환상곡들, '멘델스존 풍의 대 알레그로', 화려한 카프리치오, 볼레로, 엘레지 '로만차 드라마티카'와 같은 개성만점의 소품들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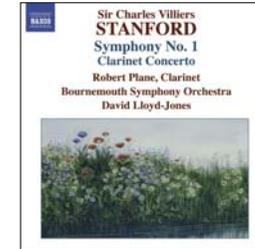
8.557078
슈만: 여인의 생애와 사랑, 매리 스투어트 여왕의 시 외
시빌라 루벤스(sop)
우트 힐셔(pf)
 나소스 슈만 리트 에디션의 5번째 음반. 작곡가의 대표적인 연가곡인 '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중심으로, 작곡가의 리트 중 여성과 관련된 리트들을 중점 수록하였다. 여류시인 엘리자베트 쿨만의 시에 곡을 붙인 7개의 리트, 비운의 여왕 매리 스투어트의 시에 곡을 붙인 '매리 스투어트의 시' 등을 바로크 종교음악과 독일 리트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소프라노 시빌라 루벤스의 맑은 음성으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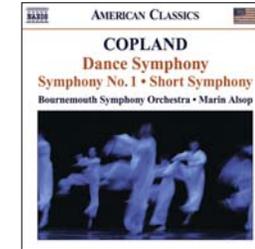
8.570871-72
그리그: 페르귄트 전곡, 남쪽 수도원 앞에서
룬트 쿨투르스콜란 어린이합창단/ 바르테 엔게세트/ 말외 심포니와 합창단
 입센의 희곡에 대한 극부수음악인 '페르귄트'는 명실상부한 그리그의 대표작이다. 주로 전곡에서 일부 발췌한 두 편의 관현악 모음곡으로 감상되나, 본 음반에서는 연극 대사들까지 포함된 전곡을 만날 수 있다. 현지성우들의 리얼한 목소리 연기와, 합창단과 솔리스트들의 활약, 노르웨이 민속음악 밴드의 연주까지 원작의 감흥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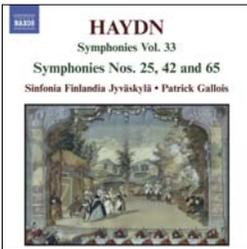
8.570499
L. 모차르트: 5개의 신포니아(장난감 교향곡 포함)
케빈 말론
토론토 챔버 오케스트라
 한때 하이든의 작품으로 오해되었던 장난감 교향곡은 볼프강 아마데우스의 아버지인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대표작이다. 명성에 비해 마땅한 음반이 드물었지만, 나소스 18세기 교향곡 시리즈의 대표주자인 케빈 말론의 이 음반이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다. 초기 고전 교향곡 특유의 단아한 정형미와 소박한 선율이 돋보이는 레오폴드의 다른 신포니아 4편도 함께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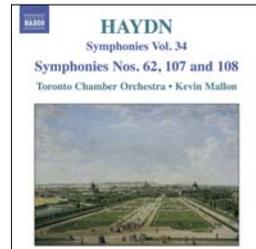
8.570356
스탠포드: 교향곡 1번, 클라리넷 협주곡
로버트 플레인(c)/ 데이비드 로이드-존스/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탠포드 교향곡 시리즈의 완결작. 슈만과 브람스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장대한 규모의 작품인 교향곡 1번과 더불어, 그의 관현악작품들 중에서 가장 자주 연주되는 작품인 클라리넷협주곡을 함께 수록하였다. 영국 근대 관현악 레퍼토리의 보충수표와도 같은 이름인 데이비드 로이드-존스가 지휘봉을 잡았고, 핀치의 클라리넷협주곡으로 호평을 받았던 영국의 정상급 연주자인 로버트 플레인이 독주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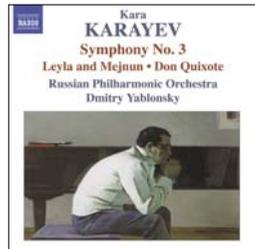
8.559359
코플랜드: 댄스심포니, 교향곡 1번, 짧은 교향곡
마린 알송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코플랜드의 교향곡 1번은 자신의 오르간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을 편곡한 것으로 오르간 파트를 목관악기들의 부드러운 패시지로 대체하고 금관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농밀한 사운드를 이끌어내었다. 교향곡 2번 '짧은 교향곡'은 제목 그대로 15분 남짓한 아담한 작품이지만, 복잡하고도 불규칙적인 리듬이 강한 인상을 남긴다. '댄스 심포니'는 댄스음악 'Grohg'을 개작한 것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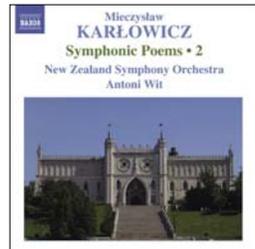
8.570761
하이든: 교향곡 25, 42, 65번
패트릭 갈리와 신포니아 핀란드아
 느린 악장이 생략된 교향곡 25번은 하이든의 교향곡들 중에서 가장 연주회기가 드문 작품의 하나다. 반면 드라마틱한 악상이 인상적인 교향곡 42번은 작곡가의 중기 교향곡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걸작이다. 교향곡 65번은 에스테르하지 궁정에서 공연되었던 연극의 극부수음악으로 작곡된 것이 아닌가 추정될 정도로 위트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찬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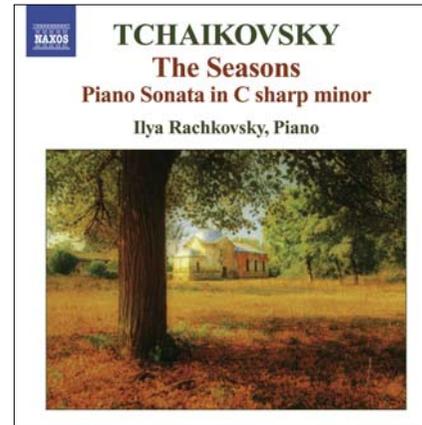
8.572130
하이든: 교향곡 62, 107, 108번
케빈 말론
토론토 챔버 오케스트라
 나소스 하이든 교향곡 전집의 34번째이자 마지막 완결작이다. 중기 교향곡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품이지만 드라마틱한 악상이 인상적인 교향곡 62번과, 100번대의 변호지만 실제로는 하이든이 에스테르하지 궁정에 합류하기 이전인 1750년대에 완성된 초기 교향곡들인 107번과 108번이 수록되었다. 아울러 하이든의 두 오페라용 서곡(악제사, 참된 정조)도 함께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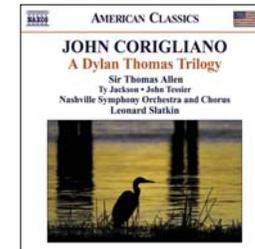
8.570720
카라예프: 교향곡 3번, 돈키호테, 레일라와 메이논
드미트리 아블론스키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쇼스타코비치의 제자인 카라 카라예프는 자신의 고향 아제르바이잔의 민속음악을 적극 자신의 작품 속에서 활용하였다. 교향곡 3번 역시 500년 전통의 민속음악인 '아숙'의 선율을 현대적인 작곡기법에 접목시킨 작품이다. 작곡가의 가장 인기작인 '레일라와 메이논' 역시 12세기 이 나라의 위대한 시인이었던 나차미의 시에 기초한 작품이다. 동명의 영화음악을 개작한 관현악곡인 '돈키호테'가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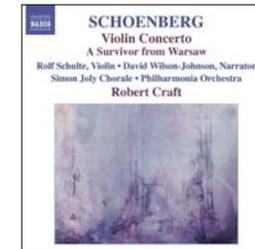
8.570295
카를로비츠: 슬픈 이야기, 돌아오는 파도, 영원한 노래
안토니 비트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카를로비치는 스키를 타다가 눈사태로 3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비운의 폴란드 작곡가다. 그가 남긴 6편의 교향시는 세기 전환기 폴란드의 관현악을 대표하는 걸작들로 평가받고 있다. 본 음반에 수록된 세 교향시는 바그너와 차이코프스키, 그리고 R 슈트라우스의 영향이 느껴지는 전형적인 후기낭만주의 계열의 작품들로, 이 작곡가의 창의적인 관현악법과 뛰어난 선율감각을 확연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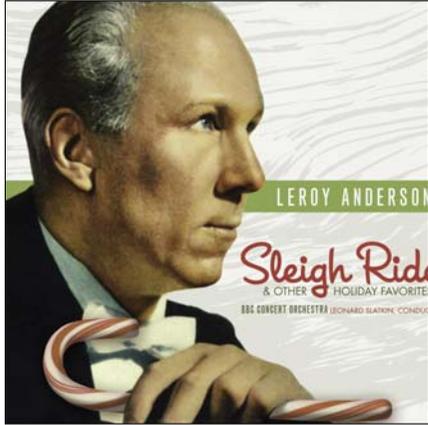
8.570787
차이코프스키: 사계 전곡, 피아노소나타
일라 리슈코프스키 (pf)
 일년 12달 각각에 상응하는 12편의 피아노 소품으로 구성된 차이코프스키의 <사계>는 각 달의 상징적인 테마를 작곡가 특유의 감미로운 선율로 표현해낸 매력적인 소품 모음집이다. 특히 '6월-벚꽃노래'와 '11월-트로이카'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기 애청곡들이다. 소나타 C#단조는 작곡가 5대의 초기 작품으로 3악장은 직후에 완성된 교향곡 1번의 스케르초에 차용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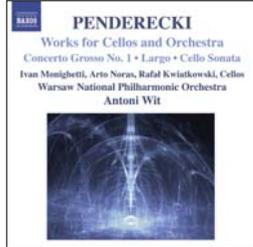
8.559394
코릴리아노: 달란 토마스 삼부작
토마스 알렌(br) 외
레너드 슬래트킨
내쉬빌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레드 바이올린'으로 유명한 미국 작곡가 코릴리아노는 20세기 중반 영국 신목시파의 대표시인이자 웨일즈의 방랑시인으로 유명한 달란 토마스의 시 3편(Fern Hill, 10월의 시, 그의 생일날의 시)을 관현악 반주의 가곡 3부작으로 완성하였다. 영국이 자랑하는 정상급 바리톤 토마스 알렌의 감성 풍부한 노래가 토마스의 독특한 시정을 훌륭히 표현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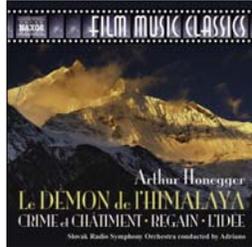
8.557528
쇤베르크: 바이올린협주곡, 바르샤바의 생존자, 나폴레옹 송가
로프 슬테(vn)
데이비드 윌슨 존스(narr)
로버트 크래프트
필하모니아
 쇤베르크와 스트라빈스키의 애제자였던 로버트 크래프트가 진행 중인 쇤베르크 시리즈의 10번째 음반. 연주자들 사이에서 난곡 중의 난곡으로 악명높은 바이올린협주곡을 현대음악 스펙트럼의 롤프 슬테가 탁월하게 연주해내었다. 작곡가 최후의 완성작인 'De Profundis'와 2차 대전의 상흔을 담은 '바르샤바의 생존자', 바이러의 시에 곡을 붙인 '나폴레옹 송가'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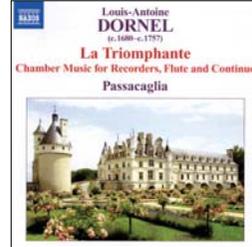
8.559621
앤더슨: 썰매타기, 캐롤모음곡을 비롯한 겨울 음악들
레너드 슬래트킨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미국 라이트 클래식 거장 로이 앤더슨의 대표 인기작들과 크리스마스 시즌용 음악들을 함께 모은 음반. '썰매타기', '나팔수의 휴일', '중국인형', '춤추는 고양이'와 같은 정겨운 소품들과 함께, '종의 노래', '캐롤 모음곡'(브라스밴드, 현악합주, 목관앙상블 등의 3가지 버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등의 겨울 음악들이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를 더욱 흥겹게 만들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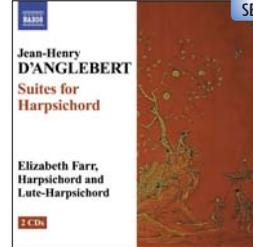
8.570509
펜데레츠키: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작품들
이반 모니게티, 아르토 노라스, 라발 크비아코프스키(vc)/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
 펜데레츠키가 첼로와 관현악을 위해 작곡한 작품들을 함께 모은 음반. 콘체르토 그로스 1번은 독주악기 그룹을 구성하는 3대의 첼로와 오케스트라 사이의 창의적인 인터플레이를 보여주는 작품이며, 로스트로포비치를 위해 완성한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라르고, 봉고, 우드블록, 탐탐 등의 다양한 타악기들의 이국적인 울림을 담은 기교적인 작품인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소나타가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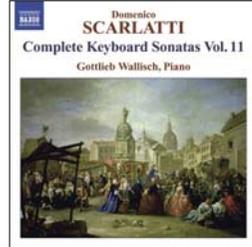
8.570979
오네게르: 영화음악(히말라야의 악마, 죄와 벌, 회복 외)
아드리아노 슬로바키아 라디오 심포니
 프랑스 6인조의 한 사람이자 '퍼시픽 231'로 유명한 오네게르는 무성영화의 배경음악에도 관심이 많아서 일생동안 40편이 넘는 영화음악을 완성하였다. 본 음반에는 프로방스 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그린 마르셀 파농의 영화 '회복', 도스토예프스키의 걸작을 피에르 세날이 영화로 만든 '죄와 벌', 1934년작 만화 'L'Idée', 히말라야를 배경으로 한 모험활극 '히말라야의 악마'의 배경음악들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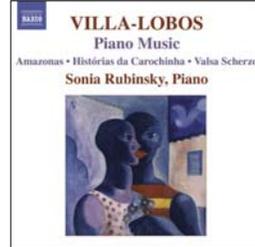
8.570986
도르넬: 리코더와 플루트를 위한 실내악 작품들
단 라우린, 아나벨 나이트, 루이즈 브래드버리(recorder)/ 파사칼리아
 앙트완 도르넬의 음악에는 18세기 초반 파리의 화려함과 우아함이 깃들여 있다. 3대의 리코더와 통주저음을 위한 sonate en quatre, 리코더와 플루트 그리고 통주저음을 위한 승리 소나타, 3대의 리코더를 위한 3성부를 위한 소나타, 플루트와 통주저음을 위한 소나타 'La Forcroy', 전형적인 바로크 춤곡 모음곡인 하프시코드를 위한 모음곡 등을 수록. BIS의 간판 플루티스트로 활약중인 단 라우린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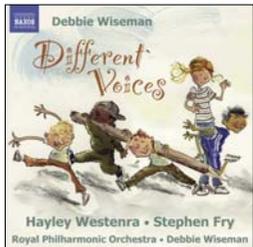
8.570472-73
당글베르:
하프시코드 모음곡 1-4번
엘리자베스 파르(Harpsichord & Lute-Harpsichord)
 켈리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당글베르는 태양왕 루이 14세의 궁정에서 하프시코드 연주자로 활동이 깃들여 있다. 1689년에 출판된 4편의 모음곡은 전형적인 프랑스풍 춤곡 모음곡으로, 느린 춤곡에서의 차분한 서정미와 빠른 춤곡에서의 기교적인 패시지가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엘리자베스 파르는 하프시코드와 류트하프시코드로 각 두 편씩을 나누어 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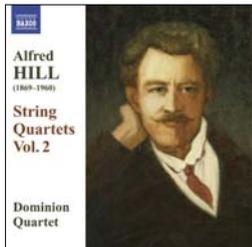
8.570468
D. 스키타티:
건반소나타 Vol.11
고틀리프 발리슈(pf)
 나폴리악파의 대표인물인 알레산드로 스키타티의 아들인 도메니코는 바흐, 헨델과 같은 해인 1685년에 태어났다. 550편이 넘는 건반소나타가 그의 가장 큰 음악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키타티 소나타시리즈의 11번째인 본 음반에는 가보트 양식의 빠른 춤곡에서의 기교적인 패시지가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엘리자베스 파르는 하프시코드와 류트하프시코드로 각 두 편씩을 나누어 연주하였다.



8.570503
빌라-로보스: 아마조나스, 크로신하의 역사, 5개의 전주곡 외
소니아 루빈스키(pf)
 20세기 라틴 클래식을 대표하는 브라질 작곡가 빌라 로보스의 피아노 작품을 담은 7번째 음반. '브라질 인디언 발레'라는 부제가 붙은 관현악곡 '아마조나스'의 피아노 버전은 최초로 레코딩되는 것이며, 기타를 위한 5개의 전주곡의 피아노 버전, '바키아나스 브라질리아스' 2번의 피아노 편곡, 토속적인 정취가 농후한 두 편의 피아노 소품집(크로신하의 역사, 코르디알리다데의 노래) 등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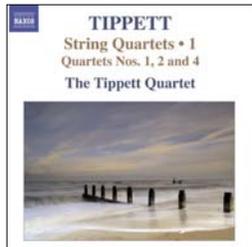
8.572022
와이즈맨: Different Voices
헤일리 웨스턴라(voice)/ 스티븐 프라이(narr)/ 데비 와이즈맨/ 로얄 필하모닉
 데비 와이즈맨은 영국의 영화 및 드라마 음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류 작곡가다. 로얄 필은 그에게 '새로운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을 위촉하였고, 그 결과물이 바로 <Different Voices>이다. 본 음반은 칸도건 홀에서의 초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여러 악기들의 활약을 인기 팝페라 가수 헤일리 웨스턴라의 감미로운 노래와 배우 스티븐 프라이의 해설과 함께 만날 수 있다.



8.572097
힐: 현악사중주 4,6,8번
도미니언 스트링 콰텟
 알프레드 힐(1869-1960)은 호주에서 태어나 뉴질랜드에서 활동했던 작곡가다. 현악사중주 4번은 엘가의 그림자를 보여주며, 6번에서는 고전주의에 대한 향수가 느껴진다. 8번은 그의 실내악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작품으로 당시 그가 보수적인 영국 음악스�타일에서 벗어나, 프랑스 인상주의에 경도되었음을 보여준다. 3작품 모두 작곡가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뛰어난 서정미의 느린 악장들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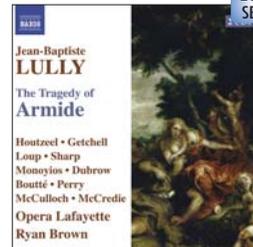
8.570786
레거: 현악삼중주 Op.141b, 피아노사중주 Op.133
아페르토 피아노사중주단
 레거는 바흐 이후 가장 위대한 독일 오르간음악 작곡가였지만, 관현악과 실내악 분야에서도 뛰어난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1차대전 중에 완성된 피아노사중주 Op.133은 풍부한 정서가 돋보이는 강렬한 인상의 작품인 반면, 플루트 세레나데를 개작한 현악삼중주 Op.141a는 우아한 선율을 담은 가벼운 성격의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독일 후기낭만음악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레거의 음악적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8.570496
티팻: 현악사중주 1,2,4번
티팻 스트링 콰텟
 20세기 중후반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였던 마이클 티팻은 평생 5편의 현악사중주를 완성하였다. 본 음반에는 선율이 돋보이는 1번, 풍부한 서정성과 활달한 울동감이 적절한 배합된 2번, 불협화음이 두드러지는 현대적인 작품인 4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1998년에 결성된 영국의 유망한 현악사중주단인 티팻 사중주단이 자신들의 이름에 걸맞은 자신감 넘치는 해석과 안정된 연주를 들려준다.



8.559273
아이브즈: 가곡집 Vol.5
Various Artists
 미국 현대음악의 선구자 아이브즈는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틈틈히 작곡활동을 병행했다. 음악과 일상의 통일을 추구했던 그는 군악대 음악, 당시 유행가, 민요, 찬송가 등의 당대의 생활 속의 여러 음악들을 자신의 음악 속에 적극 받아들였다. 14명의 미국의 젊은 성악가들과 4명의 피아노반주자 그리고 오르간, 바이올린, 피콜로, 2대의 트럼펫 등이 참여하여 당시의 삶을 반영했던 작곡가의 노래를 다채롭게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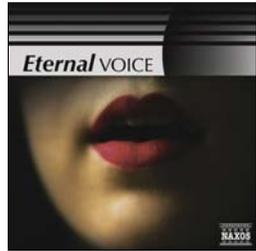
8.660209-10
릴리: 아르미드의 비극
여러 가수들
라이언 브라운
오페라 라파에트
 (아르미드)는 릴리가 작곡한 5막의 서정 비극으로, 작곡가의 대표작의 하나로 유명하다. 이슬람 마법사 아르미드와 십자군 기사 르노의 비극적 사랑을 다룬 이 오페라는 같은 타소의 시에 기초한 헨델의 <리날도>와도 연결된다. 18세기 오페라를 재현하기 위해 결성된 미국의 시대악기 연주단체인 오페라 라파에트의 견실한 연주와 젊은 성악가들의 활약은 릴리 오페라의 화려함을 충분히 전달해준다.



8.572179
Eternal Piano
이딜 비레트, 베르트 글렘저, 예닐 안도, 페테르 나지, 콘스탄틴 세르바코프 외
 사타: 3개의 짐노페디, 드뷔시: 아마넷 머리의 소녀,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 월광소나타 1악장, 그리고: 아리에타, 슈베르트: 즉흥곡 4번, 멘델스존: 무언가 6번, 모차르트: 터키행전곡, 베토벤-리스트: 교향곡 7번 2악장, 쇼팽: 왈츠 Op.64-2, 야상곡 Op.27-2, 차이코프스키: 갈대피리의 춤 등등 가장 인기 있는 피아노레퍼토리를 알차게 수록한 컴필레이션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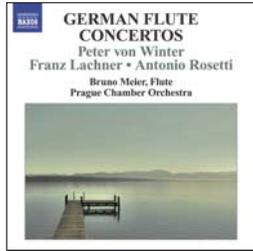
8.572181
Eternal Organ
율리아 브라운, 로렌스 커밍스, 볼프강 퀴브잠, 로버트 델캄프, 로버트 파킨슨 외
 바흐: 토카타와 푸가 BWV565, 파헬렐: 토카타, 북스테후데, 전주곡 BuxWV162, 모차르트: 안단테 K616, 멘델스존: 소나타 6번 1악장, 브람스: 코랄 프렐류드 Op.122-8, 비도르: 오르간교향곡 6번 1악장, 뒤뤼플레: 샹트동네, 뒤프레: 2개의 코랄 중 1번 등의 인기 오르간 레퍼토리는 물론, 슈만: 트로이메라이, 생상: 백조, 리스트: 위로 3번, 포레: 꿈꾸고 나서와 같은 애청곡들도 오르간 연주로 만날 수 있다.



8.572183
Eternal Voice
 아르스 노바, 옥스퍼드 카메라 타, 토누스 페렌그리누스, 볼로냐 카펠라 외
 힐 데 가르트 폰 빙겐: O Euchar, 라수스: 세족목요일을 위한 레슨, 던스터블: 상투스, 카르두주: 라멘토, 샤르팡티에: 레퀴엠 중 아누스 데이, 북스테후데: 엠브라 예수 노스트리 중 발, 제수알도: 주의 성령, 오브레흐트: 미사 카뉘트 중 키리에, 빌라르트: 아베마리아 등등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종교음악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악기는 사람의 목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만드는 음반.



8.572184
Eternal Harpsichord
 라스 올릭 모르텐센, 릭 보세주르, 엘리자베스 파르, 길버트 라올랜드 외
 바흐: 하프시코드 협주곡 BWV1056 2악장, 4대의 하프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1악장, 푸가의 기법 중 콘트라포르투스 1번, 헨델: 즐거운 대장간, 스카를라티: 소나타 K466 & K119, 라모: 'Le Sauvages', 사라방드, 포르크레: 'la Saincscy', 북스테후데: 지그, 솔레르: 소나타 7번, 쿠프랭: 'La Milordine', 로시: 토카타와 쿼랑트, 카베손: 이탈리아 파반느 등등 하프시코드의 청명한 매력을 가득 담은 컴필레이션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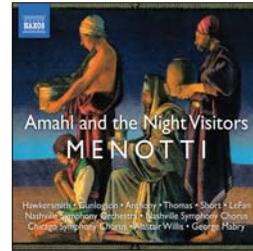
8.570593
독일 플루트 협주곡
 (빈터 1,2번, 라흐너, 로제티)
 브루너 마이어(f)
 프라하 챔버 오케스트라
 본 음반에 수록된 4편의 플루트 협주곡은 최초로 녹음되는 것들로, 빈터의 두 작품과 로제티의 협주곡이 고전주의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특징을 지닌 반면, 라흐너의 협주곡은 낭만주의가 확실한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4작품 모두 플루트의 청명한 매력이 한껏 돋보이게끔 배려된 작품들로, 스위스가 자랑하는 중견 플루티스트 브루노 마이어의 탁월한 연주력이 빛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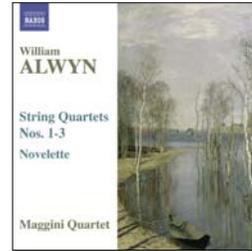
8.570517
리스트:
 피아노협주곡 1,2번, 죽음의 춤 엘다 네블신(pf)
 바실리 페트렌코
 로알 리버풀 필하모닉
 리스트는 두 곡의 피아노협주곡을 통해 로맨틱 작곡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화려한 비르투오조로서의 자신감을 맘껏 토로하였다. 2005년 리히터 콩쿠르 우승자 엘다 네블신의 눈부신 기교가 이 작품의 진가를 한층 돋보이게 하며, 젊은 마에스트로 페트렌코의 듣직한 서포터도 나무랄 곳 없다. 유명한 찬트 '디에스 이레'의 선율에 기초한 강렬한 협주곡 풍의 소품 '죽음의 춤'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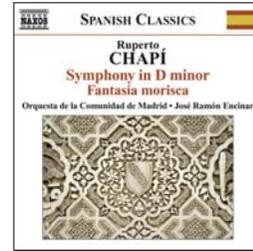
8.572083
블레이크: 바이올린소나타, 피아노사중주, 재즈댄스 외
 마델라인 미첼(vn)/ 하워드 블레이크(pf)
 잭 로트슈타인, Violin + Kenneth Essex, Viola
 Peter Willison, Cello
 하워드 블레이크는 영화 'Snowman' 중 삽입곡 'Walking in the Air'의 작곡가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본 음반에는 독주 바이올린의 초절기교를 요구하는 바이올린소나타, 매력적인 선율로 가득한 바이올린 소품 'Penillion', 낙천적이고 화사한 분위기의 피아노사중주, 대중음악적인 취향이 느껴지며 특히 느린 악장이 인상적인 '재즈 댄스' 등의 매력만점의 실내악들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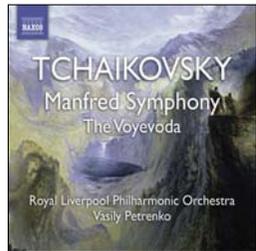
8.669019
메노티: 아말과 밤의 방문자들, 나의 크리스마스
 여러 가수들/ 알라스테어 윌리스 / 내시빌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우리 전래극에 기초한 오페라 <시집가는 날>의 작곡가로 유명한 메노티는 20세기의 대표 오페라 작곡가다. 크리스마스 오페라 <아말과 밤의 방문자들>은 그가 TV방영을 위해 완성한 작품으로, 미국에서 매년 학교나 교회 등을 통해 500회가 넘는 공연횟수를 기록하는 작품이다. 불구소년 아말은 동방박사들을 통해 예수탄생을 알게 된다. 아말은 자신의 작은 정성을 아끼 예수께 헌정함으로써 기적으로 회복된다.



8.570560
앨윈: 현악사중주 1-3번
 마기니 현악사중주단
 영국 근현대 실내악 스페셜리스트인 마기니 퀴텟의 최신보. 앨윈은 교향곡 작곡가로 유명하지만, 실내악 분야에서도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다. 사중주 1번은 드보르작과 아나츠크와 같은 보헤미안들의 실내악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 70대에 접어들어 완성한 2번은 'Spring waters'는 투르게네프의 동명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3번은 그가 남긴 마지막 작품답게 달관의 평온함이 전곡을 지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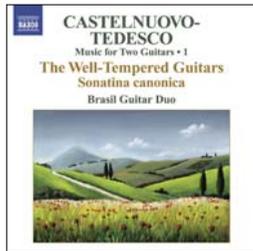
8.572195
차피: 교향곡 D단조, 판타지아 모리스카
 호세 라몬 엔시나/ 오케스트라 드 코루냐
 루페르토 차피는 19세기 후반 스페인 토착 오페라인 사르수엘라 분야에서 활약했던 작곡가다. 순수기악곡도 몇 편 남겼는데, 가장 중요한 관현악곡 두 편이 이 음반에 수록되었다. 우아한 정서와 화려한 색채감이 돋보이는 판타지아 모리스카가 비제나 생상과 같은 동시대 프랑크 작곡가들의 영향을 받은 것에 반해, 그의 유일한 교향곡은 빈 고전주의의 청정성을 충실히 따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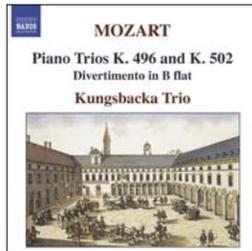
8.570568
차이코프스키: 만프레드 교향곡
 바실리 페트렌코
 로알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차이코프스키는 교향곡 4번과 5번의 중간 시기에 바이런의 극시에 기초한 표제관현악곡인 <만프레드> 교향곡을 완성하였다. 작곡가는 원작의 변화무쌍하고도 극적인 내용을 대면성 관현악과 오케스트라를 활용하여 화려하게 표현해내었다. 로알 리버풀의 새로운 수장에 취임한 이래 영국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젊은 지휘자 바실리 페트렌코의 패기 넘치는 면모를 이 음반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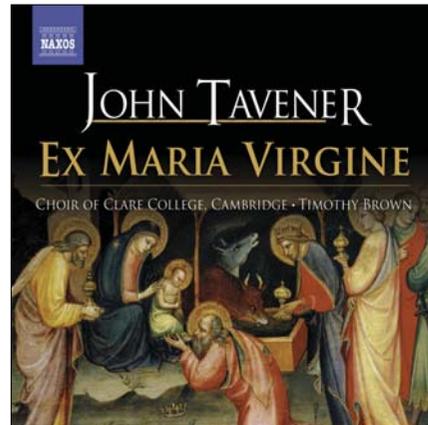
8.559382
앤더슨: 뮤지컬 <금발미녀> 발췌, 캐럴 모음곡
 킴 크리스웰(sop)/ 윌리엄 데이즐리(bar)/ 레너드 슬래트킨/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미국 라이트 클래식스의 황제 르로이 앤더슨의 전 작품을 순례하고 있는 낙소스 앤더슨 에디션의 5번째 음반. 본 음반의 중심 레퍼토리는 1958년에 초연된 매력적인 뮤지컬 '금발미녀' (Goldilocks)다. 브로드웨이에서 161회 상영되었고, 그해 2개의 토니상을 수상했던 인기작으로, 앤더슨 특유의 친근한 선율의 노래와 춤곡들을 담고 있다. 작곡가의 대표적 시즈뮤직인 캐럴 모음곡의 목관양상을 버전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0778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
 두 대의 기타를 위한 평균율, 소나티나 카노니카
 브라질 기타 듀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했던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는 기타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며, 이 악기를 위한 뛰어난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소나티나 카노니카는 기타 듀오 레퍼토리로 큰 인기를 누리는 작품으로, 대위법에 특출했던 이 작곡가의 장점이 잘 발휘된 작품이다. 바흐의 걸작에 대한 오마주 작품인 2대의 기타를 위한 24개의 평균율이 함께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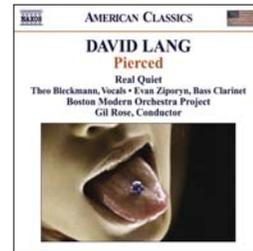
8.570518
모차르트: 피아노트리오 1,3번, 디베르티멘토 KV.254
 쿤스바츠키 삼중주단
 바로크 시대 트리오소나타에 기원을 둔 피아노트리오는 고전시대를 거치면서 현악사중주와 더불어 실내악의 표준 레퍼토리로 정착하게 되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트리오는 세 악기 사이의 균등한 역할 분담을 특징으로하며, 특히 쾌활하면서도 매력적인 선율과 아기자기한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피아노 트리오 편성을 위한 디베르티멘토 KV.254의 상큼한 매력도 놓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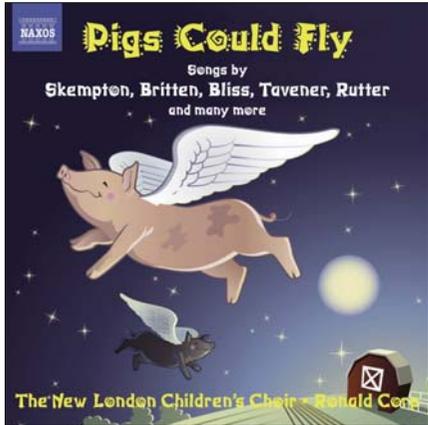
8.572168
태브너:
 합창과 오르간을 위한 크리스마스 음악들 (Ex Maria Virgine 외)
 제임스 맥비니 (org)
 티모시 브라운
 캠브리지 클레어 칼리지 합창단
 중세 비잔틴 음악을 지향하는 신비롭고 명상적인 음악세계로 현대음악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영국 작곡가 존 태브너. 오르간과 합창을 위한 크리스마스 세퀼스 'Ex Maria Virgine'는 찰스왕세자/카멜라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완성한 작품. 'Birthday Sleep', 'A Nativity', 'Marienhymne', 'O Thou Gentle Light' 등의 다양한 텍스트에 의한 무반주 성모찬가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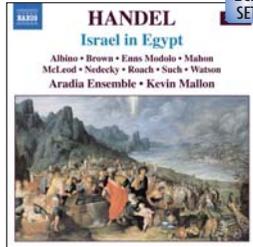
8.559274
아이브즈: 가곡 Vol.6
 Various Artists
 미국 현대음악의 선구자 아이브즈는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틈틈히 작곡활동을 병행했다. 음악과 일상의 통일을 추구했던 그는 군악대 음악, 당시 유행가, 민요, 찬송가 등의 당대의 생활 속의 여러 음악들을 자신의 음악 속에 적극 받아들였다. 18명의 미국의 젊은 성악가들과 3명의 피아노반주자가 참여하여 당시의 삶을 반영했던 작곡가의 노래를 다채롭게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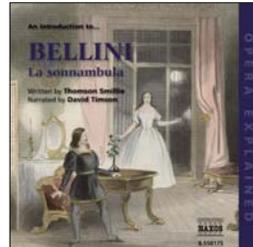
8.559615
랑:
 피어스드, 헤로인, 속임수 거짓말 절도, 기도하는 법, 혼인 여러 음악가들
 질 로즈
 보스턴 모던 오케스트라 프로젝트
 폴리처 수장자인 데이비드 랑은 장르를 초월한 독특한 음악세계로 미국 현대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작곡가다. 가장 흥미로운 작품은 루 리드/벨벳 언더그라운드드의 명곡 <히로인>을 독주 첼로 반주의 명상적인 보컬곡으로 편곡한 작품. 재즈 풍의 협주곡 작품 <Pierced>, 락음악과 같은 그루브감을 느끼게 하는 <속임수, 거짓말, 절도> 등 진정한 크로스오버의 진수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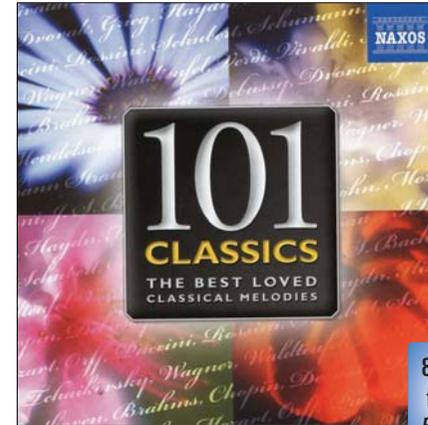
8.572113
돼지가 날 수 있다면
 (어린이 합창단을 위한 20세기 음악들)
 알렉산더 웰즈(pf)
 로널드 콕스
뉴 런던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위해 20세기 작곡가들이 완성한 다양한 합창곡들을 담은 음반. 각종 CF를 통해 너무나 유명해진 존 러터의 대표곡 〈For the Beauty of the Earth〉를 비롯, 브리튼, 본 윌리엄스, 태브너, 맥스웰데이비스, 블리스, 베네트, 스킴튼, 모 등의 천진난만한 작품들이 담겼다. 베네트의 〈벨레세상〉, 〈새장〉과 같은 묘사적인 작품이나 스킴튼의 익살스런 〈돼지가 날 수 있다면〉 등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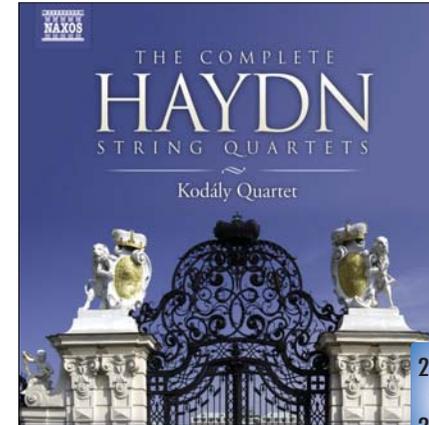
8.570966-67
헨델: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알비노, 브라운, 몰도로, 마혼, 맥레오드, 네택키 외
 케빈 말론
아라디아 앙상블
 이집트의 이스라엘인'은 헨델이 메시아의 3년 뒤에 완성한 오라토리오다. 이중합창과 다수의 금관이 포함된 대편성 오케스트라를 필요로 하는 대작으로, 솔로 아리아보다는 극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뛰어난 합창곡들이 작품 전체의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특징적인 작품이다. 파리, 개구리, 천둥 번개 등이 이어지는 이집트에 대한 장엄 장면에서는 헨델의 뛰어난 word-painting 기법을 확인하게 된다.



8.558175
Opera Explained : 벨리니의 몽유병의 여인
 탐슨 스마일리(원고) 데이비드 팀슨(낭송)
Opera Explained 시리즈는 유명 오페라들의 작곡배경과 줄거리, 음악적 특징에 대한 해설을 영국 일급 성우의 정확한 발음으로 담은 오디오 북으로, 오페라 애호가들은 물론 영어 리스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몽유병의 여인은 벨칸토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작곡가 벨리니의 음악적 특징과 이 오페라와 관련된 뒷 이야기들을 오페라의 하이라이트와 함께 수록하였다.



8.508004
101 Classics: 클래식 애청곡 모음집 (8 for 5)
Various Artists
 그레이트 왈츠, 로맨틱 피아노음악, 장대한 합창, 휴식을 위한 아다지오, 독서를 위한 라르고, 오페라 하이라이트, 바로크 히트곡, 로맨틱 히트곡의 소재목들로 구성된 도합 8장의 CD에 101곡의 귀에 익은 클래식 히트곡들을 빼곡히 수록해 놓은 컴필레이션 음반. 낙소스 최초의 디럭스 주얼 케이스의 산뜻한 외양이 눈길을 끈다.



8.502400
하이든: 현악사중주 전집 (25 for 20)
코다이 현악사중주단
 낙소스 대표 명반으로 손꼽혔던 코다이 사중주단의 하이든 현악사중주 전집이 BOX 패키지로 재발매되었다. 2009년 하이든 서거 200주기를 기념하여 발매된 한정판으로 펄권가이드, 레퍼토와, 무지크 드 라 몽드, 그라모폰 등의 유력 음반전문지들의 격찬을 받았던 이 시리즈를 보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드 페이퍼 박스안에 개별 페이퍼 슬립 형태로 포장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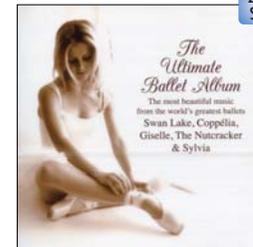
8.558174
Opera Explained :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
 탐슨 스마일리(원고)/ 데이비드 팀슨(낭송)
Opera Explained 시리즈는 유명 오페라들의 작곡배경과 줄거리, 음악적 특징에 대한 해설을 영국 일급 성우의 정확한 발음으로 담은 오디오 북이다. 오페라 애호가는 물론 영어 리스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는 오페라 역사상 최초의 걸작 오페라다. 이 오페라와 관련된 그리스 신화와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변화된 시점의 음악사조의 변화에 대한 해설과 오페라의 하이라이트를 함께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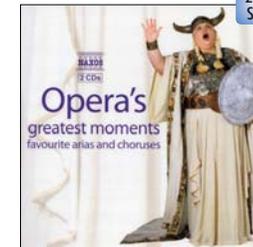
8.557941-42
Extreme Classics (가장 요란스런 클래식 작품들 모음)
Variou Artists
 하차투리안의 칼춤, 홀스트의 화성, 바그너의 발퀴레의 승마와 지크프리트의 장송행진곡, 스트라빈스키 불새 중의 카스케이의 춤, 레스피기의 아피아가도의 소나무,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 2악장,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어, 프로코피예프의 기사들의 춤, 글리에르의 러시아수병의 춤, 히나스테라의 말람보, 무소르그스키의 바바야가의 오두막과 키에프의 대문 등등 가장 시끌벅적한 클래식 인기곡들을 망라한 음반.



8.578011-12
Toon Time (만화에 사용된 클래식 음악들)
Various Artists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음악선물. 각종 만화를 통해 귀에 익은 클래식 명곡들을 2장의 CD에 골라 담은 음반이다. 디즈니의 불세출의 명작만화 〈환타지아〉에 사용되었던 클래식(마법사의 제자, 전원교향곡, 시간의 춤, 호두까기인형, 민둥산의 하룻밤 등)를 비롯하여, 왕벌의 비행, 산왕의 궁전에서, 마리오네트 장송행진곡, 김연아의 피겨 퍼포먼스로 다시금 유명해진 생상의 죽음의 무도 등의 친근한 명곡들을 수록.



8.570011-12
The Ultimate Ballet Album (가장 유명한 발레 작품들 모음)
Varous Artists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와 호두까기 인형, 하차투리안의 스파르타쿠스와 가면무도회, 들리브의 코펠리아와 실비아, 아담의 지젤,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등 로맨틱 및 근대 발레의 대명사들도 같은 작품들의 대표곡들을 2장에 CD에 나누어 담은 음반.



8.557926-27
Opera's Great Moments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합창들)
Various Artists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꽃의 이중창,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대장간의 합창, 신성한 사원에서, 투우사의 노래, 달의 노래, 히브리 노래의 합창, 카탈로그의 노래, 어떤 갠 날, 허밍 코러스, 하바네라, 타티아나의 편지 장면, 개선행진곡, 혼례의 합창, 축배의 노래, 의상을 입어라, 순례의 합창, 여자의 마음, 밤의 여왕의 아리아, 나는 거리의 이발사, 별은 빛나건만, 정결한 여신, 사랑꾼의 합창 등등의 오페라 히트곡들 모음집



8.501042
하이든: 피아노소나타 전집 (10CD)
예뇌 안도 (pf)
 창립초기부터 지금까지 낙소스의 간판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예뇌 안도가 8년의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완성했던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전집이 작곡가의 서거 200주기를 기념하여 BOX 패키지 형태로 재발매되었다. 최근들어 입시곡과 감상용으로도 점차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하이든의 소나타를 안도의 총실한 연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드 페이퍼 박스안에 개별 페이퍼 슬립 형태 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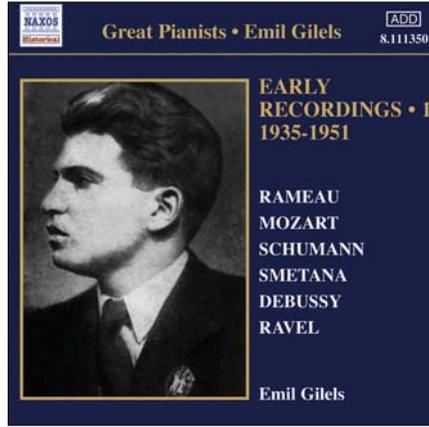


8.557947-48
Heavenly Voices (바흐의 가장 아름다운 아리아들)
Variou Artists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양들은 편안히 풀을 뜯고,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마태수난곡, 요한수난곡의 감동적인 아리아들, 결혼 칸타타와 커피칸타타, 사랑칸타타 속의 정겨운 노래들, 그리고 바흐가 아내를 위해 만든 아름다운 연가인 안나 막달레나의 음악수첩 중 '당신이 내 곁에 있다면' 등 바흐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성악곡들이 두 장의 CD를 빼곡이 채워놓았다.



Naxos Historical & Nostalgia

www.naxos.com



8.111350
에밀 길렐스 초기 녹음들 Vol.1
 라모, 모차르트, 고도프스키, 멘델스존, 스메타나, 드뷔시, 라벨 외
 러시아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에밀 길렐스가 소련에서 녹음한 초기 희귀
 녹음들을 복각한 음반. 그가 19세때 녹음한 고도프스키와 슈만의 소품
 들에서부터 1951년에 녹음한 라모의 두 작품에 이르기까지 길렐스의
 젊은 기백과 신선한 감각을 경험하게 되는 값진 기회다. 모차르트의 소
 나타 14번 전주곡과 드뷔시의 월광,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중 일부, 슈만
 의 토카타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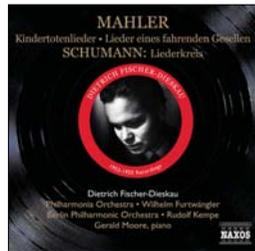
8.111296
쇼팽: 피아노협주곡 1,2번
아르투르 루빈시타인(pf)
발렌슈타인, 스타인버그
LA 필, NBC 심포니
 20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쇼팽 스
 페셜리스트 아르투르 루빈시타인
 의 쇼팽 협주곡 1,2번. 발렌슈타인
 /LA 필과의 1번(53년 녹음)과 스
 타인버그/NBC 심포니와의 2번
 (46년 녹음)을 합한 것으로, 두 연
 주 모두 루빈시타인의 두번째 동
 곡 녹음에 해당한다. 30년대의 첫
 녹음에 비해 한결 여유로워진 거
 장의 풍모를 느낄 수 있으며, 두
 연주 모두 녹음 시기에 비해 양질
 의 사운드를 자랑한다.



8.110791
유시 비올링 7집 (스웨덴의 노래들)
유시 비올링(te)
 스웨덴 출신의 위대한 테너 유시
 비올링이 남긴 음원들을 집대성
 중인 녹음의 비올링 에디션의
 7번째 음반. 그가 노래한 스웨덴
 의 노래들을 갈무리하였다. 리사
 이틀 단골 레퍼토리였던 세베리
 의 '음악'을 비롯하여 스텐함마
 르, 페테르손-베르거, 알프벤 등
 곡 녹음에 해당한다. 스웨덴의 민요
 들, 당시의 대중적인 가요들에
 이르기까지 비올링의 다재다능
 함을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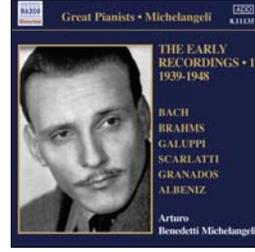
8.111298
브람스: 교향곡 1번,
베토벤: 레오노레 3번 서곡 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헤보우
 35세 카라얀이 남긴 열정적인
 브람스 1번, 2차대전 중인 1943
 년 9월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헤
 보우를 지휘한 폴리도르 SP를
 복각한 것으로, 젊은 시절 카라
 얀의 혈기와 카리스마를 느끼게
 된다. 베토벤의 레오노레 3번 서
 곡과 R 슈트라우스의 살로메 중
 7베일의 춤이 함께 수록되었다.
 일곱 복각 전문가 마크 오버트-
 손의 손길을 통해 녹음연대에 비
 해 양호한 음질로 거듭났다.



8.111300
말라: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죽은 자식을 그리는 노래, 슈만 :
리더크라이스
피셔 디스카우(bar)/ 푸르트 벵
글러, 캄페/ 필하모니아, 베를린
필, 제랄드 무어(pf)
 금세기 최고의 바리톤 피셔디스카
 우가 1950년대에 남긴 두 편의 말
 라 연가곡과 슈만의 리더크라이스
 Op.39를 함께 수록한 음반. 52년
 녹음인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는
 푸르트벵글러/필하모니아와, 55년
 녹음인 죽은 자식을 그리는 노래
 는 루돌프 캄페/베를린 필과 협연
 한 것이고, 54년 녹음인 슈만은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반주와 함
 계 하였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 레퍼런스로 손꼽히는 역사적인
 수연들이다.



8.111327
쇼팽: 피아노소나타 2번,
슈만: 어린이 정경, 사육제 외
알프레드 코르토 (pf)
 알프레드 코르토가 만년에 남긴 녹음들을 모은 음반으로 그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쇼팽과 슈만의 피아노 인기곡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1953
 년 녹음인 쇼팽의 피아노소나타 2번은 그가 남긴 동곡의 마지막 레코딩
 이다. 같은 시기에 녹음한 슈만의 '어린이 정경'에서는 코르토 특유의
 노래하는 듯한 선율과 로맨틱한 서정이 충분히 느껴지며, 색채감이 돋
 보이는 '사육제'도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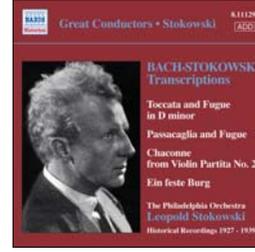
8.111351
아르투르 미켈란젤리
초기 레코딩
바흐, 갈루피, 스카를라티,
브람스, 그라나도스,
알베니스, 모푸 외
 미켈란젤리는 제네바 콩쿠르 우
 승자후인 1939년부터 레코딩을
 시작하였다. 본 음반에는 데뷔
 음반 중의 그라나도스 '안달루
 사'부터 1948년 녹음인 브람스
 파가니니변주곡과 바흐-부조니
 샤콘느에 이르기까지 그의 초기
 레코딩들을 담았다. 그로 인해
 유명해진 작곡가인 갈루피의 프
 레스토, 모푸의 칸시온과 단차 1
 번, 바흐의 이탈리아협주곡 등등
 젊은 시절 그의 활기 넘치는 연
 주들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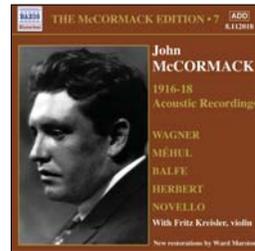
8.111252
베토벤:
바이올린소나타 5,6,7번
조셉 퍼치스(vn)
아르투르 발삼(pf)
 조셉 퍼치스(1899-1997)는 미국
 출생 바이올리니스트로서는 가
 장 먼저 세계 음악계의 정상에
 올랐던 연주자로 평가된다.
 1923년부터 40년까지 클리블랜
 드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활약
 했고, 이후 솔리스트로 변신하여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콘서트와
 실내악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
 였다. 1952년 맥카를 통해 선보
 였던 베토벤 소나타전집은 연주
 와 음질 양면 모두에서 오래도록
 하이 스탠더드로 꼽혀왔던 연주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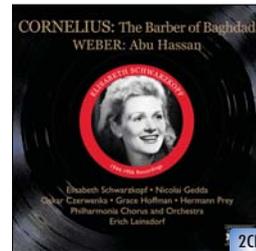
8.111253
베토벤:
바이올린소나타 8,9,10번
조셉 퍼치스(vn)
아르투르 발삼(pf)
 조셉 퍼치스(1899-1997)는 미국
 출생 바이올리니스트로서는 가
 장 먼저 세계 음악계의 정상에
 올랐던 연주자로 평가된다.
 1923년부터 40년까지 클리블랜
 드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활약
 했고, 이후 솔리스트로 변신하여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콘서트와
 실내악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
 였다. 1952년 맥카를 통해 선보
 였던 베토벤 소나타전집은 연주
 와 음질 양면 모두에서 오래도록
 하이 스탠더드로 꼽혀왔던 연주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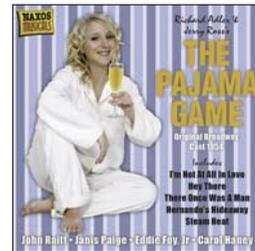
8.111297
바흐-스토코프스키:
관현악편곡들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스토코프스키의 감각적인 편곡
 이 바흐 음악의 본질을 해친다는
 악평도 만만치 않지만, 많은 초
 심자들을 바흐의 세계로 인도한
 공로는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본 음반에는 건반과 바이올린을
 위한 독주곡들을 관현악으로 편
 곡한 작품들을 자신의 지휘로 녹
 음한 것이다. 토카타와 푸가, 샤
 콘느, 코랄 전주곡 '내 주는 강
 한 성이오', 파사칼리아와 푸가,
 평균율 중의 몇곡, 3곡의 코랄
 전주곡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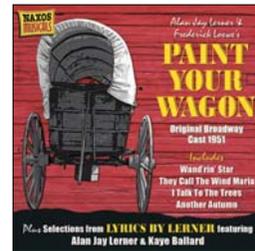
8.112018
존 맥코맥 에디션 Vol.7
바그너, 허버트, 라프, 오펜바흐,
노벨로, 크라이슬러, 포레 외
존 맥코맥 에디션의 7번째 음반.
 바그너 마이스터징거 중의
 Preislied는 그가 남긴 유일한
 정규 레코딩으로, 당시의 관습대
 로 영어 번역 가사로 노래하였
 다. 크라이슬러의 바이올린과 함
 께 한 오펜바흐의 뱃노래와 라프
 의 세레나데, 허버트와 노벨로의
 히트곡들, 미국 국가 '성조기',
 포레의 성가곡 등등 그가 즐겨
 부르던 다채로운 레퍼토리들을
 수록하였다.



8.111337-38
코르넬리우스:
바그다드의 이발사
슈바르츠코프, 게다, 프라이, 호
프만 외/ 에리히 라인스도르프/
필하모니아
 독일 작곡가 페터 코르넬리우스
 는 리스트와 바그너의 든든한 음
 악 동료였다. 그는 바그너의 영
 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극음악과
 가극들을 다수 작곡하였는데, 그
 중 대표작이 낭만시대 최고의 독
 일 코믹 오페라로 손꼽히는 '바
 그다드의 이발사'다. 슈바르츠코
 프와 니콜라이 겐다가 참여하고
 라인스도르프가 필하모니아를
 지휘한 1956년의 이 녹음은 지
 금까지도 동곡 최고의 레코딩으
 로 손꼽히는 명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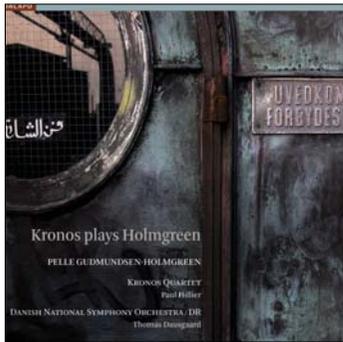
8.120878
The Pajama Game
1954년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캐
스팅
 1954년 5월 브로드웨이의 무대
 에 올랐던 리처드 애들러와 제리
 로스의 뮤지컬 <파자마게임>은
 이듬해 3개의 토니상을 수상하
 면서 브로드웨이의 대표 레퍼토
 리로 기록되었다. 57년에는 영화
 화 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 브로
 드웨이에 리바이벌되었는데, 특
 히 해리코닉스주니어가 주연했던
 2006년 리바이벌은 11부문의 토
 니상후보에 올라 그 중 2개를 획
 득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8.120877
Paint Your Wagon
1951년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캐
스팅
 <Paint Your Wagon>은 프레데
 릭 로우가 <마이 페어 레이디>에
 앞서 1951년 브로드웨이에 올렸
 던 작품이다. 이듬해까지 289번
 이나 상연되면서 성공을 거두었
 고,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대가
 로우의 히트작의 하나로 손꼽힌
 다. Wand'rin' Star, I Talk to the
 Trees, They Call the Wind Maria
 등의 히트곡들이 인기를 얻었다.
 1969년에는 리
 마빈,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뮤지컬영화로도 제작되었다.

DACAPO Dacapo

www.dacapo-records.dk



6.220548
홀름그렌:
 콘체르토 그로소, 무빙 스틸 외 (Hybrid-SACD)
 크로노스 콰텟/ 폴 힐리어(bar)/ 토마스 다우스고르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

명실상부한 현대음악의 전도사 크로노스 콰텟의 최신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덴마크 출신 현존 작곡가인 홀름그렌이 이들을 위해 완성한 현악 사중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콘체르토 그로소에 주목하게 된다. 바리톤과 현악사중주를 위한 무빙 스틸에서는 합창지휘자로 더욱 유명한 폴 힐리어가 독창을 맡았다. 바다가 만들어내는 자연음향과 현악사중주의 연주를 접목한 라스트 그라운드도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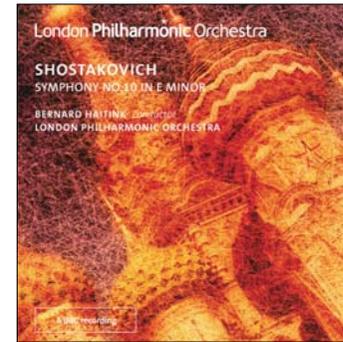
8.226075
클레나우: 현악사중주 1-3번
 셸란트 현악사중주단

파울 폰 클레나우(1883-1946)는 덴마크 출신이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활약했던 작곡가다. 알반 베르크의 친구였으나, 신변악파의 급진적인 12음기법을 적극 받아들이기보다 후기낭만주의와 초기 모더니즘의 경계선에 놓인 듯한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했다. 베르크는 클레나우의 음악세계를 두고 '조성음악의 황혼'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최근 재발견된 현악사중주 3편은 이러한 작곡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

www.lpo.co.uk



LPO-0034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 (그라프폰 에디터스 초이스)
 베르나르트 하이팅크/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86년 8월 28일 로얄 알버트 홀에서 펼쳐졌던 프롬스 실황녹음. 1967년부터 79년까지 런던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이 악단과 함께 최고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집을 완성시켰던 거장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모처럼 동악단을 객원지휘하여 또 하나의 걸출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하나를 완성시켰다. 교향곡 10번은 스탈린의 죽음 이후 자유로운 창작환경에서 완성시켰던 곡으로, 쇼스타코비치의 창조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걸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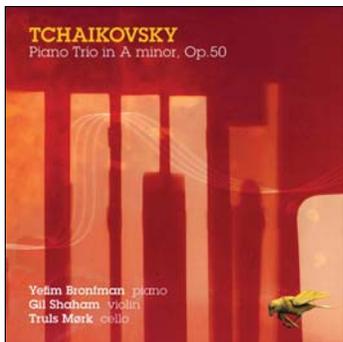


LPO-0035
맥밀란: 이소벨 고디의 고백,
 아데: 챔버 심포니,
 혁단: 타악기합주곡
 콜린 커리(perc)/ 마린 알습/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현재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젊은 작곡가 세 사람의 작품을 담았다. 제임스 맥밀란의 '이소벨 고디의 고백'은 17세기 후반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마녀사냥의 희생자를 소재로 삼은 드라마틱한 관현악작품. 챔버 심포니는 토마스 아데가 10대 후반에 완성한 초기작이지만, 이 작곡가의 창의적인 음악세계를 충분히 경험케 한다. 변화무쌍한 리듬의 향연을 담은 제니퍼 혁단의 타악기합주곡은 세계적인 퍼커셔니스트 콜린 커리를 위해 완성된 작품이다.

Canary Classics

Canary Classics는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길 사함이 설립한 독립 레이블의 이름입니다.

www.canaryclassics.com



CC05
차이코프스키: 피아노트리오
 길 사함(vn)/ 트루스 뮌크(vc)/ 예핌 브론프만(pf)

바이올리니스트 길 사함, 첼리스트 트루스 뮌크, 피아니스트 예핌 브론프만은 저마다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의 명성을 구가하고 있는 솔리스트들이다.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트리오는 이 장르를 대표하는 걸작의 하나로, 세 정상급 연주자들의 뛰어난 개인기량과 조화로운 앙상블을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인 레퍼토이다. 또한 주제와 변주로 구성된 2악장의 경우 각 변주별로 트랙을 꼼꼼히 나눠놓음으로써 감상자를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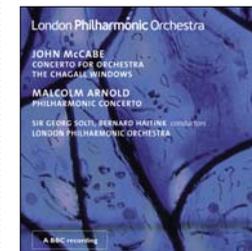


CC06
엘가: 바이올린협주곡
 길 사함(vn)/ 데이비드 진만/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2007년 2월 시카고 심포니 센터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음반. 길 사함과 데이비드 진만, 그리고 시카고 심포니라는 색다른 조합에 눈길을 끈다. 장대한 규모의 엘가의 협주곡은 호방한 양단 악장과 센터멘탈한 느린 악장의 조화가 대영제국의 화려했던 전성기의 끝자락을 연상케 하는 곡으로, 사함의 풍부한 표현력과 눈부신 테크닉을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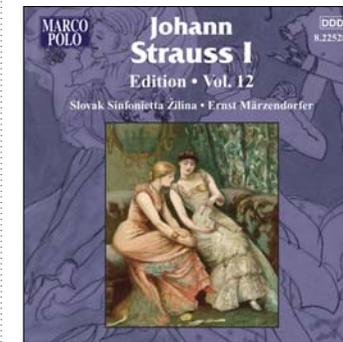
LPO-0036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3번, 벅스: 틴타겔
 오스모 뱌스캐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라티 심포니와의 시벨리우스 시리즈로 크게 호평을 얻었고 현미네스타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약 중인 오스모 뱌스캐가 낭만주의를 고집했던 20세기 초반 작곡가들의 두 걸작을 지휘하였다. 2007년 12월 8일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라흐마니노프의 아름다운 선율감각과 벅스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 테크닉을 돋보이게 하는 뱌스캐의 훌륭한 지휘가 돋보이는 연주.



LPO-0023
맥케이브:
 관현악협주곡, 사갈 창문,
 아놀드: 필하모닉 협주곡
 게오르그 솔티 & 베르나르트 하이팅크/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존 맥케이브와 말콤 아놀드는 런던 필하모닉과 밀접한 협력 작업을 수행했던 영국의 현대작곡가들이다. 맥케이브의 관현악협주곡은 바르톡이나, 루트스와브스키 등의 걸작에 비견될 만한 작품으로 솔티의 지휘봉 아래서 펼쳐지는 런던 필 멤버들의 뛰어난 개인기가 돋보인다. 사갈의 그림들을 소재로 한 사갈의 창문 역시 주목할 만한 작품. 아놀드의 필하모닉 협주곡은 바로 런던 필을 위해 완성한 작품이다.

MARCO POLO Marco Polo

www.naxos.com



8.225288
J 슈트라우스 1세:
 탈리오니 왈츠, 미르텐 왈츠, 산도깨비 왈츠
 에른스트 메르첸도르퍼
 질리나 슬로바키아 심포니에타

요한 슈트라우스 1세 에디션의 12번째 음반. 아들의 영광에 가려져 라데츠키행진곡 하나로 기억되는 이 작곡가의 진면목을 다시 일깨워주는 값진 시리즈다. 이탈리아의 스타 발레리나 마리 탈리오니를 위해 작곡한 왈츠, 빅토리아여왕의 결혼기념곡인 미르텐 왈츠, 제독 그대로 우스꽝스러운 느낌의 산도깨비 왈츠 등 개성적인 왈츠 8곡을 수록하였다.



Phoenix Edition

www.phoenixediti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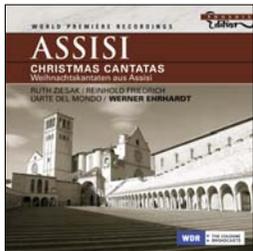


5CD for 3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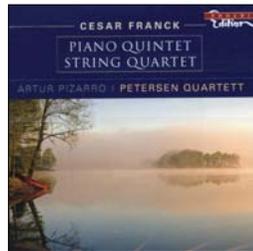
Phoenix135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전집 (5for3)
디미트리 키타엔코/ 필론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냉전시대 때부터 소련 음악계의 대표 지휘자로 군림해왔던 키타엔코는 KBS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를 역임함으로써 우리 음악계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친근한 이름이기도 하다. 최근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와 함께 완성했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집이 크게 호평 받음으로써 녹음 지 않은 역량을 선보였던 그가 동악단과 더불어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전집에 도전하였다. 2007년에 있었던 일련의 실황들을 수록한 것으로, 가장 소비에트적인 작곡가였던 프로코피에프의 진면목을 열정적으로 표출해내고 있다. 교향곡 4번은 오리지널 버전과 개정판을 함께 수록하였다.



Phoenix119
탱고 누에보 (피아졸라, 호른)
듀오 빌라르소 (알렉산드라 소스트망 & 유디트 모슈)
 밤거리 음악으로 천대받던 탱고를 전세계가 열광하는 고품격 음악으로 탈바꿈 시켰던 피아졸라. 피아졸라의 '그랑 탱고'와 '신비한 푸가'를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하였다. 아울러 네덜란드 재즈 아티스트 마르쿠스 호른이 피아졸라 스타일로 창작한 감각적인 탱고와 밀롱가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특히 피아졸라의 걸작 '리베르 탱고'를 피아노 연탄을 위한 변주곡으로 재창조한 '리베르 탱고 변주곡'이 눈길을 끈다.



Phoenix149
아시시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포르포라, 베네데티, 라차리 외)
루트 지작 외/ 라인홀트 프리드리히(trlp)/ 베르너 에르하르트/ 아르테 델 폰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로 인해 유명해진 중부 이탈리아의 도시다. 지휘자 에르하르트는 이 도시의 사크로 수도원 도서관에 보관 중인 방대한 음악들 중에서 보석과도 같은 숨겨진 걸작들을 발굴하여 이 음반을 출시하였다. 도시의 음악감독을 역임했던 18세기 나폴리 출신 작곡가들(포르포라, 베네데티, 피날레, 라차리) 등의 종교음악과 더불어 멜라니와 코렐리의 기악곡들을 알차게 수록되었다.



Phoenix142
프랑크: 피아노오중주 F단조, 현악사중주 D장조
아르투르 피차로(pf) 페터젠 현악사중주단
 1990년 리즈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아르투르 피차로와 독일의 정상급 실내악단 페터젠 퀸텟의 만남. 프랑크의 대표 실내악 두곡을 함께 수록하였다. 피아노오중주는 프랑크 실내악의 새지평을 열었던 걸작으로, 작곡가 특유의 치밀한 음악적 구성과 피아노 파트의 현란한 기교가 인상적인 작품. 죽기 일년 전의 작품인 현악사중주는 베토벤의 후기 현악사중주에 필적하는 심원한 음악적 감동을 느끼게 한다.



Phoenix133
쇤베르크: 현악사중주 2번, 베베른: 느린 악장, 베르크: 서정조곡 일부
크리스틴 새퍼(sop) 페터젠 현악사중주단
 독일의 실력파 실내악단 페터젠 퀸텟이 신 빈악파의 실내악에 도전하였다. 쇤베르크 현악사중주 2번은 소프라노의 노래가 덧붙은 3,4악장이 인상적인 작품. 현악대음악의 보충수표와도 같은 정상급 소프라노 크리스틴 새퍼가 페터젠 퀸텟과 호흡을 맞추었다. 베르크의 서정조곡 중 '은밀한 목소리'에서도 새퍼의 감각적인 노래를 만날 수 있다. 베베른의 중요 실내악 소품인 현악사중주를 위한 느린 악장이 함께 수록되었다.



Phoenix144
슈베르트: 2개의 징슈필(쌍둥이 형제, 4년간 초병근무)
슈테판 겐츠, 아가 미콜라이 외/ 크리스토프 슈페링/ 다스 노이에 오케스트라
 독일의 황제 슈베르트는 다른 성악장르에도 관심이 많았다. 오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10편이 넘는 작품에 손대었지만, 성공작은 거의 없었다. 본 음반에 수록된 두 편의 짙막한 징슈필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세인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비운의 작품들이다. 슈베르트가 18세에 완성한 첫 극음악인 '4년간 초병근무'와 두 번째 징슈필은 '쌍둥이형제'는 독일 민중음악으로서의 징슈필의 특성을 충실히 계승한 작품들이다.



Phoenix143
트럼펫 & 오르간 (메시앙, 쇼스타코비치, 졸리베, 타케미츠 외)
라인홀트 프리드리히(trp) 이베타 암칼나(org)
 트럼펫과 오르간을 위한 현대음악 모음집. 독일을 대표하는 트럼펫 솔로리스트이자 아바도의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수석인 라인홀트 프리드리히와 라트비아 출신의 젊은 오르간 기대주 이베타 아바이나가 호흡을 맞추었다. 메시앙의 '정원의 피꼬리', 타케미츠의 'Paths', 쇼스타코비치의 '파사칼리아', 에벤의 '창문', 졸리베의 '아리오소 바로코' 등을 수록.



2CD for 1.5CD

Phoenix145
피츠너: 칸타타(독일 혼에 대하여) 크링겔보른, 슈튀츠방, 벤트리스, 홀/ 잉고 메츠마허/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독일 낭만주의의 마지막 계승자였던 피츠너는 나치 부역에 대한 오해로 그동안 평가 절하되어왔던 작곡가다. 1922년에 초연된 그의 칸타타 <독일 혼에 대하여> 역시 나치 치하에서 체제 선전용으로 오용되었던 작품이었기에 연주 기회가 극히 적었던 불행한 걸작이다. 잉고 메츠마허가 2007년 독일의 통일 기념하는 음악회에 이 작품을 올렸을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바로 그 실황이 음반으로 출시되었다.



Phoenix155
스칸디나비아의 크리스마스 (시벨리우스, 마데토야 외 + 전통 캐롤)
신베 룬드그렌(sop), 요한나 페른홀름(alt)/ 볼프강 코게르트(org) 외
 노르웨이 소프라노 신베 룬드그렌과 핀란드 메조 요한나 페른홀름이 노래하는 북구의 크리스마스 노래들. '고요한 밤, 거룩한 밤'과 같은 유명 캐롤은 물론, 시벨리우스, 마데토야, 노르드크비스트, 코틸라이넨, 릴레포르스와 같은 스칸디나비아의 근현대 작곡가들의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북구의 설원 과도 같은 정결한 분위기의 크리스마스를 선사해줄 것이다.



2CD for 1CD

Phoenix156
메트너: 잊혀진 멜로디 Op.38, 39, 3개의 소품, 소나타 삼부작 외
에카테리나 데르자비나(pf)
 메트너는 러시아 출신이지만 독일 낭만음악에 완전히 경도되었던 작곡가로, 라흐마니노프 못지 않은 아름다운 선율을 담은 피아노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로맨틱한 정서로 채워진 'Stimmungsbilder', 자유로운 즉흥연주 스타일의 작품들인 소나타 삼부작, 다양한 개성의 소품들을 모은 잊혀진 멜로디 2세트를 1992년 라이프치히 바흐 콩쿠르 우승자이자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교수인 데르자비나의 연주로 수록하였다.



Phoenix134
영광과 천벌 (2대의 피아노로 연주하는 오르간 작품들)
프리드리히 토마스 & 한스야콥 슈탤머(pf)
 유명 오르간 작품들을 피아노 이중주의 형태로 편곡하여 연주한 음반. 바흐의 파사칼리아 BWV582, 스베링링크의 변주곡, 북스테후데의 장송음악과 전주곡과 푸가, 모차르트의 프리메이슨장송곡, 멘델스존의 전주곡과 푸가, 브람스 최후의 작품인 코랄 전주곡 'O Welt ich muss dich lassen', 레거의 전주곡과 파사칼리아가 두 대의 피아노가 피어내는 청명하고도 농밀한 사운드를 통해 새롭게 재창조 되었다.



Phoenix130
크레넥: 실내 오페라 (What price confidence), 가곡들
일라나 다비츠, 수잔 나루키, 리하르트 클레멘트, 크리스토퍼펜 노무라/ 린다 홀(pf)
 에른스트 크레넥은 얼마 말라의 사위이자, 알마가 남편의 교향곡 10번의 완성을 처음 부탁했던 BWV582, 스베링링크의 변주곡, 북스테후데의 장송음악과 전주곡과 푸가, 모차르트의 프리메이슨장송곡, 멘델스존의 전주곡과 푸가, 브람스 최후의 작품인 코랄 전주곡 'O Welt ich muss dich lassen', 레거의 전주곡과 파사칼리아가 두 대의 피아노가 피어내는 청명하고도 농밀한 사운드를 통해 새롭게 재창조 되었다.



Phoenix131
독일 현대 호른협주곡 (프라이시처, 하인슈, 슈테르크, 슈베르츠)
누리 가르나셀리(hrn)/ 고트프리트 라블/ 앙상블 '디에 라이에'
 에른스트 크레넥은 얼마 말라의 사위이자, 알마가 남편의 교향곡 10번의 완성을 처음 부탁했던 BWV582, 스베링링크의 변주곡, 북스테후데의 장송음악과 전주곡과 푸가, 모차르트의 프리메이슨장송곡, 멘델스존의 전주곡과 푸가, 브람스 최후의 작품인 코랄 전주곡 'O Welt ich muss dich lassen', 레거의 전주곡과 파사칼리아가 두 대의 피아노가 피어내는 청명하고도 농밀한 사운드를 통해 새롭게 재창조 되었다.



8CD for 3CD

Phoenix161
하이든: 피아노삼중주 전집
하이든 트리오 아이젠슈타트
 베토벤 피아노삼중주 전집으로 호평을 받았던 아이젠슈타트 하이든 트리오가 하이든의 피아노삼중주 전곡(39곡)에 도전하였다. 하이든의 초기 삼중주들은 바로크 트리오 소나타의 전통을 따라 피아노 파트를 통주저음처럼 활용했지만, 후기로 갈수록 피아노 파트가 작품 전체를 리드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아이젠슈타트 하이든 트리오의 이름에 걸맞게 작곡가 특유의 유쾌 발랄한 정서를 한껏 발산하고 있다.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MD&G]

www.mdg.de



342 1512-2
차이코프스키/ 스메타나: 피아노 트리오
 빈 피아노 트리오

실내악 명가 MDG를 대표하는 피아노 삼중주단인 빈 피아노 트리오의 최신보.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의 죽음을 기리는 차이코프스키의 걸작 피아노 트리오 Op.50과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완성한 스메타나의 피아노 트리오 Op.15를 함께 수록하였다. 2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한번의 멤버 교체 없이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던 빈 피아노 트리오의 능익은 연주력과 치밀한 앙상블이 두 걸작을 더욱 감동적으로 들려준다.



603 1238-2
글라주노프: 현악사중주를 위한 모음곡, 현악오중주
위트레흐트 현악 사중주단
 현악사중주를 위한 모음곡과 현악오중주는 모두 글라주노프가 20대에 완성한 작품들로, 차이코프스키의 로맨틱한 음악세계를 충실히 계승했던 작곡가의 젊은 시절을 대변해준다. 모음곡은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의 아름다운 감성을 연상케 하며, 첼로를 한 대 더 추가함으로써 보다 중후한 소노리티를 만들어낸 현악오중주의 매력도 각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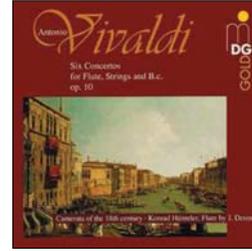
303 1513-2
바스크스: 피아노 사중주, 에피소드와 무궁동(메시앙 오마주) 트리오 파르나수스 + 아브리 레비탄(va)
 바스크스는 파트의 신비와 쇼스타코비치의 격정이 적절히 어우러진 독특한 작품세계로 주목받고 있는 라트비아의 작곡가다. 메시앙에 대한 오마주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8개의 에피소드는 템포와 다이내믹의 빈번한 변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뉘앙스가 돋보이며, 고풍스러우면서도 장대한 파사칼리아 풍의 악장이 인상적인 피아노 사중주 역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613 1510-2
존 케이지: 트럼본과 피아노를 위한 음악
미케 스보도바(pf)
슈테판 솔라이어마하(pf)
 존 케이지는 트럼본의 개성적인 소노리티와 독특한 연주법에 주목하여 이 악기를 위해 3편의 작품을 완성하였다. 현대음악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구가 중인 피아니스트 슈테판 솔라이어마하와 미국의 정상급 트럼본 솔리스트 마이크 스보도바의 뛰어난 파트너십은 존 케이지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충실히 재현해내고 있다. 현대음악 애호가들은 물론 트럼본 전공자들을 위한 필청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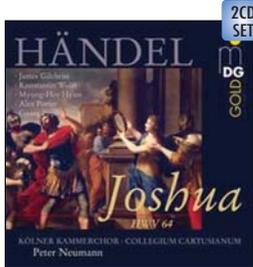
645 1407-2
넌카로우: 2대의 플레이어 피아노를 위한 작품 42-48번
보젠도르퍼 피아노 + 암피코 플레이어 피아노 메커니즘
 에코 클래식 어워드,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 클래식스투디이 만점 등을 획득하며 승승장구 중인 넌카로우의 플레이어 피아노를 위한 작품 시리즈의 4번째 음반. 본 음반에는 재즈의 부기우기 리듬을 차용한 45번의 3작품(45a, 45b, 45c)을 비롯하여 플레이어 피아노만으로 재현가능한 작곡가의 획기적인 창의력을 담은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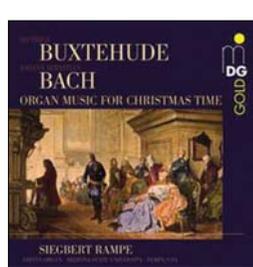
311 0640-2
비발디: 6개의 플루트협주곡 Op.10
콘라트 힌틀러(f)
18세기 카메라타
 18세기 오케스트라의 플루트수석이자 플랑드르를 대표하는 정수급 트라베르소 플루트 연주자인 콘라트 힌틀러의 비발디 플루트협주곡집. 18세기 오케스트라의 핵심멤버들로 구성된 18세기 카메라타가 반주를 맡았다. 18세기 초반 야코프 덴너가 제작한 오리지널 악기를 사용한 녹음으로, '홍방울새', '밤', '바다의 폭풍'과 같은 작곡가의 인기 협주곡들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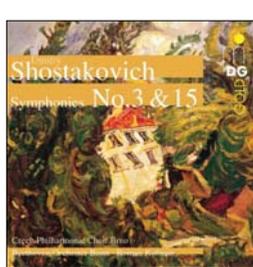
309 0452-2
뮈텔: 협주곡과 챔버 뮤직
무지카 알타 리파
 한동안 절판되었던 MDG의 초기 대표반이 재발매되었다. 요한 고틀프리트 뮈텔은 JS 바흐가 만년에 배출했던 제자들 중에서 음악가로서 가장 큰 명성을 얻었던 인물이다. 하프시코드협주곡, 2대의 바순을 위한 협주곡, 2대의 바순과 하프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그리고 다양한 편성의 아기자기한 실내악들을 담은 이 음반은 뮈텔에 대한 재평가의 불씨를 제공했던 음반이기도 하다. 독일 비평가협회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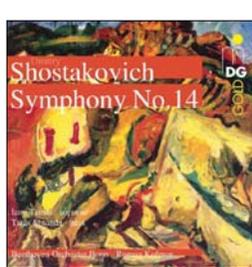
332 1532-2
헨델: 조슈아
제임스 질크리스트, 현명희 외/ 피터 노이만/ 콜레기움 카르투스시 아눔
 영어 오라토리오 '조슈아'는 헨델의 창작력이 원숙기에 달했던 1747년에 완성되었다. 구약의 여호수아 이야기를 소재로 했으며, 가나안의 정복, 갈렙과의 동역, 갈렙의 딸 악사와 옷니엘의 결혼 등이 다루어진다. 헨델 스페셜리스트 피터 노이만이 지휘를, 바로크 성악곡에서 최고의 성과를 구가 중인 제임스 질크리스트가 타이틀 롤, 독일에서 활동 중인 우리의 젊은 소프라노 현명희가 여주인공인 악사를 노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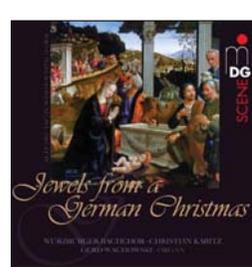
341 1511-2
북스테후데 & JS 바흐: 크리스마스
마스를 위한 오르간 작품들
지그베르트 람페(아리조나 주립 대학 프리츠 오르간)
 바로크 시대 독일 오르간 음악을 대표하는 두 거장인 북스테후데와 JS 바흐가 여러 성탄찬가들의 선율을 토대로 완성한 코랄 전주곡들을 수록하였다. 또한 최초로 녹음되는 세 작품도 만날 수 있다. JS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BWV540/1a의 오리지널 버전과 오르간 소품 BWV572a, 그리고 JS 바흐의 위대한 토카타와 푸가 BWV565와 흡사한 특징을 보여주는 북스테후데의 토카타 BuxWV155가 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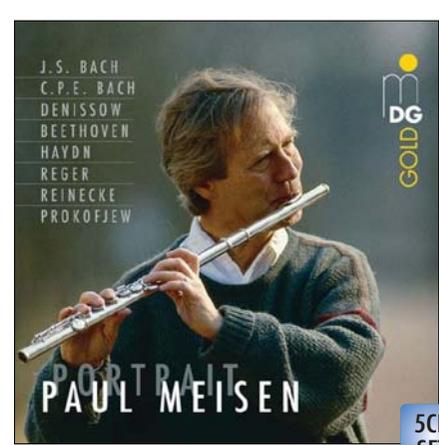
337 1210-2
 937 1210-6 (Hybrid-SACD)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3번, 15번
체코 필하모닉 합창단
로만 코프만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 출신의 거장 로만 코프만이 진행중인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시리즈의 10번째 음반. 선동적인 합창을 수반한 단악장 작품인 교향곡 3번은 '노동절'은 타이틀 그대로 소비에트 리얼리즘의 전형을 따른 작품. 작곡가의 마지막 교향곡인 15번은 로시나 바그너의 유명한 선율들을 위트있게 패러디한 작품으로 죽 음마저도 초월해버린 듯한 노작곡가의 달관의 경지를 엿보게 된다.



337 1211-2
 937 1211-6 (Hybrid-SACD)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4번
타마르(sop), 슈툰다(bass)
로만 코프만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 출신의 거장 로만 코프만이 MDG를 통해 진행했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시리즈의 완결작. 흔히 '죽은자의 노래'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교향곡 14번은 아폴리네르, 릴케 등의 죽음과 관련된 시들에 곡을 붙인 것으로 쇼스타코비치가 존경했던 영국 작곡가 브리튼에게 헌정되었다. 11개의 악장 모두가 마치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예견이라도 하듯 짙은 고독감과 허무로 채워져 있다.



605 1516-2
독일 크리스마스의 보석들
(옛 독일의 크리스마스 음악들)
게르트 바흐프스키(org)
크리스티안 카비츠
뵐르츠부르크 바흐 합창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위한 MDG의 선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비롯한 귀에 익은 캐롤 선율들을 오르간 연주와 합창으로 담았다. 로맨틱 가도에 자리잡은 유서깊은 고딕건물인 성 야코프 교회가 자랑하는 리가 오르간의 장엄하고도 화려한 사운드와 뵐르츠부르크 바흐합창단의 아름다운 앙상블, 그리고 30전쟁 즈음 만들어진 고색창연한 종소리가 크리스마스의 경건함을 한층 더해줄 것이다.



302 1467-2
파울 마이젠 포트레이트
파울 마이젠(f) / 에르노 제베스티엔(vn) / 가브리엘 로젠베르크(pf) 외
JS 바흐: 플루트소나타 BWV1030, 무반주 플루트소나타 BWV1013, CPE 바흐: 무반주 플루트소나타 Wq132, 하이든: 6개의 디베르티멘토, 베토벤: 세레나데 Op.8, 세레나데 Op.25, 라이베크: 운디네 소나타, 레거: 플루트소나타 Op.84, 데니소프: 플루트소나타
 독일 출신의 걸출한 플루티스트 파울 마이젠의 75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출시된 포트레이트 박스세트. 파울 마이젠은 1960년 ARD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함부르크 필하모닉의 수석을 역임했으며, 필름 음악, 데트몰트 음악대, 뮌헨 음악대, 동경대에서 수많은 후진을 양성했던 거장이다. 그가 녹음한 줄리아니의 기타와 플루트를 위한 음악은 지금까지도 MDG를 대표하는 명반으로 인기가 높다. 노대가의 심원한 예술세계를 이 박스세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DYNAMIC

www.dynamic.it



CDS 210

보테시니: 더블베이스협주곡, 그랑 듀오 콘체르탄테, 차이코프스키: 로코코변주곡
오비디우 바딜라(더블베이스)/ 마르코 추카리니(지휘)/ 밀라노 이 포에리기 무지칼리 오케스트라
 조반니 보테시니는 더블베이스의 파가니니로 불리던 인물로, 오케스트라의 뒷자리에만 머물러있던 이 악기를 화려한 솔로 악기로 재탄생시켰던 뛰어난 비르투오조였으며, 더블베이스 연주기법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더블베이스를 위한 그의 협주곡들은 든중한 저음악기라는 더블베이스에 대한 선입견을 단숨에 날려줄 정도로 화려한 기교로 수놓아져있다. 루마니아 출신의 오비디우 바딜라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더블베이스 솔리스트로 이 음반에서 자신의 뛰어난 연주역량을 맘껏 펼쳐나간다. 차이코프스키의 유명한 로코코 변주곡을 더블베이스의 묵직한 저음으로 감상하는 재미도 놓칠 수 없다.



CDS 215/1-2

갈루피: 하프시코드협주곡 전곡
리타 페이레티(cemb, cond) 아카데미아 데이 솔링기
 발다사레 갈루피(1706-85)는 바로크/조기 고전 전환기에 활동했던 베니스 출신의 작곡가다. 오페라와 종교음악 분야에 다수의 작품을 남겼으며, 건반을 위한 소나타들 역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존하는 그의 하프시코드협주곡은 모두 8편으로, 작곡가 특유의 아기자기한 선율과 해맑은 악상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리타 페이레티의 또렷또렷한 하프시코드와 아카데미아 데이 솔링기의 아름답고 단정한 반주는 이 작품들의 산뜻한 매력을 한층 배가시킨다. 전곡 최초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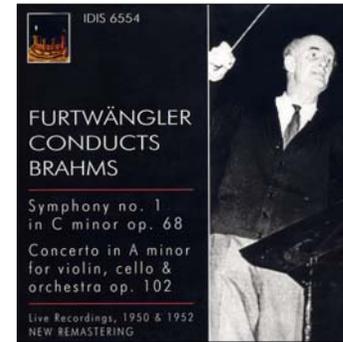
CDS 594

플루트 실내악곡
보케리니와 모차르트를 섞어놓은 듯한 매력
 1757년 파비아 태생의 이탈리아 음악가 알레산드로 롤라의 플루트가 포함된 실내악곡을 소개하고 있는 음반이다. 쓴 롤라는 보케리니 풍의 이탈리아 기악전통과 빈교전주의 풍의 음악의 영향으로 작품 활동을 해 온 작곡가다. 따라서 거의 보케리니 음악을 듣는 것 같으며 베토벤 같기도 하고 모차르트처럼 들리기도 한다. 플루트와 두 대의 비올라, 첼로, 피아노를 위한 디베르티멘토, 플루트, 바이올린, 두 대의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디베르티멘토와 플루트가 포함된 사중주 두 곡이 담겼다. 500곡 이상이나 썼던 대작곡가의 기교적 출중함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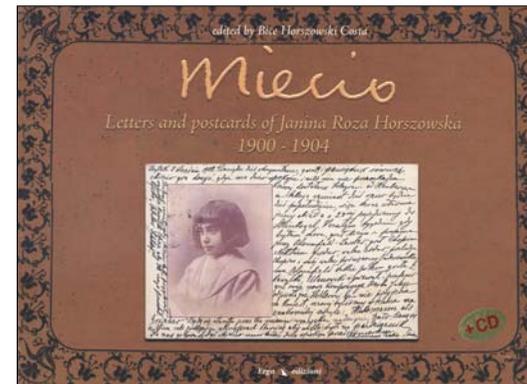
CDS 595

아마릴리 니차: 푸치니 아리아집
현역 최고의 푸치니 가수
 밀라노에서 태어난 이탈리아의 젊은 소프라노 가수 아마릴리 니차의 푸치니 오페라 아리아집이다. 최근에 출시된 푸치니 3부작 DVD(TDK)에 출연해서 푸치니 가수로 얼굴을 알렸지만, 데뷔도 <나비부인>으로 했다. 이탈리아 현역 가수 중 출중한 푸치니 가수로 인정받고 있는 그녀의 음성은 미성미성이라기보다 드라마틱하다. <요정 빌리>를 시작으로, <에드가>중에 나오는 '안녕 내 사랑', <마농레스코> 중에 '이 부드러운 레이스 속에', <토스카> 중에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나비부인>중에서 '어떤 맑은 날', <자니 스기키>중에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등 주옥같은 푸치니의 아리아를 들을 수 있다. 75분이 넘는 시간이지만 너무도 짧게 느껴진다.



IDIS 6554

푸르트벵글러가 지휘하는 브람스
연주: 콘서트헤보 오케스트라, 빈필
빌리 보스코프스키 & 에마누엘 브라베크
1950년 암스테르담의 기록, 아련한 환상의 브람스
 위대한 브람스 해석가였던 푸르트 벵글러는 브람스의 교향곡 1번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지휘자였다. 1947년에 두 가지 녹음, 1950년대 들어와서는 7개의 녹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음원은 1950년대에 들어와 처음 만나는 1950년 7월 13일 암스테르담에서의 공연기록이다. 네덜란드 악단이지만 풍성한 현악 사운드에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공관악기로 육중한 푸르트벵글러 음향을 들려준다. 2악장의 꿈결 같이 아련한 환상은 다른 녹음에서와 같다. 함께 들어있는 이중협주곡은 귀한 선물이다. 빈 필의 수석 첼리스트였으며 보스코프스키 사중주단의 멤버였던 에마누엘 브라베크가 보스코프스키와 함께 연주한 것인데, 1952년 1월 빈에서의 실황이다.



미에치오(Miecio)
야나나 로자 호르쇼프스카의 편지와 우편엽서 1900-1904
대 피아니스트 호르쇼프스키의 어머니가 쓴 시간, 그리고 최초 공개되는 희귀음원

'미에치오(Miecio)'는 미에치슬라프 호르쇼프스키를 얘기한다. 폴란드 태생의 대 피아니스트 호르쇼프스키는 99세에 마지막 리사이틀을 열어 지칠 줄 모르는 음악에의 열정과 노익장을 과시하여 감동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이 책자는 그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쓴 한 시기의 편지들을 통해 호르쇼프스키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자료다. 책자의 몸통은 1900년과 1904년 사이에 호르쇼프스키의 어머니(Janina Roza)가 빈에서 폴란드의 르보프(Lwow)에 나머지 가족과 남아있던 남편에게 보냈던 편지와 우편엽서들인데, 때와 장소는 합스부르크 체제하의 빈이었다. 어머니의 글이 씌어진 당시 호르쇼프스키의 나이를 따져보면 30세에서 34세가 된다. 호르쇼프스키의 어머니는 빈에서 편지지와 엽서를 구해 오매불망 고국에 있는 남편에게 거의 매일 편지를 썼다. 성 슈테판 성당 등 빈의 각종 건 축물과 갖가지 풍경 등을 담은 130개나 되는 그림 우편엽서에는 여백이 거의 없이 온 정성으로 빼곡히 적은 사연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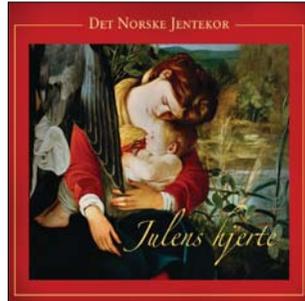
호르쇼프스키의 어머니는 쇼팽의 제자 중 한사람한테 배웠던 피아니스트였다.
 당연히 어린 호르쇼프스키의 첫 피아노 선생은 그의 어머니였다. 그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그는 제 뜻을 펼 수 없었을 수도 있다. 그만큼 호르쇼프스키에게 어머니는 삶과 음악경력의 구심점이었다. 호르쇼프스키는 신동이었다. 5세에 바흐 인벤션을 연주했고, 8세에 신동 피아니스트로 음악계를 떠들썩하게 하며 대중 앞에 섰으며, 불과 10세에 공식적인 경력을 시작했다. 파데레프스키와 슈나벨의 스승으로 유명한 레세티츠키가 또한 그의 스승이었다.

책자는 자료적 가치가 높다.
 편지내용이 가치런히 인쇄되어 있고, 호르쇼프스키에 대한 간단한 전기적 글도 있고, 2008년 업데이트 된 거장의 디스코그래피에다 참고문헌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고 있다. 책자 뒤에 동봉된 음반에는 편지와 엽서에 언급된 레퍼토리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거장의 희귀음원들이다. 음향은 지극거리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개성 넘치는 음악은 정묘하게 와 닿아 감동을 준다.



KKV(Kirkelig Kulturverksted)

www.kkv.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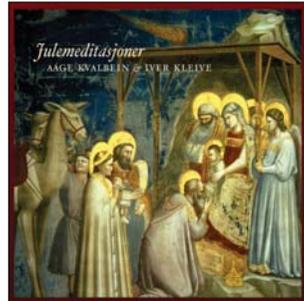


FXCD 327

**노르웨이 소녀 합창단
(Det Norske Jentekor)
JULENS HJERTE**

노르웨이 크리스마스 캐럴의 진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노르웨이 소녀합창단>은 합창예술의 절제미와 능란한 합성(合聲)의 경지를 보여주는 수준높은 세계적 합창단이다. 여기에 가수 Kari Brem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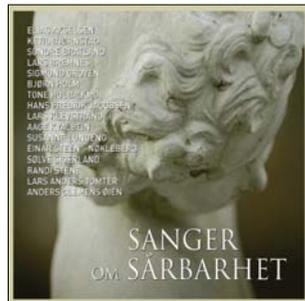
와 현악 4 중주단 Cikada가 함께하고, 웅장한 북유럽의 교회 공간이 성음의 극점에 달아있는 진공상태로 청중들을 인도한다. 2007년 겨울에 발매되어 뜨거운 사랑을 받은 이 음반은, 1947년 합창단이 설립된 이래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국제적인 상을 휩쓸고 있는 전성기의 역량이 옹박지게 담겨있는 수작이다. 노르웨이어로 듣는 STILLE NATT(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없이 고요하고 한결 적적하다. 마치 베들레헴의 마구간 풍경처럼 쓸쓸하다기도 금세 기도손을 모으게 되는 거룩함이 곁들여 담겨있다. 별이 낮게 뜬 첫번 성탄의 다정한 풍경처럼 느껴질 MITT HJERTE ALLTID VANKER는 북유럽 성가 합창단의 심오심중한 실력은 물론이고 견고한 내적 신심을 느끼는데 부족함이 없는 곡이다. 이 캐럴 음반 한장이면 눈발판에 흩날리는 소나무라 할지라도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국제적인 상을 휩쓸고 있는 전성기의 기량이 옹박지게 담겨있는 수작이다.



FXCD 328

**아게르 발바인 &
이베르 클라이베
(Aage Kvalbein &
Iver Kleive)
JULEMEDITASJONER**

피아노와 첼로가 빛어내는 크리스마스 캐럴은 어떤 표정일까. 아름다움, 평화로움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 일은 IVER KLEIVE라는 노르웨이 국보급 건반 연주자와 AAGE KVALBEIN라는 독집 음반만 40장이 넘는 첼리스트가 함께하고 있음이다. KKV 레이블의 리스트 말고도 그이들은, 북유럽 고음악의 품격있는 해석에 집중하는 예술적 깊이로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AAGE KVALBEIN은 오슬로 태생의 첼리스트로 노르웨이 아카데미 교수로 재직중이다. 33살 약관에 보수적인 성향의 음악 대학에서 교수로 발탁되어 솔한 화제를 뿌렸고, 최고 인기를 누리던 여배우에게 부지런한 애정공세를 퍼 결혼하는가 하면 꾸준한 연주와 음반 녹음으로 왕성한 연주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정열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사랑의 가슴으로 충만한 그의 첼로는 크리스마스의 눈내리는 설경 가운데 따사로운 별빛과 함께 다가온다. 피아노와 첼로의 우정만큼, 이 두사람의 우정도 깊어서 KKV 레이블에 두장의 음반을 헌사하고 있는데 지난해 출시된 이 성탄 캐럴집은 절친한 친구끼리 빛어낸 우정의 첫 열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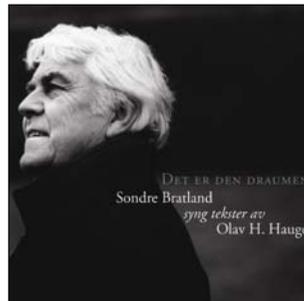


FXCD 332

**상처를 위한 노래
(Sanger om Sarbarhet)**

이 새로운 CD는 150년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정신 장애인 재활 치료 기관인 Modum Bad를 기념하며 12명의 아티스트들이 부른 노래들을 담고 있다. KKV가 이 Modum Bad에서의 콘서트를 녹음함으로써 이

CD가 탄생했다. Katil Bjornstad, Randi Stene, Aage Kvalbein, Sondre Bratland, Tone Hulbaekmo, Elias Akselsen, Lars Bremnes 등이 그 주인공. Modum Bad는 정신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장소이자 40년 동안 일반인들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해 온 문화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그랜드 홀(Festsalen)과 오라브 교회(Olav's Church)가 콘서트 무대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고의 뮤지션들과 함께 1년에 약 15번의 콘서트를 선보이고 있다. 예술, 문화, 미학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신에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 하에 콘서트는 Modum Bad의 전인적 철학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 콘서트들은 오픈 콘서트로서 정신적 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사회의 벽을 허무는데 일조하고 있다. 2007년은 큰 경사가 겹쳤다. 구 St. Olavs Bath가 설립된 이후로 150주년 이 된 해였고, 이 치료 센터가 환자에게 오픈된 지 50년이 된 해였다. Modum Bad에서 이제까지 노래해 온 수백명의 뮤지션들의 곡들을 담은 CD를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바로 그랜드 홀에서 진행된 이 라이브 콘서트가 KKV에 의해 탄생하였다.



FXCD 333

**손드레 브라들란트
(Sondre Bratland)
Det er den draumen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다)**

Sondre Bratland가 Olav H. Hauge의 시를 노래한다. 70세를 맞이한 Sondre Bratland는 노르웨이 시인인 Olav H. Hauge의 시를 노래한, 심금을 울릴 만큼 뛰어난 신보로 돌아왔다. 발라드, 포크, 컨츄리, 웨스턴 음악을 넘나드는 그의 14곡을 위해 Knut Reiersrud (기타), Helge Norbakken (드럼), Matthias Eick (더블 베이스, 트럼펫, 비브라폰), Annbjorg Lien (바이올린, 스웨덴 니켈하프)이 연주에 동참했다. Erik Hillestad가 연출한 이 음반은 오슬로에 위치한 캄페리 교회 예배당에서 녹음되었고, 올해 초 Martin Amrahamsen에 의해 스튜디오 노드락에서 제작되었다. 이 음반은 그의 지난 솔로 앨범 <Syng meg heim (Sing me home ? 집을 노래해줘)>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다. 음반의 모든 노랫말은 올해 100주년을 맞은 Olav H. Hauge의 글에서 왔다. 서부 노르웨이 피요르드 출신인 Olav H. Hauge는 삶과 사랑, 꿈, 현실 등에 관한 소박하고 실존주의적인 시를 써왔으며, 노르웨이의 수많은 안목 높은 대중들을 사로잡았다. Sondre Bratland는 수년간 Olav H. Hauge의 시를 노래화하기 위해 곡을 써왔다. 또한 그는 "Det er den draumen(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다)"라는 타이틀 곡을 다른 음반에 다른 버전으로 녹음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앨범의 거의 모든 곡은 Sondre Bratland가 오랜 기간 동안 심사숙고하여 만들어 낸 신곡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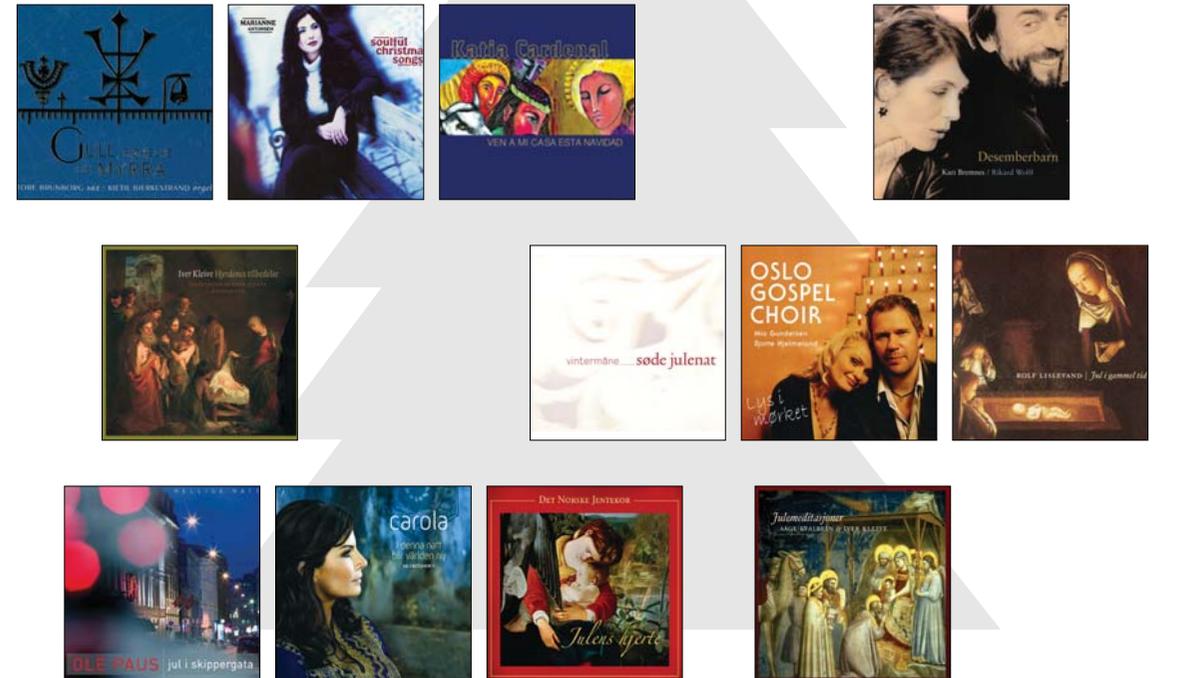


FXCD 338

**스크룩 & 카티아 카르데날(Skruk & Katia Cardenal)
Messe For Kari og Ola/ Misa Campesina**

농민 미사, 농부들의 찬송을 담아낸 노르웨이의 대표적 합창단 SKRUK과 중년에 접어든 니카라과 출신의 가수 Katia Cardenal가 함께한 반가운 신보. 니카라과 남미 음악의 순정과 격정을 가감 없이 들려주는 Katia Cardenal은 이 음반에서도 온화한 누에바 칸시온과 북극의 장엄한 교회음악 합창단이 만나 형성해내는 제3지대의 음악풍을 선사해준다. 남편을 따라 노르웨이로 이민을 오기 전, 그녀가 니카라과 시골 성당에서 듣고 따라 불렀던 미사곡들은 끝없이 밀려들었을 고국에 대한 향수와 애수의 뿌리였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농민 미사곡을 불러 뒤돌아섰던 풍경들과 재회하고, 한편 화해를 이뤄낸다.전에 누에바 트로바의 기수로 알려진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명곡들을 불러 음반 <간타 아 실비오 로드리게스>를 발표하기도 했던 그녀는, 여기 <농민 미사>에 이르러서는 민초들의 낮고 끈끈한 근기의 생을 영성에 이르는 대지의 숨과 신성에 이르는 창공의 기(氣)를 불어넣어 미려한 음성으로 알차게 담아냈다. 낮은 스피커로 들으면 더 질감이 느껴지는 합창은 <안데스 미사곡>으로 탄실히 다져진 스쿠룩 합창단의 익숙하고도 친근한 레파토리안지라 신뢰를 가지고 청음할 수 있을 것이다.

KKV 크리스마스 앨범



KBS 1FM과 아울로스미디어가 공동 기획하는
월드뮤직 컴필레이션의 대명사



세상의 모든 음악 5

즐거움 편지

어느날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음악은 쓰러지려는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으며,
삶에 온기가 부족한 날 당신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줄
추억의 난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표를 붙이고 가지 않아도 순식간에 도착하는 편지이며,
언제든 다시 열어볼 수 있는 즐거운 편지라는 것을...

찬바람 부는 세상을 건너가는 당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음악편지

눈이 내려 쌓이는 산자락을 걷다가 허름한 여인숙으로 돌아왔을 때
구석에 놓인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지직거리는 라디오의 다이얼을 정성껏 맞추어
마침내 음악을 찾아내었습니다.
안데스 고원을 지나고, 노르웨이의 숲도 지나고,
아일랜드의 호수에 잠시 머무르다
시베리아의 눈 덮인 별판을 달려
자작나무를 흔들고 온 바람 같은 음악을...
호화로운 오디오로 듣는 음악보다 더 그룩한 음악이
넓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그 넓은 여인숙은 벽난로가 타닥타닥 타오르는 산장이 되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은
마법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애 즐거운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던가요.
편지는 언제나 한 발 늦게 도착하고,
마음의 유효기간은 그보다 먼저 지나쳐 있지는 않았던가요.
그러나 음악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 음악을 기억하는 한...
당신의 추억 어느 구석에 음악이 남아 있는 한...

당신, 언젠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계단이어서 하나씩 밟고 올라서게 한다고,
음악은 벽이어서 의지할 곳 없는 마음을 기대어 얹게 한다고,
음악은 다리를 뻗고 쉬게 하는 구석이라고,
음악은 나에게서 당신에게로 건너가는 문이며 다리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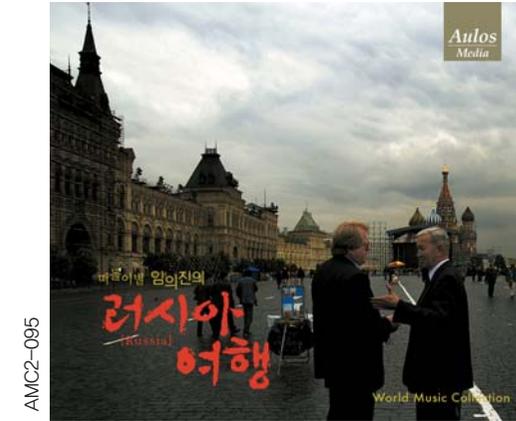
그리고 음악은
고원 위에 지은 고독한 집이며 초원 위에 지은 너그러운 집이라고.

나도 당신에게 속삭이고 싶습니다. 음악은 즐거운 편지라고...
황동규 시인은 '즐거움 편지'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뜨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이라고 말이지요,
'해가 뜨고 바람이 부는 일이 어찌 사소한 일일까요,
하지만 그 엄청난 일을 사소하게 느낄 만큼 사랑의 힘은 큼니다.
음악도 그렇습니다.
음악은 '그대의 생활 속에서 아침이 시작되고
밤이 오는 일처럼 당연하고도 사소한 배경입니다.
하지만 어느날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음악은 쓰러지려는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으며,
삶에 온기가 부족한 날 당신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줄
추억의 난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표를 붙이고 가지 않아도 순식간에 도착하는 편지이며,
언제든 다시 열어볼 수 있는 즐거운 편지라고...

P.S. '세상의 모든 음악'이 다섯 번째 집을 지었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음악이, 이 너그러운 집이
당신을 포용하려 두뚝뚝뚝 걸어갑니다.
이제 당신이 팔을 벌려 음악을 안아줄 차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제작팀

외롭게 떠도는 방랑자 임의진의 신보 러시아 여행.
월드뮤직의 이정표 <여행자의 노래>의 또다른 걸가지 떠돌이별 시리즈.
<보헤미안>, <기차 여행>, <쿠바 여행>에 이어 네 번째 여행지



떠돌이별 임의진의 러시아 여행

[Russia]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내려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갈아타
모스크바를 향하는 길엔 이 노래와 함께하시길!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러시아인 인디 포크 총망라. 닥터지바고 '라라의 테마'의
달콤한 해석은 덤. 올 겨울 난로불과 같은 노래들 속엔
고려인들의 사랑노래 '동철씨' 포함.
<레닌이 있는 풍경>의 다큐 사진작가 이상엽의 사진.

혈혈단신 러시아를 떠도는 여행자 임의진의 독특한 음악여행에 젖어드는 겨울 초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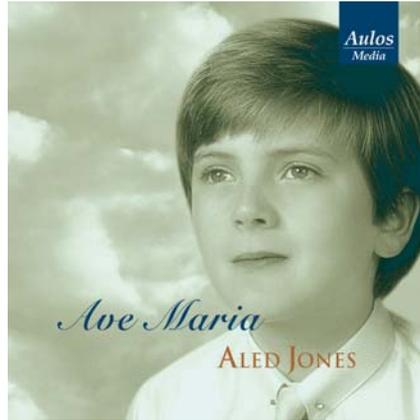
텔레비전에선 전혀 볼 수 없는 외롭고도 서늘한 눈동자의 여행자 임의
진, 샛된 이바구의 세계를 등지고 방랑승처럼 혈혈단신 오지 동네의 골
목들을 훑고 다니는 임의진의 여행엔 오직 음악만이 동행으로 허락된다.
무려 5집까지 발매된 <여행자의 노래>는 월드포크 컴필레이션의 새 장
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선곡음반이다. 가끔
결가지로 퍼내는 <시인의 노래 시리즈>와 함께 여기 그만의 국가별 애청
곡을 모은 <떠돌이별 시리즈>는 깊고도 뜨거운 마니아층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이번 <러시아 여행>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를 타고, 다음은
모스크바까지 기차를 탄다. 가는 길 노정에 충분히 날리는 흰눈의
Sonnet와 흥겹지만 한편 애절한 Tabor, 러시아 소수인종인 아르메니아
사람이며 평화교육운동가이자 가수인 Sonya가 부르는 사랑노래, 러시
안 인디포크밴드 스파세니에가 온온히 불러재끼는 You Buy Flowers
for yourself, 포크의 거성 블라드 오푸자바의 Semilla de vid를 자기답
게 부른 Elena Orlova는 가수 스페를라나를 연상케 한다. 기타리스트
겸 가수인 Andrei Krylov의 연주곡 Romantic Russian Girl은 알사탕
한알처럼 감미롭다가 담배 한 대처럼 허허롭다. 아이들의 친구 Olya
Fry는 The Pear Tree를 노래하고 Lara's Theme(영화 닥터 지바고)
를 음유시인이자 집시 연주자들의 규합 Russian Fantasy가 탁월하게
재해석. 탁! 탁! 노래하는 Top Floors are sensing darkness fall는 들
는 이들도 입을 저도모르게 오물거리도록 만든다. 우크라이나의 아름다
운 아가씨 Andriana가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럴 Carol of the Bells, 아
이들이 눈물을 머금으며 노래하는 Mother Russia는 수천년 역사를 관

통하는 애환과 전진의 나날을 담아낸 절창이다. 끝으로 <러시아 여행>
발매를 축하하며, 최근 2집 <비오는 날 해바라기>로 활동을 재개한 포크
싱어 인디언 수니가 러시아에 사는 고려인들의 사랑 노래 '동철씨'를 소
소하고 은은하게 부른다. 임의진의 다음 떠돌이별 시리즈는 <아일랜드
여행>! 걷다가 기차를 타고 이어서 이번엔 배, 그리고 다음은 비행기를
타고 떠난다. 기다리는 마음이 무척이나 길 듯 싶다.



© 이상엽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천상의 보이소프라노
알레드 존스 Aled Jones "Ave Maria"



AMC2-097

한때 맑고 순결한 보이소프라노 음성의 대명사였다. 본 음반 아베 마리아(Ave Maria)는 1985년에 처음 싱글로 나와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앨범이다. 바흐-구노의 아베마리아를 위시하여 헨델의 '움브라 마이 푸(라르고)', 카치니의 '아마릴리 내 사랑', 바흐의 '양들은 편안히 풀을 뜯고',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슈베르트의 '실비아에게', 모차르트의 '아누스 데이' 등 그야말로 보석 같은 클래식 레퍼토리들을 축으로 하여 '천상의 보이소프라노'라는 탄성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한국 한국에 감동이 있는 음반이다.

알레드 존스(Aled Jones). 그 이름은 한때 맑고 순결한 보이소프라노 음성의 대명사였다. 아직도 많은 애호가들은 그 이름을 귀엽고 앳된 소년의 모습으로만 기억하는 것 같은데, 세월은 쏘살갈다! 1970년 12월생인 그는 2008년 현재 37세, 어느덧 중년에 들어선 나이가 되었다. 존스는 웨일스의 뱅거(Bangor)에서 태어났다. 아홉 살이 되던 해에 뱅거 교회의 합창단원으로 들어갔고, 유난히 맑고 투명한 음성을 가진 소년은 그곳에서 약 2년간 리드 솔리스트로 활동했다. 그의 특별한 음성을 잘 알아본 사람은 교회의 한 신도(Helfina Orwig Evans)였는데, 그는 웨일스의 레코드 회사인 사인(Sain)에 직접 편지를 써서 탁월한 보이소프라노 알레드의 노래를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알레드의 이름이 점차 영국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던 때였다. 레이먼드 브릭스(Raymond Briggs)가 쓴 책에 기초한, 채널 4의 영화 '눈사람(The Snowman)'의 삽입곡 'Walking in the Air'를 알레드가 부르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노래는 영국 차트에서 5위에 랭크되었다. 하지만 그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영화에서, 그리고 1982년에 다시 나온 영화에서도 그 레퍼토리를 부른 사람은, 세인트 폴 교회의 합창 단원이던 피터 오티(Peter Auty)였다. 하지만 그는 약간의 시간이 흐르자 오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알레드는 교황과 여왕을 위해 노래 불렀고, 그가 낸 음반은 6백만 장 이상이나 팔려나갔다. TV의 어린이 프로그램에도 수차례 등장했기 때문에 출연의 여파가 음반 판매고를 수직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자연스런 일이고 좌절할 일이 아니지만, 16세가 되었을 때 알레드 존스의 그 맑고 순수한 소년 음성도 변화를 겪었다. 알레드는 노래는 잘 할 수 있어도 더 이상 보이소프라노의 음색이나 순수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고역에 익숙한 본인은 당연히 테너 음역을 좋아하고, 그 음역에

서 노래하고 싶다고 얘기해왔지만, 그의 음성은 이미 바리톤 영역에 꼭 어울리는 톤이 되었다. 목소리의 변화와 함께 자신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 알레드는 왕립 음악원 등에 가서 공부하는 일에 몰두했고,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팀 라이스 팀이 쓴 뮤지컬 쇼(Joseph and the Amazing Technicolor Dreamcoat)에서 주연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블랙풀(Blackpool)에 여행하면서 그의 부인이 될 클레어 포셋(Clarie Fossett)도 만났고, 2001년에 결혼해 슬하에 두 아이를 둔 아빠가 되었다. 알레드 존스는 주로 종교 레퍼토리를 가지고 녹음 경력을 재개해왔다.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악단과 함께 거장의 합창음악 치체스터 시편(Chichester Psalms)을 노래했고, 1986년에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아탈리아>에서 에머 커크비와 공연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16개의 앨범을 냈는데, 그 중의 많은 음반들이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다. 알레드 존스의 성공과 오스트레일리아를 떼어놓고 볼 수 없다.

2003년에 알레드 존스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두 번 갔다 왔는데, 한번은 그의 첫 바리톤 앨범인 알레드(Aled)를 출시하고 그 음반을 홍보하기 위해서였고, 다른 한번은 그해 12월 그의 첫 콘서트 여행 때문이었다. 그는 Classic FM의 진행자로 일했고 정기적으로 기독교 찬가를 주로 내보내는 BBC프로그램인 'Songs of Praise'를 진행하기도 했다. 물론 BBC Radio Wales 등 웨일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여러 프로그램도 맡았다. 2004년 가을에는 무도회장에서 러시아 프로댄서인 릴리아 코필로바(Lilia Kopylova)와 함께 라틴 댄스를 추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2006년부터는 Classic FM의 진행자를 그만두고 BBC로 옮겨 코미디언 돈 매클린(Don Maclean)이 맡고 있던 프로그램인 Good Morning Sunday를 진행, 일요일 아침 영국 청취자들과 함께 호응하고, 저녁에는 BBC Radio 3의 'The Choir'를 진행했다. 2005년 10월

에 알레드 존스는 'Aled'에 이어 'New Horizons'라는 제목의 앨범도 내놓았다. 그해 크리스마스에 BBC쇼 프로그램인 Celebrate Oliver!에 출연했었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웨일스어 텔레비전 채널인 S4C에서 진행자로 일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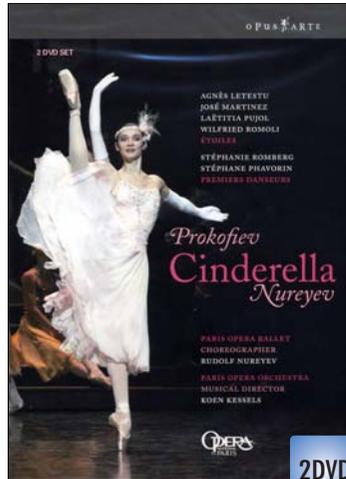
2006년 8월에 알레드는 다시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새 앨범 'New Horizons' 홍보에 나섰다. 5개의 주요도시를 돌며 8번의 콘서트를 열었다. 현재까지 그에게 영국 이외의 콘서트 여행을 한 곳으로 오스트레일리아는 유일한 나라였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그의 열광적인 팬들이 많다. 2006년 11월에 출시한 음반(You Raise Me Up-The Best of Aled Jones)은 'Walking in the Air' 등 매력적인 넘버들만 엄선해 담은 컴필레이션 앨범이었는데, 그야말로 빅 히트를 했다.

본 음반 아베 마리아(Ave Maria)는 1985년에 처음 싱글로 나와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앨범이다. 1994년 Sain 레이블에서 CD로 발매했고, 이제 아울로스 미디어가 그 음반을 라이선스로 다시 출시하게 되었다. 바흐-구노의 아베마리아를 위시하여 헨델의 '움브라 마이 푸(라르고)', 카치니의 '아마릴리 내 사랑', 바흐의 '양들은 편안히 풀을 뜯고',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슈베르트의 '실비아에게', 모차르트의 '아누스 데이' 등 그야말로 보석 같은 클래식 레퍼토리들을 축으로 했고, 군데군데 웨일스의 아름다운 성가와 전통선율이 흐르게 했다. '천상의 보이소프라노'라는 탄성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한국 한국에 깊은 감동이 있는 음반이다. 소년의 음성을 반주하는 악기는 오르간, 피아노, 하프다.

[앨범수록곡]

- ① Ave Maria 바흐/구노 : 아베마리아
- ② Tosturi duw G.윌리엄스 : 신의 은총
- ③ Ombra Mai fu 헨델 : 라르고
- ④ Breuddwyd Glyndwr G.윌리엄스 : 글린더의 꿈
- ⑤ Amarilli, Mia Bella 카치니 : 아마릴리, 내 사랑
- ⑥ Defaid a Gant borí'n dawel 바흐 : 양들은 편안히 풀을 뜯고
- ⑦ O Könnst ich fliegen wie tauben dahin 멘델스존 : 아, 비둘기처럼 날 수 있다면
- ⑧ Hwn yw y sanctiaidd ddydd 마르티니 : 사랑의 기쁨
- ⑨ Nunc dimittis J.버건 : 이제 주님께서
- ⑩ To Sylvia 슈베르트 : 실비아에게
- ⑪ Agnus dei 모차르트 : 아누스 데이
- ⑫ Bugeilio'r gwenith gwyn 웨일스 전통민요 : 하얀 밀을 보고 있으니
- ⑬ Bethlehem 휴즈 : 베들레헴
- ⑭ Ar adain yr alaw on 멘델스존 : 노래의 날개 위에
- ⑮ Nant y mynydd 본 토머스 : 산속의 시냇물
- ⑯ Yr ehedydd G.윌리엄스 : 종달새
- ⑰ Lausanne C.말란 : 로잔
- ⑱ O Holy Night 아담 : 오 거룩한 밤

- + Organ : Huw Tregelles Williams
- + Piano : Annette Bryn Parri
- + Telyn : Elinor Bennett



OpusArte DVD OA 0997D

2DVD

프로코피에프: 누레예프의 <신데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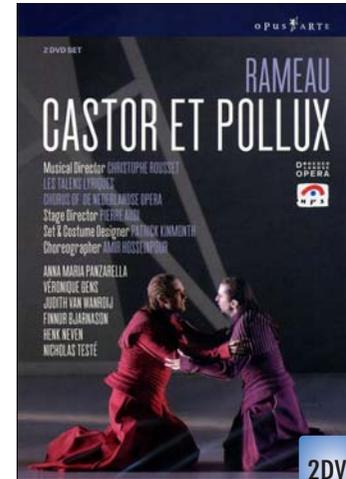
루돌프 누레예프의 신데렐라, 할리우드로 가다

20세기 최고의 무용수 루돌프 누레예프는 1961년 서구로 망명한 이래 러시아 발레예술을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하여 소개하는데 평생을 바쳤다. 무용수뿐 아니라 뛰어난 안무가였던 셈이다. 그의 안무는 마리우스 프티파의 고전 발레를 틀에 입각하여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과 완전히 새로운 안무를 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신데렐라>는 후자에 속한다. 파리 오페라 발레의 예술감독이던 1986년 실비 길렘을 염두에 두고 만든 <신데렐라>는 원작의 내용을 꽤 바꾸었다. 영화, 특히 찰리 채플린을 좋아했다는 누레예프는 이 발레의 배경을 1930년대의 할리우드로 설정했다. 신데렐라의 누이들은 무도회가 아니라 오디션에 가는 것이고, 신데렐라는 요정대모가 아닌 하워드 휴즈를 모델로 했을 듯한 영화 프로듀서의 도움으로 오디션에 참석한다. 물론 상대역은 할리우드의 스타 배우이고 <킹콩>의 촬영장면도 등장한다. 누레예프의 <신데렐라>는 1987년 스튜디오 촬영자료가 비디오로 나왔지만 아직 DVD로 발매되지 않았다. 따라서 2008년 4월 파리 오페라 발레의 본 실황은 아주 귀중한 자료다. 동 발레단의 가장 우아한 스타 아녜스 레테스튀가 타이틀 롤을 맡았다.

[보충 자료]

○ 20세기 최고의 발레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신데렐라>가 완성된 것은 1944년인데 이때부터 많은 안무가 탄생했다. 1945년 자하로프에 의한 불쇼이 버전, 1946년 세르게예프에 의한 키로프 버전은 물론이고 1948년에는 프레데릭 애쉬튼이 영국 발레 역사상 최초의 장편발레로 <신데렐라>를 선택했다. 마기 마랭이 리옹 발레를 위해 만든 1985년 안무는 모든 출연자가 인형의 탈을 쓴 실험적인 작품으로 이후의 <신데렐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누레예프의 <신데렐라>는 줄거리 구성과 춤의 다양성에 있어서 가장 볼거리가 많은 걸작이다. 이밖에도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 매튜 본 등 비교적 젊은 안무가도 <신데렐라>로 성공을 거두었다.

○ 타타르 혈통의 루돌프 누레예프(1938~1993)는 우랄 산맥 기슭의 시골에서 성장했으며 민속무용으로 두각을 나타낸 후 레닌그라드의 바가노바 발레학교에 입학했다. 출발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망한 학생이었고 1958년 키로프 발레단에 입단한다. 그러나 1961년 6월, 서유럽 공연 중 파리에서 망명했다. 이후 19세나 연상인 로열 발레의 마고트 폰테인과 전설적인 파트너십을 이루었으며, 여러 발레단에서 러시아 고전을 재안무하는 작업에도 열중했다. 1983년부터 6년간 파리 오페라 발레의 예술감독으로 일했는데, 침체되어있던 동 발레단을 세계최고수준으로 격상시킨 것은 물론 최고의 프로덕션을 남겨 놓았다. <신데렐라>도 그중 하나다. 1993년 1월 에이즈로 사망했다.



OpusArte DVD OA 0999D

2DVD

라모: 카스토르와 폴릭스

쌍둥이 별자리의 유래를 다룬 프랑스 바로크 오페라의 대표작

이탈리아의 소위 '나폴리 오페라'가 전유럽을 휩쓸던 18세기 중반까지 유일하게 독자적인 오페라를 고집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부르봉 왕가가 다스린 프랑스 궁정이다. 왕실이 직접 오페라와 발레를 관장하면서 프랑스적인 공연양식을 지켜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장 필립 라모다. 바흐, 헨델과 동시대인이었던 그의 오페라는 가수들의 오페라였던 나폴리 오페라에 비해서 지극히 장중하며 선율적인 우아함을 특징으로 한다. 라모의 대표작 <카스토르와 폴릭스>는 서정 비극이란 장르로 불리지만 해피엔딩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쌍둥이 별자리의 유래를 다루고 있는데, 신화에서는 두 형제가 쌍둥이인 반면 오페라에서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로 나온다. 여기에 두 형제가 모두 사랑하는 텔라이르라는 연인이 등장한다. 본 영상물은 2008년 1월 네덜란드 오페라 최신 실황이다. 이미 라모의 <조로아스터>에서 손발을 맞추었던 연출가 피에르 아우디와 지휘자 크리스토프 루세가 다시 결합했다. 미니멀리즘의 아름다운 무대와 고아한 의상은 루세가 리드하는 고품격 음악의 호흡과 완벽하게 어울린다.

[보충 자료]

○ [1막] 스파르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 카스토르의 죽음을 슬퍼한다. 이곳에 그의 연인이었던 텔라이르가 등장하여 슬퍼하는데, 마침 원수를 죽이고 아버지가 다른 형의 원수를 갚은 폴릭스가 나타나 형이 살아있는 동안 꺼낼 수 없었던 텔라이르에 대한 사랑을 호소한다. 그러나 텔라이르는 이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폴릭스더러 그의 아버지 쥐피테르에게 부탁하여 카스토르를 다시 살려내도록 하라고 요구한다. [2막] 쥐피테르는 아들의 부탁을 받아 천상의 기쁨을 보여주며 그를 말리지만 폴릭스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저승에 카스토르 대신 폴릭스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다. [3막] 폴릭스를 사랑하는 페베가 지옥문 앞에서 폴릭스를 말리지만 그는 거icho 지옥문을 통과한다. [4막] 형제가 저승에서 재회한다. 카스토르는 동생의 대신 머무르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텔라이르를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딱 하루만 지상에 머무르고 다시 돌아와 폴릭스를 돌려보내겠다고 말한다. [5막] 지상에서 텔라이르와 카스토르가 감격적으로 재회한다. 그러나 텔라이르는 그가 하루밖에 머물 수 없다는 말에 절망하여 그렇게 되면 폴릭스가 또 그녀에게 사랑을 요구할 것이라는 말까지 하며 애원하지만 카스토르는 듣지 않는다. 쥐피테르가 텔라이르의 사랑과 형제애에 감동하여 카스토르와 폴릭스를 모두 살리기로 한다. 이어서 쥐피테르는 하늘에서 영원한 기쁨을 주는 별들 사이에 두 형제와 텔라이르까지 끼워주겠다고 약속한다.

버트위슬: 미노타우르



OpusArte DVD OA 1000D

2D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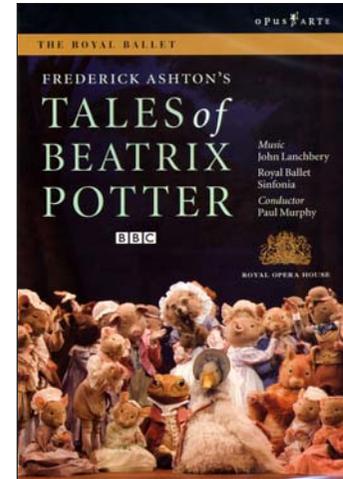
이루마의 스승 해리스 버트위슬이 크레타섬의 괴물을 다룬 오페라

해리스 버트위슬은 런던의 킹스 칼리지를 다닌 뉴에이지 피아니스트가 이루마가 자신의 스승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는 영국의 대표적인 작곡가다. 그가 로열 오페라의 의뢰를 받아 작곡한 2008년 최신작 <미노타우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은 황소, 반은 인간인 괴물의 이름이다. 이 신화는 무척 길고 복잡하지만 오페라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미노스 왕의 딸인 아리아드네 공주의 도움을 받아 미노타우르가 갇힌 미로를 뚫고 그를 죽인다는 부분이다. 초연 당시의 반응은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을 정도로 호평이었다. 영국의 유명한 테너 필립 랭그리지의 아들인 스티븐 랭그리지의 로열 오페라 첫 연출이며, 무대 디자인을 맡은 엘리스 치티는 작곡가의 영감에 따라 피카소의 영향을 드러냈다. 미노타우르가 갇힌 공간은 투우장으로 설정되었다. 로열 오페라의 예술감독 안토니오 파파노로서는 로열 오페라에서 처음으로 초연하는 것이며, 미노타우르를 맡은 베이스 존 톰린슨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미로에 갇힌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내면을 지닌 미노타우르를 표현했다.

[보충 자료]

○ 미노타우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소인 크레타의 괴물이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제물로 쓰라고 눈처럼 흰 황소를 보냈는데 미노스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황소를 살려두자, 포세이돈은 그 벌로 왕비 파시파이를 이 황소와 사랑에 빠지게 했고, 그 결과로 반인반수의 괴물이 태어났다. 미노스왕은 미노타우르를 가두기 위해 다이달로스에게 미궁(迷宮)을 짓게 했다. 그뒤 미노스의 아들 안드로게오스가 아테네인들에게 죽음을 당하자, 미노스는 그 복수로 아테네의 소년, 소녀들을 정기적으로 공물로 바치게 하여 미노타우르가 잡아먹도록 했다. 이를 처치하기 위해 파견된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미노스와 파시파이 사이에서 난 딸 아리아드네의 도움을 얻어 이 괴물을 죽였다. 그 다음 이야기, 즉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를 데리고 그리스로 가다가 낙소스 섬에 버려두고 떠난 바람에 슬픔에 빠진 아리아드네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에서 다루고 있다.

○ 해리스 버트위슬(1934~)은 영국의 대표적인 현역 작곡가다. 특정한 악파나 운동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활동을 펼쳐왔으며, 으르렁거리는 관악기와 대규모 타악기의 사용이 돋보인다는 평을 듣는다. 오페라도 많이 작곡했는데 출세작은 <편지와 주디>(1967)이고 두 차례나 로열 오페라에서 리바이벌된 <가웨인>(1990)이 대표작이다. 그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런던의 킹스 칼리지의 교수였고 이때 이루마를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OpusArte DVD OA 1001D

애쉬튼: 베아트릭스 포터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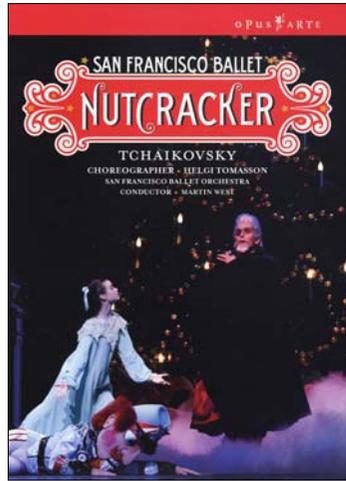
베아트릭스 포터의 동물 동화를 발레로 만나는 최고의 선물!

크리스 누난이 감독한 영화 <미소 포터>(2006)은 영국의 국민적 동화작가 베아트릭스 포터(1866~1943)의 삶과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다. 포터는 23권위 동화를 남겼는데 그 대부분은 '피터 레빗'이라는 토끼로 대표되는 다양한 동물 캐릭터다. 이 주인공들은 지금도 옷과 컵 등의 캐릭터로 영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 본 영상물은 포터의 동화 주인공인 갖가지 동물들을 이야기를 발레로 만든 것이다. 영국 로열 발레의 무용수들이 토끼, 쥐, 거위, 개구리, 여우 등으로 분장하여 아기자기하고 환상적인 동화의 세계로 이끈다. 이보다 더 훌륭한 동화발레는 없다고 할 정도이며 어린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물론 어른들이 보더라도 최고의 가족 발레다. 이 멋진 작품을 만든 이는 영국의 프레데릭 애쉬튼(1904~1988)이다. 그는 로열 발레의 산증인이라 할만큼 20세기 영국 발레의 역사를 관통하는 안무가이며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따스하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데 있어서 최고 거장이었다. <베아트릭스 포터>이야기는 1971년에 초연되었으며 당시 영화판 영상자료가 있으나 2007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공연된 본 영상물이 한층 매력적이다.

[보충 자료]

○ 베아트릭스 포터는 영국의 동화작가다. 그녀가 창조한 토끼 피터와 어부 제레미가 특히 유명하다. 면직공장을 소유한 거부의 외동딸로 태어난 포터는 외로운 소녀시절을 보냈으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호수지방에서 보낸 추억을 고이 간직했고, 이것이 그녀의 동물에 대한 사랑과 상상력 넘치는 수채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27세 때 그림이 들어 있는 동물이야기를 친지들에게 보냈고 그것이 많은 사랑을 받아 저비로 <토끼 피터의 이야기>, <글로스터의 재단사>를 출판했다. 그로부터 30년간 동물 동화를 썼다. 쉬운 문장과 수채화 그림으로 재미를 더한다. 1905년 출판사 사장의 아들과 약혼했는데 약혼자가 급사하자 랭커셔의 작은 마을에 농가를 짓고 혼자 살았다. 그러다가 1913년 결혼하여 생애 후반의 30년 동안 농장을 돌보며 살았다.

○ 안무가 프레데릭 애쉬튼은 안나 파블로바의 춤에 감명 받고 발레를 하기로 결심했지만 늦게 공부 시작한 바람에 일찌감치 안무가의 길로 진로를 바꾸었다. 1935년부터 새들러스 웰즈 발레와 로열 발레의 전신인 빅 웰즈의 무용수 겸 안무가로 초청받아 이후 35년간이나 재직한다. 그는 '가장 영국적인 안무가'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대체로 푸근하고 서정적이고 가족적이며 아기자기하고 짜임새가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었다. 줄거리 있는 발레를 선호한 편이지만 극적인 긴장감보다는 춤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인물이다. <베아트릭스 포터 이야기>의 경우도 비록 동화 발레지만 그의 특징이 대체로 구현되어 있다.



OpusArte DVD OA 1002D

차이코프스키 : 호두까기 인형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 - 샌프란시스코 발레의 경이로운 실황

〈호두까기 인형〉은 뉴욕 시티 발레의 조지 발란신이 크리스마스 가족 발레라는 개념을 명확히 한 이래 지난 50년간 세계 대부분의 발레단이 12월이면 항상 공연하는 최고의 흥행작이 되었다. 또한 발레단마다 조금씩 다른 고유의 프로덕션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뉴욕의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와 함께 미국 발레계를 양분하는 미국 서부 최고의 무용단인 샌프란시스코 발레는 현재 예술감독 헬기 토마스의 새로운 프로덕션을 2004년 12월에 선보였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호두까기 인형〉역사상 가장 호화찬란한 결작에 속한다는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본 DVD는 그 프로덕션을 2007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와 발레단의 본거지인 전쟁기념관에서 공연한 최신 실황이다. 화려한 무대와 의상, 풍부한 주역급 무용수들의 향연일 뿐 아니라 영상물로서의 가치도 웬만한 영화보다 뛰어난 화질을 자랑한다. 중국 발레의 실력을 세계에 알린 일등공신인 동 발레단의 대표적 스타 유안유안 텐은 눈송이 춤의 여왕으로 출연하며, 아르메니아 출신의 발레리노 다비트 카라페티안은 경이적인 힘과 테크닉으로 호두까기 왕자를 춤춘다.

[보충자료]

○ 미국에는 수많은 발레단이 있지만 양대 발레단은 뉴욕의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와 샌프란시스코 발레다. 샌프란시스코 발레는 1933년에 창단되었으며 미국 최초로 〈백조의 호수〉와 〈호두까기 인형〉을 공연한 자랑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 현재 예술감독은 아이슬란드 출신의 미국인인 헬기 토마스인데 1985년부터 20년 이상 동 발레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 이번 영상물을 보면 샌프란시스코 발레가 얼마나 풍부한 주역급 발레리나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유안유안 텐은 이제 고참급에 속하고, 그 뒤를 잇는 바네사 자호리안, 마리아 코체코바 등이 본 영상물에 등장한다. 발레리노로는 취리히 발레에서 이적한 놀라운 탄력의 소유자, 다비트 카라페티안이 돋보인다. 샌프란시스코 발레는 이들뿐 아니라 세계적 발레리나인 소피엔 실브를 포함하여 20명이 넘는 프린시펄(주역무용수)을 보유하고 있다.



Blu-ray Disc

www.opusarte.com

차세대 HD미디어 블루레이(Blu-ray)란?

블루레이 디스크는 650nm(나노미터) 파장의 적색 레이저를 사용하는 DVD에 비해 더 짧은 파장의 405nm 청자색 레이저를 사용하기에 블루레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4.7G 용량의 DVD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50G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프로페셔널 레코딩은 물론, 영화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선명한 고화질 영상과 손실 없는 사운드까지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고안된 차세대 미디어입니다.



OpusArte OA BD7016D

프로코피에프: 세 개의 오렌지의 사랑

상상만 할 수 있었던 온갖 창조적 재미를 무대 위에서 구현한 결작.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는 '20세기의 모차르트'로 불린 러시아의 천재적 작곡가다. 〈세 개의 오렌지의 사랑〉은 그가 소비에트로 귀환하기 이전인 1921년 시카고 리릭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되었으며 오페라 역사상 가장 특이한 재미를 지닌 작품의 하나다. 18세기 이탈리아 극작가 카를로 고치의 우화에서 취재한 것으로 우물중에 빠진 가상의 왕국의 왕자가 먼 여행 끝에 세 개의 오렌지를 얻고 그중 하나의 오렌지에서 나온 니네타 공주와 결혼한다는 얘기다. 왕국을 둘러싼 여러 신화와 마법사, 악마, 광대가 등장하여 두 시간 내내 동화적 세계를 펼쳐내면서도 그 음악과 대사는 고차원적인 유머를 담고 있다. 2005년 암스테르담의 네덜란드 오페라 실황인 본 영상물은 '그러노블의 피에르 아우디'로 불리는 로랑 펠리가 연출과 의상을 맡았다. 희극의 이면에 감추어진 깊은 맛을 끌어내는데 탁월하다는 평평이 있는 펠리는 상탈 토마의 환상적인 무대장치와 더불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환상적인 무대를 펼쳐냈다. 슈테판 드노브가 지휘하는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역시 프로코피에프의 복잡한 악보를 명쾌하게 소화해낸 호연이다.

R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안네 슈바네빌름스(원수부인)/ 안케 본통(옥타비안)/ 마키 모리(조피)/ 쿠르트 라이들(옥스남작)/ 한스 요아힘 케텔젠(파니날) 외/ 파비오 루이지(지휘)/ 드레스덴 슈타츠오페



Medici Arts 2056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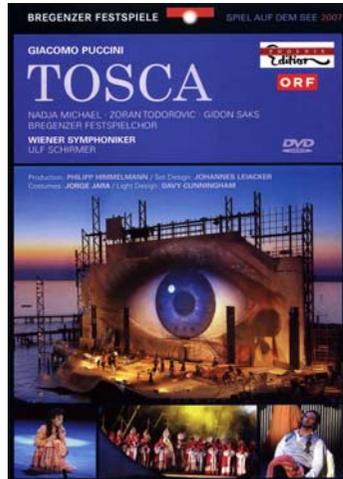
일본 오페라마니아들을 열광시켰던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장미의 기사

호프만슈탈의 리브레토에 R 슈트라우스가 음악을 붙인 〈장미의 기사〉는 작곡가의 오페라들 중에서 가장 상연빈도가 높은 인기작이다. '장미의 기사'는 약혼 축제 때 은으로 만든 장미를 약혼녀에게 바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18세기 마리아 테레시아 시대에 빈에서 유행한 관습이다. 슈트라우스가 바그너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보다 드러내던 시절의 작품으로, 〈살로메〉, 〈엘렉트라〉와 같은 과격한 이전 작품에 비해 단순한 화성, 세련된 관현악법, 우아한 선율로 채워진 매력적인 오페라다. 드레스덴은 1911년 1월 바로 이 오페라가 초연된 도시다. 초연이후 지금까지 〈장미의 기사〉는 드레스덴 슈타츠오페를 대표하는 레퍼토리로 사랑받고 있으며, 그만큼 이 오페라에 대한 이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지난 2007년 11월 드레스덴 슈타츠오페는 26년 만의 일본투어를 위해 바로 이 오페라를 선택하였다. 본 영상물은 그중 11월 25일 도쿄 NHK홀에서의 공연을 수록한 것이다. 2007년부터카펠마이스터를 맡고 있는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봉을 잡았고, 현재 유럽 오페라무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두 재능 있는 여가수들이 원수부인과 옥타비안을 맡았다. 일본투어라는 점을 고려해서 1998년 플라치도 도밍고가 주관하는 오페렐리아 쿤쿠르 우승자인 일본출신 소프라노 마키 모리가 조피 역할을 노래하였다. 오페라의 시대적 배경을 2차 대전 직후로 바꾸어놓았던 우베 에릭 라우펜베르크의 2000년 프로덕션을 리바이벌하였다.



Phoenix DVD

www.phoenixedition.com



Phoenix DVD 801

푸치니: 토스카

커다란 푸른 눈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토스카의 비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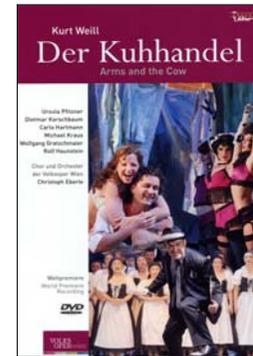
스위스 국경 인근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의 작은 산골마을 브레겐츠는 매년 여름마다 특별한 오페라 축제를 펼쳐 전세계 음악애호가들의 발걸음을 유혹한다. 보덴 호수의 잔잔한 수면 위에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일반 오페라 하우스에서 상상하기 힘든 스펙터클한 스케일의 무대세트와 연출로 오페라 애호가들을 열광케 만들기 때문이다. 2007/8년 시즌 브레겐츠에서 공연되었던 작품은 푸치니의 대표적인 걸작 오페라인 '토스카'였다. 본 DVD는 2007년의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거대한 크기의 푸른 눈으로 무대 전면을 장식했던 요하네스 라이악커의 강렬한 세트 디자인으로 큰 화제를 낳았던 공연이다. 연출자 필립 히멜만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이 오페라를 현대적으로 연출하였다. 스카피리아에게는 빅 브라더의 이미지가 덧입혀졌고, 무대 전면의 눈은 "빅 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소설속의 한 구절을 시각적으로 상징한다. 눈의 홍채 부분이 열리며 등장하는 성가대의 장엄한 행렬이나, 수면 위로 부상하는 십자가, 호수 위로 던져지는 카바라도시의 시체 등등 브레겐츠에서만 가능한 파격적인 연출들이 이어지며, 최근 급부상중인 독일 출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나디아 미카엘의 열연 또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보충자료]

○ 오스트리아의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스위스 국경 인근의 보덴호수 위의 거대한 무대에 고정 세트를 설치하여 한여름 내내 공연한다. 2년 동안 한 작품만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2005/6년 프로그램이 <일 트로바토레>(Opus Arte에서 DVD출시)였고, 2007/8년 프로그램이 바로 이번에 출시된 <토스카>다. 객석은 호반에 설치되었으므로 관객들은 호수 쪽을 바라보면서 정면에 설치된 무대의 오페라를 즐긴다.

○ 라이프치히 출신의 소프라노 나디아 미카엘은 슈투트가르트 음악원과 미국 인디애나 대학 음대에서 노래를 배웠다. 처음에는 메조소프라노로 캐리어를 시작하였으나, 소프라노로 전향한 이후 본격적으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토스카, 산투차, 피델리오, 레이디 맥베스, 살로메와 같은 격정적인 캐릭터에 능하며, 특히 현재 천부적인 살로메로서 일급 오페라극장들을 누비고 있다.

○ 독일의 연출가 필립 히멜만은 본 대학에서 음악학과 언어학을 전공하였다. 만하임, 하노버, 뉘른베르크, 바덴-바덴,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드레스덴 젤퍼오퍼, 베를린 슈타츠오퍼 등등 독일의 정상급 오페라하우스들을 섭렵하면서 실력파 연출가로서의 경력을 다져왔다.



Phoenix DVD 803

쿠르트 바일: 오페레타 <무기와 암소>

전쟁을 부추기는 무기상과 정치판을 풍자한 쿠르트 바일의 오페레타

20세기를 대표하는 희곡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와 협력하여 <마하고니 시의 흥망성쇠>, <서푼짜리 오페라>를 작곡한 유쾌계 작곡가 쿠르트 바일은 나치를 피해 파리에 머물던 1933년 2막의 오페레타를 만들기 시작했다. 독일어 제목인 'Der Kuhhandel'은 암소 거래, 혹은 정치적 꿈을 뜻하는 속어인데 결국 빛을 보지 못한 채 1935년 영어판으로 개작하여 <암소를 위한 왕국>이란 제목으로 런던 사보이 극장에서 초연된다. 독일어 원본은 작곡가가 세상을 떠난 지 31년이나 지난 1981년에야 출판되었으며 1990년에 뒤셀도르프에서 초연되었다. <무기와 암소>란 부제로도 통용되는 이 오페레타는 카리브해의 평화로운 섬나라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파렴치한 무기상과 정치군인을 고발한다. 전비를 마련하느라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바람에 재산이곤 암소 한 마리뿐인 극중 주인공 후앙 산토스는 연인과의 결혼을 미루어야 한다. 물론 오페레타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오늘날에도 충분히 통용될 내용이다. 음반과 영상물을 통틀어 전곡판으로는 처음 출시되는 본 영상물은 유서 깊은 빈의 폴크스오퍼의 2007년 실황이며, 거장 데이비드 파운트니의 풍자적 연출이 돋보인다.



Phoenix DVD 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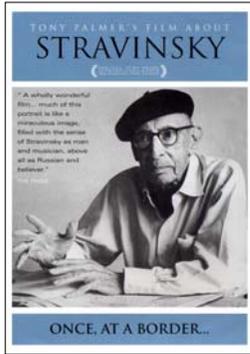
카를 빈더: 탄호이저 - 80분판

<탄호이저>를 80분에 정복하라! 북 치고 장구 치는 일인극 패러디로!

바그너의 <탄호이저>가 빈에서 공연된 것은 1857년이 처음이었다. 두 달 뒤 그곳에서 요한 네스트로이라는 56세의 늙은 가수가 일인극 버전을 선보였다. 카를 빈더의 도움으로 <탄호이저> 음악을 실내악으로 편곡하고 선율 자체도 단순화했으며 탄호이저, 엘리자베트, 불프람, 국왕 등 주요 역을 모두 혼자 불렀다. 뿐만 아니라 독일어 오페라의 선구인 <마술피리>나 <마탄의 사수>의 주요 아리아를 삼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네스트로이는 바그너를 폄하하진 않았다. 그의 작업에는 바그너 오페라에도 선율이 살아있으며 가수의 목과 청취자의 귀를 만친다는 당대의 혹평에 반대하는 의미가 부여되었다. 물론 희화화를 통해 바그너 음악이 무조건 수준 높은 것은 아니란 점도 입증해 보였지만 말이다. 이런 작업이 약 150년 만에 재현되었다. 로버트 마이에는 네 명의 기악연주자와 함께 자기 식의 변형을 가해 80분짜리 패러디를 만들었고 빈의 2005/2006 시즌에 호평을 이끌었다. 본 영상물은 2008년 폴크스오퍼에서 있었던 리바이벌 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전혀 접할 수 없었던 흥미로운 작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Tony Palmer's Film DVD

www.tonypalmerdv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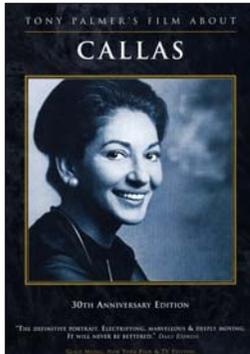


Tony Palmer's DVD
TPDVD126

스트라빈스키

20세기 최고의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상세한 연대기

이고르 스트라빈스키(1882~1971)는 현대음악의 아이콘이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차이코프스키, 린스 키코르사코프의 전통을 계승하는가 하면, 20세기 초반에는 디아길레프가 이끄는 '발레 뤼스'에 참여하여 서유럽에서 원초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일련의 발레음악으로 돌풍을 일으키는가하면 음악에서의 신고전주의 운동을 주도했다. 그뿐 아니라 미국으로 망명하는 개인사의 격동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향으로 발전해나갔다. "작곡을 하는 행위는 내게 있어 모든 것입니다. 나는 음악 자체보다도 그걸 작곡하기를 더 즐기니까요. 작곡을 하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가 마음은 가장 편안합니다."고 말했을 정도로 이 다큐멘터리는 스트라빈스키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마리아 칼라스, 마고트 폰테인 등 최고의 인물들을 다루어온 예술 다큐멘터리의 최고 거장 토니 팔머가 제작한 것이다. 무려 165분에 걸쳐 그의 일생을 시대 순으로 소개하는데, 풍부한 역사적 영상자료, 인터뷰, 대표작의 연주 장면을 잘 배합하여 그의 모든 것을 조망한 거의 완벽한 다큐멘터리다. 특히 바이올린 협주곡은 우리 나라의 정경화가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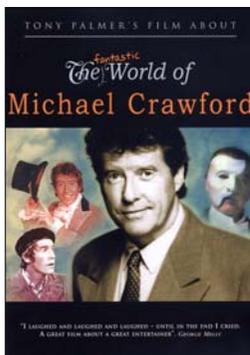


Tony Palmer's DVD
TPDVD103

마리아 칼라스 30주기 에디션

오페라의 여신 칼라스, 그러나 '마리아'라는 슬픈 여인의 기록

금세기의 어떤 오페라 가수도 '라 디비나(여신)'라 불린 칼라스만큼 추종과 논쟁거리를 동시에 제공하지 못했다. 그녀는 예쁜 소리가 아니라 극적인 진실이 담긴 소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시킨 혁명적 존재였다. 또한 엄청난 감량을 통해 미운 오리새끼에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했다. 이것이 칼라스의 전설이다. 그러나 토니 팔머는 '칼라스'라는 오페라의 여사제와 '마리아'라는 비극적 여인을 대조시키며 한층 압도적 감동을 선사한다. 결코 착하다고 할 수 없었던 드센 기질의 소유자, 그러나 오페라도, 사랑도 잃은 후 칼라스는 어떤 오페라 주인공보다도 쓸쓸한 만년을 보냈다. "오늘 하루도 지나갔군요. 신이여, 남은 날이 더 짧아져서 감사합니다"라면서... 그녀의 죽음을 재촉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칼라스 주변의 여러 인사의 증언을 통해 객관적으로 파헤친, 수많은 칼라스 다큐멘터리 중 최고의 역작이다. 원래 칼라스 10주기에 나왔던 것인데 2007년 30주기를 맞아 새로운 에디션을 선보인다. 모든 영상자료를 16:9의 와이드 화면으로 재구성했다.



Tony Palmer's DVD
TPDVD123

토니 팔머: 마이클 크로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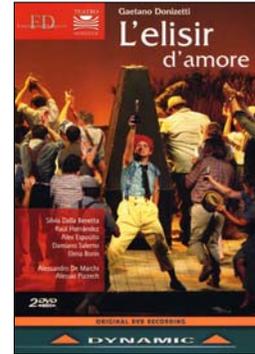
<오페라의 유령>의 신비로운 주인공, 마이클 크로포드의 초상

영국의 배우이자 가수인 마이클 크로포드는 히트 상품 제조기로 불린다. 그는 1970년대 영국 방송계를 한손에 휘어잡은 최고의 히트작이라는 시트콤 <Some mothers do 'ave'em>(어떻게 할 수 없는 놈이군, 별 얼간이도 다 있군'이란 뜻의 영국식 구어)의 프랭크 스펜서 역으로 절대적인 인기를 누렸고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서 오리지널 유령 역을 노래했다. 그것도 런던의 웨스트엔드와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모두! 마이클 크로포드의 음성은 남자로서 가장 신비하다는 평을 들곤 한다. 그런데 그가 사실은 오페라로 무대 경력을 시작한 인물인 것을 아는가? 10대 시절에 20세기 영국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의 <오페라를 만들자>, <노아의 방주> 등에 출연하면서 극장 원리를 터득하고 무대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던 것이다. 마이클 크로포드는 요즘엔 건강이 좋지 않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그이 지난날과 현재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이 영상자료는 마리아 칼라스, 마고트 폰테인 등 예술가 다큐에서 지난 40여 년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아 온 거장 토니 팔머 감독의 2008년 최신작이다.



DYNAMIC DVD

www.dynamic.it



Dynamic DVD 33577

도니체티: 사랑의 묘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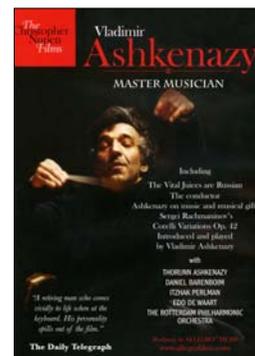
작곡가의 고향, 베르가모의 도니체티 가극장이 선택한 <사랑의 묘약>

희가극과 비가극에 두루 재능을 지닌 도니체티의 오페라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으면서도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걸작이 <사랑의 묘약>이다. 스페인의 가난한 바스크 마을을 배경으로 일편단심 한 여인만을 사랑하는 바보처럼 순진한 청년 네모리노와 그 짝사랑의 대상 아디나가 주인공이다. 도니체티의 고향 베르가모에는 작곡가의 이름을 딴 도니체티 가극장이 있는데, 2007년 가을에 올린 작품은 알레시오 피체크가 연출한 <사랑의 묘약>이었다. 도니체티를 상징하는 극장이 신중하게 선택한 프로덕션인 만큼 작품의 재미를 충분히 살려냈다. 특이한 점은 네모리노나 아디나보다도 영타리 약장수 돌카 마라의 캐릭터가 더욱 돋보일 뿐 아니라 이 역을 맡은 알렉스 에스포지토의 연기와 노래가 다른 출연진보다 한층 뛰어난다는 사실이다. 정통 오페라 부파에서 약간 비껴난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오페라의 희극성을 보강하기 위한 장치다. 연출을 맡은 피체크는 무대가 시골 전원이란 점을 명확히 했지만 시대와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정을 하지 않은 채 남녀간에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묘사하고 있다. 아디나에게 서부의 아가씨처럼 여걸형의 이미지를 투영한 점도 흥미롭다.



Nupen Film DVD

www.allegrofilms.com



Nupen DVD A09C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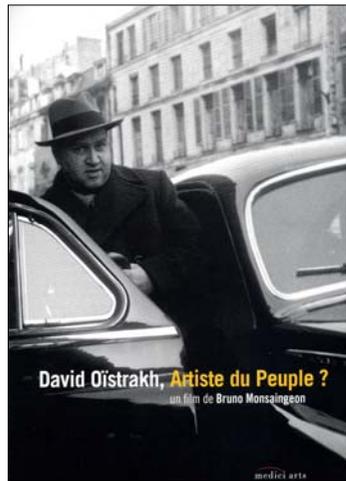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 거장 음악가

위대한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의 모든 것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지금은 지휘자로 더 유명한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1937~)는 1963년 연주 여행 중에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국에 망명했다. 그 다음엔 아내의 나라인 아이슬란드에 거주하면서 그곳 국적을 취득했고 지금은 스위스에서 살고 있다. 음악 다큐멘터리 전문 감독인 크리스토퍼 누펜은 아쉬케나지의 망명 초기부터 그에게 관심을 갖고 꾸준한 기록을 축적했다. 그때 이미 쇼팽 콩쿠르 2위(1955)를 시작으로 퀴엘리자베스 콩쿠르(1956)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1962)까지 석권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던 것이다. 본 영상물은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영국 체류 시절의 51분짜리 기록을 비롯하여 지휘자로서의 아쉬케나지를 조망한 자료, 음악에 대한 그의 생각을 피력하는 짧은 인터뷰, 라흐마니노프의 장대한 피아노곡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에 대한 본인의 해설과 연주, 여기저기가 푸집한 보너스로 크리스토프 누펜의 다양한 다큐 자료를 중에서 편집한 39분짜리 '알레그로 필름 컴필레이션'이 추가되어 있다.

***Medici Arts는 EuroArts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인기 1위!
한국 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의 예술세계 조명



Medici Arts DVD 3073178

몽생종 필름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인민의 예술가인가?

전설적인 예술가들의 음악과 인생을 귀중한 화면과 함께 예리하게 파헤쳐 광목할만한 영상 전기를 쓰고 있는 몽생종 필름이 이번에는 20세기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했다. 진정한 의미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란 어떤 사람인가, 소비에트 체제의 음악가로서의 입지, 가정에서의 역할, 제자와 선생으로서의 모습, 지휘활동, 그리고 죽음에 관한 문제 등 대 음악가의 음악적, 인간적인 측면을 많이 다뤘다. 어린 시절 바이올린을 들고 찍은 사진을 포함하여, 스승 스톨아르스키의 모습, 유명 음악가들과 함께 찍은 사진, 새파랗게 젊은 오이스트라흐의 연주 모습을 볼 수 있는 어른거리는 옛 동영상 등 진기한 자료들을 가득 담았다. 나이 먹을수록 아버지의 외모를 많이 닮아간 이고르 오이스트라흐가 아버지에게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기욤 크레머, 예후디 메뉴인 등 그를 잘 아는 대 바이올리니스트들, 그리고 로스트로포비치가 그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남겼다.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 협주곡, 베토벤의 소나타, 브람스의 협주곡, 쇼팽의 녹턴,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랄로의 에스파냐 교향곡,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모차르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슈만의 현정, 시벨리우스의 협주곡, 차이코프스키 협주곡 등 그가 연주한 주옥같은 음원들이 애잔한 정서로 흐른다.

다비드 오이스트라흐(1908-1974 바이올리니스트)는 주지하듯이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의 한사람이다. 러시아 출신의 현악기 연주자로 서방세계에서 그만큼 존경을 받으며 높고 화려한 명성을 쌓아올린 연주자는 없었다. 오이스트라흐는 1908년 오데사에서 태어났다. 다섯 살부터 오데사에서 유명한 음악선생인 표트르 스톨아르스키(Pyotr Stolyarsky)한테 배웠고, 오데사(Odessa) 음악원(1923년-26년)을 졸업했다. 학생 신분으로 그는 오데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독주자와 악장을 겸했고, 졸업 즈음 키예프에서 글라주노프 바이올린 협주곡이 작곡가 자신의 지휘로 초연될 때 바이올린 독주를 맡기도 했다.

1928년에는 모스크바로 이주해서 1934년부터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35년에 비에니아프스키 콩쿠르에서 2위를 했던 일은 매우 유명하다. 그때 1위를 했던 지네트 느브 때문이다. 하지만 1937년에 브뤼셀에서 열린 이자이 콩쿠르에서는 당당히 1위를 했다. 2차 세계대전 후 1950년대에 들어 서구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시작했으며, 1955년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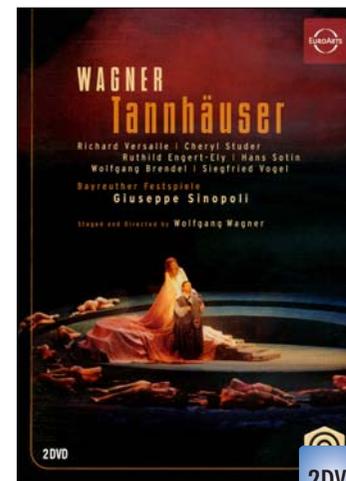
쇼스타코비치는 자신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2번을 모두 오이스트라에게 헌정했고 당연히 오이스트라흐는 이 협주곡들을 초연하는 영예를 누렸던 독주자였다. 오이스트라흐는 다양한 레퍼토리들을 잘 소화하는 연주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의 명연주들은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에서 엘가, 쇼송, 윌턴, 시벨리우스, 타네예프, 글라주노프, 차이코프스키, 프로코피예프, 하차투리안에 이르기까지 정말 폭이 넓다. 그의 바이올린은 항상 풍부하고 낭랑하게 울려 퍼지는 사운드를 자랑한다. 그 풍성한 음향에는 섬세하게 다듬어진 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음정, 그리고 격조 높은 음악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무리 어려운 음악을 연주하더라도 오이스트라흐의 연주에서 어눌해 보이는 대목은 찾아 볼 수 없고, 명쾌한 프레이징과 정묘한 음정은 숨죽이고 듣는 사람들을 늘 안심시키며 감동의 세계로 이끈다.

기술보다는 음악적 감동에 주목한 진정한 비르투오소

오이스트라흐는 탁월한 연주기술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테크닉을 과시하여 비르투오소 바이올린 연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연주기술을 더 뽐내며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작품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작곡가가 마련해놓은 정서적인 특성을 보다 감동적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의 연주에는 항상 인간적인 따스함이 깃들여 있고, 기교에 의해 느끼는 재미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예술적 감동이 있다. 이 대목은 오이스트라흐 연주의 장점들을 얘기할 때 그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만약 우리 애호가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무 대부분의 통계에서 인기 1위는 다비드 오이스트라가 차지할 것이다. 그렇다. 오이스트라흐는 일반 음악애호가와 전문가에게 공히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바이올리니스트인 것이다. 그가 그렇게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가 뛰어난 연주기술에다 정신적 내용까지 높은 수준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 밖에는 내릴 수 없으리라. 기교가 뛰어나도 정신적 내용이 그 뛰어난 기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정신적으로는 고고하나 기술이 또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오이스트라흐는 아주 커다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연주자였다. 그는 당대의 그 누구와 비교해도 단연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늘 높은 정신성이 뒷받침 되어 발휘되었다. 것처럼 완벽한 기교를 갖췄으면 서도 기교파라는 이미지보다는 '진정한 예술가'라는 이미지로 존경 받는 바이올리니스트도 별로 없다. 만년에 오이스트라흐는 지휘에도 관심을 가졌고 중요한 활동을 했다. 하지만 66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거장의 중요한 노년활동을 많이 접할 수 없게 되었던 점은 그를 사랑하는 수많은 애호가들이 가슴에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Medici Arts DVD 2072008

바그너: 탄호이저

볼프강 바그너의 대표적 연출로 남은 1989년 바이로이트 실황

볼프강 바그너(1919~)는 리하르트 바그너의 친손자로서 1951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이 재개되면서 형 빌란트와 공동으로 감독직을 수행했다. 1966년 빌란트가 죽자 단독으로 바이로이트를 이끌었으며 2008년 페스티벌을 끝으로 그 자리를 배 다른 두 딸에게 넘겨주었다. 본인 스스로가 오페라 연출가이기도 한 볼프강 바그너는 미니멀리즘 경향의 현대적 연출을 선호한다. 그 대표작이 1985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첫 선을 보인 <탄호이저>다. 단순하지만 신화적 상징성이 잘 드러난 무대 위에서 애육과 종교적 경건함을 동시에 부각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 1989년 바이로이트 실황인 본 영상물은 치밀한 해석으로 명망이 높은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했고 당시 다방면에서 최고의 소프라노였던 세릴 스투더가 엘리자베타를 부른다. 탄호이저 역은 미국 테너 리처드 바살이다. 4년 전에 이 오페라로 바이로이트에 데뷔한 그는 단번에 스타덤에 올라 몇 년간 반복 출연했는데, 7년 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아나체르크의 <마크로폴로스 사건>에 출연했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자한 비운의 가수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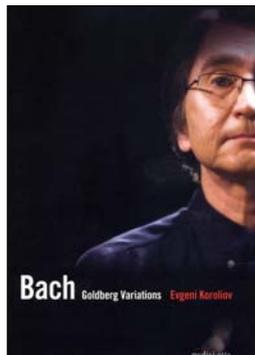
Medici Arts DVD 2072298

차이코프스키: 현악사중주 1 & 2번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3 & 8번

보로딘 현악사중주단
 (미하일 코펠만/ 안드레이 아브라멘코프/ 드미트리 세발린/ 발렌틴 베를린스키)

러시아 실내악의 전설을 만나다.

보로딘 퀸텟은 러시아 실내악의 전설적인 이름이다. 수차의 멤버 교체는 겪었지만, 6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들의 유구한 전통은 부단히 계승되어왔다. 1945년 로스티슬라프 두빈스키, 블라디미르 라베이, 루돌프 바르사이, 발렌틴 베를린스키, 4명의 연주자가 모스크바 필하모닉 퀸텟이라는 이름으로 의기투합했으며, 1955년 결성 10주년을 맞아 보로딘 퀸텟이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하였다. 건강이나 망명 등의 이유로 첼리스트 베를린스키를 제외한 다른 오리지널 멤버들은 모두 다른 연주자들로 교체되었고, 70년대 중반에는 미하일 코펠만, 안드레이 아브라멘코프, 드미트리 세발린, 그리고 베를린스키의 안정된 진용으로 제2의 황금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이 진용은 1995년까지 유지되었고, 이들에 의해 보로딘 퀸텟을 세계최고의 현악사중주단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 2007년 베를린스키가 은퇴하면서 오리지널 멤버는 모두 사라졌지만, 이들의 전통은 안드레이 아브라멘코프에 의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다. 본 영상은 황금기 멤버들이 활동하던 시절인 1987년 10월 런던의 헨리우드홀에서 있었던 공연을 수록한 것이다. 레퍼토리가 대단히 알차다. 바로 차이코프스키의 현악사중주 1,2번과 쇼스타코비치의 현악사중주 3,8번이 함께 수록된 것.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로 더욱 유명한 차이코프스키의 1번과 루돌프 바르사이가 실내교향곡으로 편곡함으로써 유명세가 더해진 쇼스타코비치의 8번은 보로딘의 전매특허와도 같은 레퍼토리들이다.



Medici Arts DVD 2057238

J.S.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에프게니 코롤리오프(pf)

골드베르크는 골드와 투렛이면 충분하다고요? 코롤리오프를 한번 들어보시죠.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에프게니 코롤리오프는 바흐 건반 작품의 새로운 스펙트럼으로 유럽 일대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연주자다. 그는 1957년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글렌 굴드의 리사이틀을 직접 목격한 이후 열렬한 바흐 마니아로 거듭났다. 이후 마리아 유디나, 스비아슬라브 리히터와 같은 자국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들의 바흐 연주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6-70년대에는 라이프치히 바흐 콩쿠르, 반 클라이번 콩쿠르, 클라라 하스킬 콩쿠르 등의 국제적인 경연대회들에서 수상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음악계에 알리기 시작하였다. 고전 및 낭만 레퍼토리에서도 뛰어난 연주를 들려주지만, 그의 정수는 바흐 연주에서 발견된다. 대위법에 대한 탁월한 연주스킬과 작품 내면의 감동을 충실히 전달해주는 뛰어난 연주력은 음반과 실연 양쪽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 본 영상물은 2008년 6월 20일, 라이프치히 바흐 페스티벌 기간 중에 있었던 그의 리사이틀을 담은 것으로, 그는 이 리사이틀에서 바흐 건반작품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베르크변주곡' 전곡을 연주하였다. 골드베르크가 만들어내는 크리스탈과 같은 소노리티와 견고한 폴리포니가 확연히 부각되는 연주로, 골드와 투렛의 역사적인 명연들을 충분히 계승할만하다. 연주자의 잔잔한 표정변화와 현란한 손의 움직임이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해낸 마카엘 바이어의 카메라 연출도 훌륭하다. 16:9의 화면비와 PCM Stereo, Dolby 5.1채널, DTS 5.1채널의 사운드 포맷을 제공한다.



Medici Arts DVD 2056918

R.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안네 슈바네빌름스(원수부인)/ 안케 본둥(옥타비아)/ 마키 모리(조피)/ 쿠르트 라이들(옥스남작)/ 한스 요아힘 케텔젠(파니날) 외/ 파비오 루이지(지휘)/ 드레스덴 슈타츠오페라

일본 오페라마니아들을 열광시켰던 드레스덴 슈타츠오페라의 장미의 기사

호프만슈탈의 리브레토에 R 슈트라우스가 음악을 붙인 <장미의 기사>는 작곡가의 오페라들 중에서 가장 상연빈도가 높은 인기작이다. '장미의 기사'는 약혼 축제 때 은으로 만든 장미를 약혼녀에게 바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18세기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에 빈에서 유행한 관습이다. 슈트라우스가 바그너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보다 드러내던 시절의 작품으로, <살로메>, <엘렉트라>와 같은 과격한 이전 작품에 비해 단순한 화성, 세련된 관현악법, 우아한 선율로 채워진 매력적인 오페라다. 드레스덴은 1911년 1월 바로 이 오페라가 초연된 도시다. 초연이후 지금까지 <장미의 기사>는 드레스덴 슈타츠오페라를 대표하는 레퍼토리로 사랑받고 있으며, 그만큼 이 오페라에 대한 이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지난 2007년 11월 드레스덴 슈타츠오페라는 26년 만의 일본투어를 위해 바로 이 오페라를 선택하였다. 본 영상물은 그중 11월 25일 도쿄 NHK홀에서의 공연을 수록한 것이다. 2007년부터카펠마이스터를 맡고 있는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봉을 잡았고, 현재 유럽 오페라무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두 재능 있는 여가수들이 원수부인과 옥타비아를 맡았다. 일본투어라는 점을 고려해서 1998년 플라치도 도밍고가 주관하는 오페렐리아 콩쿠르 우승자인 일본출신 소프라노 마키 모리가 조피 역할을 노래하였다. 오페라의 시대적 배경을 2차 대전 직후로 바꾸어놓았던 우베 에릭 라우펜베르크의 2000년 프로덕션을 리바이벌하였다.

[보조자료]

○ 젊은 귀족 옥타비아는 원수부인의 숨겨놓은 애인이다. 부호 파니날의 딸 조피를 사랑하는 오크스남작은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당시의 풍습대로 옥타비아를 장미의 기사로 내세운다. 옥타비아는 파니날의 집으로 찾아가 은으로 만든 장미를 전하며 오크스남작의 사랑을 조피에게 전한다. 하지만, 옥타비아와 조피는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다. 옥타비아는 여자로 변장하여 방탕한 남작을 맡겨 골려주고, 결국에 가서는 조피는 옥타비아의 차지가 된다는 희극적인 내용의 오페라다.

○ 원수부인을 노래한 안네 슈바네빌름스는 독일 게젤키르헨에서 태어난 대형 소프라노다. 원래 조경을 전공했지만, 뮌헨에서 한스 조틴을 사사하면서 가수의 길로 들어섰다. 바그너, R 슈트라우스, 베르크 등의 드라마틱한 작품들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았고, 바이로이트에도 진출하였다. 2002년 독일 오페라 전문지 오페른벨트에 의해 올해의 가수에 선정되기도 했다.

○ 독일의 메조소프라노 안케 본둥은 피아노에서 성악으로 전향한 이후 울리아 하마리, 브리기트 파스벤더,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 등을 사사하면서, 성악계의 기대주로 성장하였다. 뮌헨 ARD 콩쿠르에서는 3위를, 전독일 성악 콩쿠르와 멘델스존 콩쿠르에서는 우승을 차지하였고, 파리 샬레극장과 뮌헨 바이에른슈타츠오페 등에서 활동하면서 호평을 받았다. 2003년 이후 드레스덴 슈타츠오페라의 주축멤버로 활동중이다.



Medici Arts DVD 2072028

바그너: 로엔그린

대연출가 괴츠 프리드리히의 1982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실황

카란 암스트롱은 몬타나에서 태어난 미국 소프라노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뉴욕 시티 오페라에서 활동했지만 대스타는 아니었다. 그러나 로테 레만을 사사한 지적인 가수였기에 유럽에서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과감히 미지의 세계로 향한다. 1975년 스트라스부르에서 공연한 <살로메>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목소리도 점점 더 여물어갔다. 드디어 1979년에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데뷔하여 <로엔그린>의 엘자를 노래했는데 당시 연출자가 바그너 오페라로 유명한 동독 출신의 괴츠 프리드리히였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11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했다. 본 영상물은 이들을 맺어준 바로 그 프로젝트이며 1982년 바이로이트의 리바이벌된 실황이다. 프리드리히의 연출은 엄숙하고도 시각 효과가 뛰어난 무대, 독일적 뉘앙스를 물씬 살린 극적 진행이 돋보인다. 성배의 기사 로엔그린을 부른 페터 호프만은 일급 육상선수 출신인데 잘 생긴 외모와 영웅적인 가창력으로 일세를 풍미했던 헬덴 테너다. 악당 텔라문트를 부른 레이프 로아르의 뛰어난 가창과 성격묘사도 일품이며, 볼데마르 넬슨이 지휘한 오케스트라는 바이로이트 가극장의 깊은 사운드를 잘 포착했다.



Medici Arts DVD 2054028

드레스덴 오페라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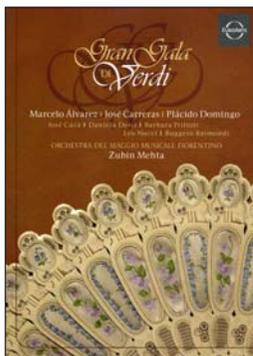
드레스덴의 한여름을 달군 오페라의 밤 3년(1998~2000)의 정수!

드레스덴은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등과 더불어 독일을 대표하는 가극장이 있는 곳이다. 이극극장 앞의 광장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최고의 스타들을 불러 모은 한 여름 밤의 오페라 축제가 벌어진다. 본 영상물은 1998년부터 3년간의 갈라 실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들을 모아 놓은 하이라이트다. 1998년 실황에서는 그리스의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 미국 테너 닐 슈코프가 돋보이며, 1999년 실황에서는 닐 슈코프가 다시 한 번 실력을 발휘한 가운데 불가리아 소프라노 안나-토모와 신토우가 대형 소프라노의 진면목을 발휘했다. 이듬해인 2000년 실황에서는 얼굴이 싹 바뀌어 이탈리아 가수들이 대거 등장했다. 오페라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대형 메조소프라노 다니엘라 바르첼로나, 파바로티의 후계자 그룹에서 돋보인 빈센초 라 스콜라, 마리아 칼라스와 닮은 외모와 목소리로 큰 화제를 모은 루치아 알리베르티가 그들이다. 특히 알라베르티는 영상자료가 무척 귀하므로 본 DVD의 가치를 증폭시킬 것이다.

베르디 탄생 100주년 갈라

2001년 베르디 서거 100주년을 기념한 전대미문의 대규모 갈라

2001년은 이탈리아 오페라 최고의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1813~2001)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들이 넘쳐났다. 갈라 공연도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최고는 베르디의 고향과 가까운 파르마에서 3월 11일에 열린 실황일 것이다. 우선 가수들의 면면이 대단하다. 남성으로는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마르셀로 알바레스, 호세 쿠라, 바리톤 레오 누치, 베이스 루제르 라이몬디를 만날 수 있고 여성으로는 소프라노 마리엘라 데비야, 다니엘라 데시, 바르바라 프리틀리 등 세계적 디바들이 명가수들이 출연했다. 구성방식도 특이하다. 베르디의 오페라 중 12편을 골라 이중 한 두곡씩을 들려주는데, 작품이 바뀔 때마다 성악가들이 해설가로 등장하여 노래가 아닌 자기육성을 들려준다. 그중에는 베르디 당시의 사랑, 분노 등을 나타내는 연기 지시법을 재현하여 관객의 폭소를 자아내는 장면도 있다. 화질과 음질 모두 일급이다. 국내 라이선스로 당시 공연을 90분에 압축한 영상물이 발매된 바 있지만 본 영상자료는 무려 3시간에 이르는 전체 실황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이보다 대단한 베르디 갈라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Medici Arts DVD 2051058



Medici Arts DVD 2055728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안무: 우베 솔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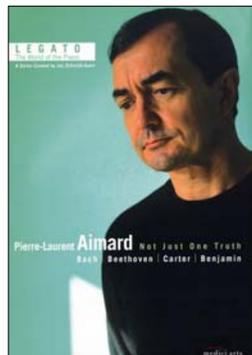
조반니 디 팔마 & 키요코 키무라(솔로)/ 라이프치히 발레
볼프강 만츠 & 롤프 플라게 (pfs)/ 헨릭 새퍼(cond)/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천재 안무가 우베 솔츠의 마지막 열정을 담은 두 가지 충격적인 <봄의 제전>

스트라빈스키를 대표하는 발레음악이지만, 발레보다는 콘서트 관현악레퍼토리로 더 익숙해진 <봄의 제전>. 명실상부한 발레 <봄의 제전> 영상물이 등장하였다. 지난 2004년 11월 45세의 많지 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독일의 천재적인 무용가 우베 솔츠가 두 가지 포맷으로 연출한 <봄의 제전>을 함께 만날 수 있다. 첫 번째 <봄의 제전>은 라이프치히 발레의 대표 발레리노 조반니 디 팔마의 독무를 위한 것으로 작곡가 자신이 2대의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버전을 반주로 삼았다. 솔츠 자전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현대인의 고독과 절망감을 충격적인 이미지의 배경영상과 더불어 표현한 것이다. 두 번째 <봄의 제전>은 보다 정통적인 형태의 군무다. 욕정과 폭력으로 대변되는 인간집단의 원초적 본능이 강렬한 안무를 통해 생생하게 펼쳐지며, 여성세물의 선택과정과 마지막 희생이 파격적으로 연출되었다. 솔츠가 13년 동안 갈고 다듬었던 라이프치히 발레의 조직적인 퍼포먼스와 솔로 발레리나 키요코 키무라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이 멋지게 조화를 이룬다. 두 공연 모두 2003년 2월 22일 라이프치히 오페라 무대에 올린 실황과 드레스 리허설을 편집한 것이다. 74분 가량의 발레실황영상과 더불어 우베 솔츠의 짧지만 굵은 족적과 고인에 대한 주변인들의 회고를 다룬 권터 아텔른의 다큐멘터리 필름 <Soulsapes>가 함께 제공된다.

**피에르-로렌 아이마르/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31번,
J.S. 바흐: 푸가의 기법 발췌,
벤저민: 새도우라인 외**

바흐와 베토벤 그리고 현대음악을 넘나드는 아이마르의 이치적인 피아니즘을 만나. 정상급 피아니스트들의 음악세계와 무대이면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 레가토 시리즈의 최신보 최근 DG와의 전속계약을 통해 다시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피에르-로렌 아이마르가 이번 신보의 주인공이다. 1957년 리옹에서 태어난 그는 메시앙의 아내 이본느 로리오를 사사하였다. 이어 블레즈와의 긴밀한 협력 작업을 통해 현대음악분야에서 크게 활약하였고, 특히 메시앙과 리게티 음악의 최고 권위자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아르농쿠르와 함께 했던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전집이나 슈만의 교향적연습곡 등을 통해 고전 및 낭만레퍼토리에 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연주자임을 과시한바있다. 최근 발매된 바흐의 '푸가의 기법'에서는 다양한 현대음악들을 통해 체득한 아이마르의 이치적이고도 명료한 피아니즘이 바흐의 정교한 대위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됨을 보여주기도 했다. 본 영상은 2008년 3월 5일 뮌헨의 신빈 쿤스테에서 있었던 아이마르의 피아노 리사이틀 실황(75분)과 더불어 이 연주자의 개성적인 음악세계를 다룬 안 슈미트-가레의 포트레이트 다큐멘터리 'Not Just One Truth' (30분), 그리고 자신과 음악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의 인터뷰(73분)를 함께 수록하였다. 리사이틀은 바흐의 푸가의 기법,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31번, 그리고 엘리엇 카터와 조지 벤저민의 작품 등 아이마르의 강점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알찬 레퍼토리들로 구성되었다.



Medici Arts DVD 2055798



4 for 2

Medici Arts DVD 2057378

베토벤 : 교향곡 전집

클라우디오 아바도(cond)/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클래식 콘서트 DVD의 필수구입 아이템, 드디어 수입완제품으로 등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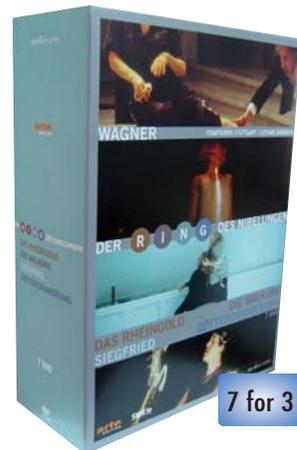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베를린 필하모닉이 완성한 베토벤 교향곡 전집은 클래식 콘서트 DVD의 대명사로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아이템이다. 유로아츠 본사 제작의 수입완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위임잔단을 받았던 아바도는 불굴의 의지로 이를 극복하였고, 이듬해 2월 베를린 필과 더불어 로마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에서 베토벤 교향곡 전집 공연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바로 그 실황이 DVD로 발매된 것이다. 9번 교향곡이 2000년 5월 베를린 필하모닉에서의 실황으로 대체된 점이 아쉽긴 하지만, 이 실황은 시각과 청각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가장 뛰어난 베토벤 교향곡전집으로 전세계 음악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영국 그라모폰의 대표 리뷰어인 리처드 오스본은 아바도가 2000년에 완성한 CD전집보다도 이 DVD 전집이 한층 더 뛰어난 연주들이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본 수입완제품에는 멀티카메라앵글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3,5,6,7번의 경우 아바도의 지휘하는 모습만을 담은 (Conductor Camera Mode)로도 전곡을 감상할 수 있으며, 아바도의 베토벤관을 담은 26분 분량의 보너스 필름 'Abbado on Beethoven'도 포함되어있다. 4장의 DVD를 2장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 4부작

화제의 네 연출가가 동원된 역사상 가장 장대한 악극 <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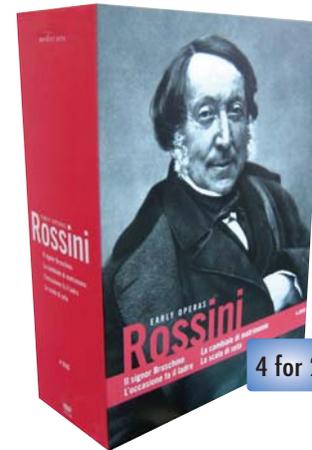
(본 타이틀은 과거 TDK DUVSRINGBOX 제품과 동일한 영상물입니다.)

<니벨룽의 반지>에 열광하는 이들은 톨킨의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조차도 바그너의 아류쯤으로 여길 것이다. 이처럼 이 4부작은 엄청난 스케일과 복잡다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슈타츠오퍼는 2002년 9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 새로운 프로덕션의 반지 4부작을 무대에 올려 충격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완전한 현대적 연출을 시도하여 <반지>의 의미를 오늘날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로 해석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4부작의 연출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맡김으로서 연작(連作)의 의미보다는 개별 악극의 현대적 재창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전야(前夜)에 해당하는 <라인의 황금>은 특이하게도 바젤 발레를 이끄는 안무가 요아힘 슐레머가 연출을 맡았다. 그는 이 긴 작품이 단막의 4장 구성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무대를 20세기 초반의 한 운천 휴양지로 고정시켰다. 제1야 <발퀴레>는 심리적 해석에 일가견이 있는 크리스토프 넬이 연출을 맡아 보탄 일가의 내면적 애증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브린힐데와 그의 자매들(발퀴레)을 정서적 방향기의 10대 소녀들로 그려낸 것이 흥미롭다. 제2야 <지크프리트>는 독일 오페라계에 돌풍을 일으킨 연극인 출신의 요시 빌러가 연출했다. 지크프리트는 어린 킬러로, 보탄을 자아 도착적 CEO로, 파프너를 군사보호구역의 기괴한 존재로 묘사하는 등 파격적 해석이다. 제3야 <신들의 황혼>은 독일 오페라 연출계의 지도적 존재이자 바그너의 의도를 뒤틀어 버리는 것으로 유명한 페터 콘비츠니가 맡았다. 순회 극단이 배경이며 지크프리트는 순진한 이웃사 이더로 표현된다. 역시나 피날레는 관객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요법처럼 처리되었다. 한국의 베이스 아틸라 전(전승현)이 <발퀴레>에는 훈딩, <지크프리트>에는 파프너로 출연한다.



7 for 3

Medici Arts DVD 2057368



4 for 2

Medici Arts DVD 2057388

로시니: 초기오페라 Box set

브루스키노씨 (Il Signor Brusolino) / 비단사다리 (La Scala di Seta)

결혼어음 (La Cambiale di Matrimonio) / 도둑의 기회 (L'occasione fa il Ladro)

여러 가수들/ 잔루이지 젤메티(cond)/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슈베칭겐 로코코극장의 아담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유쾌한 로시니 초기 오페라들

청년시절 로시니는 몇 개의 유머러스한 1막 오페라들을 다수 완성하였다. 이들 오페라들은 마음을 촉촉이 적시는 서정과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작곡가 특유의 유쾌한 선율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본 BOX는 기존에 개별 출시되었으나 국내에 제대로 소개되지 못했던 4개의 DVD를 합한 것으로, 모두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슈베칭겐 페스티벌 중의 공연 실황들을 수록한 것들이다. 최초로 무대에 올랐던 로시니의 오페라인 <결혼어음>(1810)과 서곡으로 유명한 <비단사다리>(1812), 작곡가의 생전에 가장 자주 연주되었던 작품의 하나인 <도둑의 기회>(1812), 로시니의 1막 오페라들 중 가장 음악적 완성도가 충실한 작품인 <브루스키노씨>(1813)가 수록되었다. 네 작품은 모두 1752년에 완공된 슈베칭겐 궁의 로코코극장에서 공연된 것으로, 아담한 사이즈의 이 극장과 로시니 초기오페라의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멋진 조화를 이룬다. 중견 오페라연출가 미카엘 함페의 연출과 무대미술은 근대유럽의 상류사회의 우아한 정취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로시니 스페셜리스트 잔루이지 젤메티의 생기발랄한 지휘는 로시니 오페라의 흥겨운 기운을 한껏 드러낸다. <세비아의 이발사>, <체넨렌틀라>, <알제리의 이탈리아여인> 등에서 만개했던 로시니의 천재적인 재능과 빼어난 선율 감각이 초창기부터 빛났음을 이 BOX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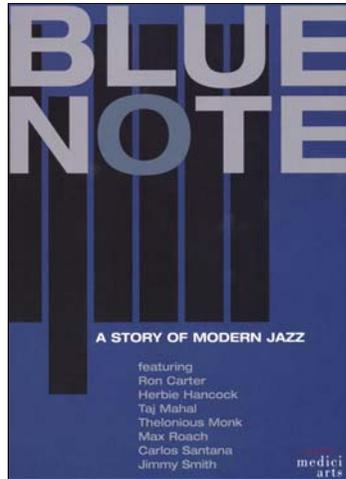
[보조자료]

○ 1810년 베니스에서 초연된 <결혼어음>은 로시니가 18세 때 완성한 1막의 코막오페라다. 페데리치의 희곡에 기초한 로시니의 리브레토를 사용하였으며, 18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돈에 팔려서 원치 않는 이와 결혼해야할 운명의 한 여인이 기지를 통해 사랑하던 연인과 맺어진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서곡으로 널리 알려진 <비단사다리>는 로시니가 20세에 완성한 1막의 코막오페라다. 도르빌과 비밀 결혼한 줄리아는 후견인으로부터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종용받는다. 하지만 남편을 놔두고 또 결혼할 수는 없는 일. 그에 따른 에피소드가 펼쳐진다. 도르빌은 비단사다리를 타고 줄리아의 방에 몰래 오르내린다.

○ <도둑의 기회> 또는 <뒤바뀐 여행가방>으로 불리는 이 1막 오페라는 1812년 베니스에서 초연되었다. 폭풍을 피해 세 여행자가 시골 여인숙에 도착한다. 한 사람은 아직 만난 적 없는 약혼자를 만나러가는 길이고, 둘은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는 길이다. 이들의 여행 가방이 뒤바뀌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펼쳐지게 된다.

○ <브루스키노씨>는 1813년 베니스에서 초연되었다. 로시니가 완성한 일련의 1막 오페라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으로, 음악적으로도 가장 충실한 특징을 보여준다. 소피아와 플로빌레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소피아는 브루스키노와 결혼해야할 상황이다. 플로빌레는 브루스키노의 아들인 척 연기하지만, 진짜 브루스키노의 아들이 등장하면서 일이 꼬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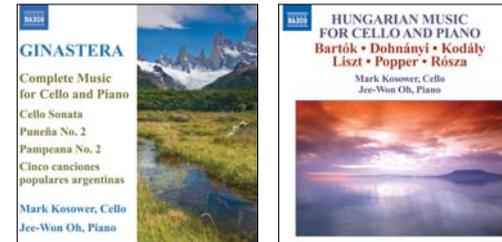
Medici Arts DVD 2057388

블루 노트: 모던 재즈 이야기

[출연]

- 밥 벨든/
- 아트 블레이크/ 론 카터/
- 존 콜트레인/ 밥 크렌쇼/
- 덱스터 고든/
- 조니 그리핀/ 에비 행콕/
- 프레디 허버드/
- J.J.존슨/ 타지 마할/
- 길 멜/ 쉴러니어스 멱크/
- 프랜시스 포드러스/
- 버드 바월/ 앙드레 프레빈/
- 맥스 로치/ 소니 롤린스/
- 카를로스 산타나/ 호러스 실버/ 지미 스미스/
- 베르트랑 타베르니에/
- 카산드라 윌슨...

이 DVD에 나오는 아티스트들을 보면, 우리 시대 세계 최고의 재즈 뮤지션들을 모아놓은 유명인사 목록이 아닌가 싶다. 아트 블레이크, 존 콜트레인, 허비 행콕, 쉴러니어스 멱크, 소니 롤린스, 1950년대, 60년대 위대한 재즈 시대와 동의어가 된 사람들이다. 카를로스 산타나, 카산드라 윌슨, 앙드레 프레빈과 함께 요아힘 예른스트 베렌트, 베르트랑 타베르니에 같은 재즈 전문가들이 이 DVD에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백과사전적인 기획이다. 게다가 알프레드 라이언이나 프랑크 울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우리의 재즈 전설에 대한 기억은 모두 그들 덕분이 아니던가? 두 사람은 1939년 나치 독일을 벗어나 뉴욕으로 온 유대계 독일인들로 재즈 음악을 진흥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미국의 주류 음악계에서 중요한 관심을 얻지 못했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영어도 거의 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취향과 판단으로 무명 음악가들을 선발, 녹음하여, 지금의 전설적인 블루 노트 레이블을 만들었던 사람들이다. 이번 영상물 “블루 노트-모던 재즈 이야기”는 주로 알프레드 라이언과 프랑크 울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타향에서 돈독하게 다졌던 우정과 비할 데 없는 예술적 탁월함에 대해서도 말한다. 연주자들, 친구들, 관련 인물들 그리고 블루 노트와 함께 걸어온 수많은 팬들이 애기해주는 이 필름은 미국 문화사의 한 시대를 재창조한다. 독일 필름 제작자 울리안 베네딕트가 감독했는데-“그대의 것을 연주하라(Play your own thing)”는 EuroArts 2055748에 실려 있다)-세계 영화계를 강타한 가장 성공적인 재즈 영화였다. 두 사람의 열정과 비전에 대한 증거가 콘서트 레코딩과 희귀한 기록 장면들에 담겨 있다. 블루 노트를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었던 생생한 사운드도 들을 수 있다. 위대한 음악영상물이다!



알베르토 히나스테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음악 전곡 Naxos (8.570569)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헝가리 음악 Naxos (8.570570)
 마크 코소어(Mark Kosower), 첼로
 오지원(Jee-Won Oh), 피아노

낙소스 레이블에서 이 두 장의 CD를 제작하는 일은 중요하고 복잡한 일이었다. 우선 지원과 나는 하노버 베토벤 홀에서 녹음하기로 결정했을 때 미국에 살고 있었다. 우리가 그곳으로 결정하는데는 빌헬름 켐프도 좋아했던, 훌륭한 피아노 소리를 담은 그곳의 이상적인 음향 때문이었다. 우리의 레코딩 프로듀서인 마이클 파인은 작업을 준비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지만 그 역시 당시 미국에 살고 있었다(우리 모두 이후에는 곧 각자 유럽으로 갔다). 그래서 마이클과 그의 부인 타미, 지원, 그리고 나는 세션을 위해 도이체 그라모폰 톤마이스터인 볼프-디터 카르바츠키, 그의 부인 아말리아와 함께 일하기로 하고 하노버로 갔다. 다음, 이 녹음을 준비하는데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었다, 수년간 레퍼토리의 폭을 넓히고 배우고 연주하고 노력해온 예술적 시각으로 시작했다. 뜻대로 수많은 작품을 녹음할 기회가 왔을 때, 많은 것은 우리가 전에 녹음에 관심을 두었던 것들이었다. 많은 논의 끝에 우리는 마침내 알베르토 히나스테라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모두 녹음하고, 우리가 강렬하게 느끼고 있던 유명한 헝가리 작곡가들의 덜 알려진 작품을 녹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그렇게 수많은 작품을 녹음하려는 계획은 시간적 제약,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고민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녹음을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5일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일의 목적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정리해야 할 것이 많았다. 먼저 모든 일을 심사숙고해야 했다. 이 특수한 녹음을 하려는 우리의 생각은 2003년 말에 시작되었다. 우리는 두 가지 다른 그리고 흥미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생각을 심도 있게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부상했다.

레코딩 작업 첫날, 우리는 이 세상의 중력이 우리의 어깨 위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녹음에 준비도 많이 했지만, 이제 우리는 매우 흥분되고 조바심 나고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강렬하게 갈구하던 작품들을 녹음해야만 했다. 녹음 기간동안 더 쉽게 끝난 것이 있었고 더 어렵게 녹음한 것도 있었는데, 참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대단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최고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마이클과 볼프-디터는 둘다 그레미상 수상자였다) 사실과 주위환경에 조금은 위축되었다. 우리는 매일 5-8시간 정도는 마이크로폰 아래에 있었다. 전에 두 번의 레코딩 경험이 있었지만(델로스 레이블에서 월턴의 첼로 협주곡을, 그리고 VAI레이블에서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삼중주곡을 녹음했다) 실로 흥미진진하고 매혹적인 녹음과정이었다. 이번에 나는(물론 지원도 함께)전 과정에 완전히 몰두해있었다. 모든 세세한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가라앉힐 수 없었던 아주 어려운 작업이었다. 때때로 미처버릴 것 같았다. 몇몇 작품들은 비교적 쉽게 녹음되었다. 하지만 다른 작품들은 마이크로폰 아래에서 많이 힘들었다. 녹음을 끝내는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은, 오로지 음악을 위해, 우리 6명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완전히 기진맥진해졌다는 것이었다. 지원과 나는 몇 달 후 첫 편집본을 들었을 때 비슷하게 흥분과 공포감을 느꼈다. 음악이 시작되자 우리는 차마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듣기 시작했고 놀랐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우리가 연주했던 것, 우리가 포착한 음들이 이제 수고의 결과로서 우리한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런 음악을 드는 일은 놀라웠다. 우리는 행복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 음악가로서 훈련받은 우리의 귀는 (약간은 거칠다는) 마음속의 비평을 번갈아 내놓기 시작했다. 작고 세세한 많은 부분들이 (편집, 타이밍, 테이크, 등)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지원과 나는 꼼꼼하게 점검하여 완벽하게 될 때까지 거듭 수정해 나갔다. 다시 우리는 모든 디테일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때때로 또다시 미처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어떻게 진행할지(소소한 두 세 개 디테일, 그것은 결혼한 커플에게는 아마 감동적일 것이다)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였고, 몇 개월 후 마이클을 만나 마무리 작업(2차 편집)을 진행했다.

연주자의 가장 뛰어난 비평가가 보통 그 혹은 그녀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완성된 작품에 아주 만족하며 기쁨을 나눴다. 음반으로 나와 전 세계에 배포되고 있는 것을 보는 일은 매우 흥분되었다. 히나스테라 CD가 낙소스 음반 중에 톱 텐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 몇몇 좋은 평을 받는 등 성공을 거두었지만, 우리를 많이 놀라게 한 것은 작업 직후 우리가 레코딩에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작업에 대한 순수한 긴장과 분석은 나아가 음악듣기를 향상시키고 우리의 음악 만들기뿐만 아니라 그런 작품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수준을 더욱 향상시켰다. 우리의 경험이 토대가 되어 지금 하는 모든 일에 혜택을 받고 있고, 장래에 수년간 다가올 여러 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

알베르토 히나스테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음악집 Naxos (8.570569)

“중중 깨내 듣게 될, 아주 잘 연주된 선집이다.” - **벤 호그우드(Ben Hogwood) Classical Source Website, October 2008**

“피아니스트 오지원과 함께한 코소어의 연주는 모두 놀랍다. 히나스테라 음악이 요구하는 엄청난 기교도, 어려운 테크닉이라도 코소어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음악적으로, 그는 히나스테라 음악의 리듬적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거침없는 긴장, 드라이브, 장식을 구사한다.”

- **마이크 D. 브로우널(Mike D. Brownell) All Music Guide, July 2008**

“이 녹음에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너무도 많다. 히나스테라 음악의 팬이라면 이 녹음은 호감을 주는 풍부한 디테일을 모두 보여주는 놀라운 컬렉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음악은 풍성하고 때때로 명쾌한 화성, 놀라운 리듬의 추진, 그리고 아주 서정적인 선율을 지니고 있다. 나는 히나스테라가 험한 모더니즘의 완전한 모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보수적인 음악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입맛에도 맞을 것 같다. 마크 코소어의 톤은 아주 적절하게 풍성하고, 훈훈하며 깊다. 오지원과 콤비를 이룬 코소어는 각 작품의 내적 생명을 찾는데 그리고 그 생명을 듣는 사람들과 소통시키는데 탁월하다. 각각의 작품은 필요한 만큼, 아주 적정의 힘과 부드러움으로 연주된다. 코소어의 아르헨티나 대중 노래의 편곡물에서도 예민하고 아릿한 뉘앙스가 잘 살아 있다. 그의 노력은 이 음반에서 두 번이나 놀라게 한다. - **제이 배츠너(Jay Batzner) Sequenza 21, September 2008**

“첼로와 피아노를 위해 알베르토 히나스테라가 쓴 세 개의 작품 중에서, 적어도 마지막 소나타(1979년 작품)는 정말 걸작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개의 악장은 아방가르드를 표방하지 않으면서도 모던 스타일의 음악언어를 확실히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은 히나스테라의 아르헨티나 고향 땅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마크 코소어는 이 음악이 지닌 많은 기교적 장애풀을 거침없이 뛰어넘어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자신만의 해석으로, 확실히 하나의 표준 레퍼토리로 자리 잡게 한다.” - **노베르트 호르니히(Norbert Hornig) Fono Forum, September 2008**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헝가리 음악 Naxos (8.570570)

“마크 코소어는 뛰어난 첼리스트다; 음악을 해석할 때 개성과 풍성한 지식으로 무장된 비르투오소다. 오지원(서울 태생)도 숙련된 피아니스트이며 개성이 강하다. 두 사람은 훌륭한 팀이다.”

“마크 코소어는 자격이 충분한 첼리스트다. 음악적으로나 기교상으로 그는 감정의 풍성한 색채와 프리즘을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출시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코소어가 직접 부클릿에 유용한 글을 써놓았다.” - **콜린 앤더슨(Colin Anderson) Classical Source Website, July 2008**

“첼리스트 마크 코소어는 낙소스 레이블에서 매력적인 헝가리 리사이틀 음반과 함께 히나스테라 독집을 내놓는다. 포퍼의 두 작품, 리스트의 서정작품 형식으로 씌어진 달콤한 작품들도 있다; 도흐나니의 거대한 소나타 OP.8의 형식의 후기 낭만주의 작품; 그리고 버토크의 전율적인 첫 광사곡과 로사의 토카타 카프리치오스 형식으로 된 작품이다. 음악에서 코소어는 자신의 놀라운 비르투오소 기교와 열정적인 긴장, 그리고 우아한 프레이징을 선사한다. 작년 야노슈 슈타커를 인터뷰했을 때 그가 코소어를 주목해야 할 젊은 첼리스트로 꼽았던 일은 놀랍다. 도흐나니 소나타는 우리를 놀라게 할 거대하고 엄청난 연주의 하이라이트다. 콘서트홀에서나 녹음으로는 좀처럼 들어보기 어려운 작품이다. 피아니스트 오 지원은 그의 탁월한 파트너다. 음반은 오디오파일 음향의 질감을 자랑한다. 연주자와 엔지니어가 혼연일체가 된 결과다. 슈타커의 많은 녹음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로런스 비테스(Laurence Vites) Strings Magazine, November 2008**

첼리스트 마크 코소어와 피아니스트 오 지원의 연주로 된 이 잘 구성된 음반은 헝가리 음악의 이디엄에 일가견이 있는 야노슈 슈타커와 기외르기 세 보크한데 바쳐졌다. 한정 받은 두 거장처럼 코소어와 오 지원은 인도네이션, 아트콜레이션, 프레이징, 다이내믹에서 엄청난 정교함을 갖췄다. 코소어의 연주에서는 모든 빠른 패시지가 아주 빛나며 따스한 벨벳 톤의 음향으로 가득 차 있다.

- **마이크 D.B 브로우널(Mike D. Brownell) All Music Guide, July 2008**

오지원 Jee-Won Oh, 피아니스트

서울에서 출생한 오 지원은 한국, 유럽, 남아메리카 그리고 미국에서 독주자와 실내악 연주자로 활동해왔다. 그녀의 연주 스펙트럼은 베오그라드 필하모닉 홀, 파리 가보 홀, 솔레스비히-홀슈타인 축제,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브라질 리오 데 아네이로의 홀(Cecilia Meireles Hall) 그리고 서울 금호 아트홀로 이끌었다. 미국에서 오 지원은 링컨 센터에서 'Great Performer's Series'에 등장했는가 하면, 케네디 센터에서도 연주했고, 시카고, 디트로이트, 밀워키, 미니애폴리스, 뉴욕, 필라델피아, 솔트레이크 시티, 샌프란시스코, 세인트 폴, 워싱턴 DC 등의 연주회장에서도 연주했다. 예르넨



무직도르프(Ernen?? Musikdorf), 산 루이스 이보스포 모차르트 페스티벌, 그리고 파크 시티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티벌에서도 연주했던 그녀는 시트카 뮤직 그리고 매머드 레이크 뮤직 페스티벌에도 자주 객원 연주자로 출연했다. 오 지원은 미국과 해외에서 첼리스트 마크 코소어와 함께 연주해왔다. 베오그라드 필하모닉 홀의 최근 연주를 포함하여, 워싱턴 DC 국립 미술관, 필라델피아 실내악 협회 연주, 뉴욕 바지 뮤직 등에서 연주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알베르토 히나스테라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음악, 도흐나니, 버토크, 코다이, 리스트, 포퍼, 로사 등 헝가리 작곡가 음악 앨범을 낙소스에서 발매했다. 두 음반은 2008년 여름에 출시되었다.

피아니스트 오 지원은 약 5년간 저명한 첼리스트 야노슈 슈타커의 조수로 일했고,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인디애나 대학에서 피아노 강의도 했었다. 인디애나 대학에서는 세복, 네리키 교수한테 배워 피아노 연주 학위를 받았다. 영창 피아노 재단 장학금을 받고, 한양 대학교에서도 공부했다.

마크 코소어 Mark Kosower, 첼리스트

우리 시대 뛰어난 첼리스트 가운데 한 사람인 마크 코소어는 기교적 완성과 심오한 음악성으로 연주자와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시카고 트리뷴은 “놀랍도록 지적이고 예민한 첼리스트”라는 칭찬을 했고, 최근에 “러브콜을 받을 만한 첼리스트”(Classical Source Website) 그리고 “열정적인 음악적 개성”에 “지성과 우아함, 톤의 아름다움, 모든 음악에 공히 적용되는 날카롭게 맞춰진 음악성”(South Florida Classical Review)이란 찬사도 얻었다. 2008년/09년 시즌에는 스프링필드 심포니(MO)의 시즌을 여는 객원 솔리스트로 시작했다. 리버사이드 심포니와 연주도 했고, 서울 금호 아트홀에서 독주회, 그리고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히나스테라의 첼로 협주곡 2번도 연주했다. 2008년 여름 마크 코소어는 낙소스에서 두 개 앨범을 출시했다. 하나는 히나스테라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집이고, 다른 하나는 헝가리 음악 앨범으로 포퍼, 도흐나니, 버토크 등의 헝가리 작곡가들의 작품을 모은 것이다. 얼마 전에는 베오그라드 첼로 페스트 재계약을 해서 세인트 조지 스트링스와 함께 몬의 협주곡을 연주했고, 북 아메리카로 돌아가 매머드 레이크 뮤직 페스티벌에도 출연하고 코럴 게이블스 독주회도 열었다. 그밖에 플로리다, 시애틀, 워싱턴의 스포케인, 시러큐스, 그리고 톨레도 심포니 오케스트라, 퍼닌술라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유리 폴리의 첼로 협주곡도 미국 초연했으며, 필라델피아 실내악 협주곡과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에서 독주회를 열었다. 청중을 사로잡는 오케스트라 독주자로서도 활약했는데, 코소어는 버펄로, 데이턴, 플로리다, 롱 아일랜드 필하모닉, 그리고 디트로이트, 플로리다, 그랜드 래피즈, 휴스턴, 인디애나폴리스, 밀워키, 미네소타, 노스 캐롤리나, 오레곤, 피닉스, 산타 바버라, 톨레도, 그리고 세인트 폴 실내 오케스트라 등과도 연주했다. 아울러 홍콩 필하모닉, 차이나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타이완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간사이 필하모닉, 파리 오케스트라, 브라질리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국제적인 공연도 가졌다. 코소어는 크리스토퍼 에센바흐, 에리히 쾨즐, 니콜라스 맥기건, 슈테판 잔덜링, 게라르트 슈바르츠 등 많은 탁월한 지휘자들의 지휘봉 아래에서 연주해왔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음악원에서 첼로와 실내악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었고, 세계의 여러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해왔다. 연주, 교육활동 외에 코소어는 현재 요나탄 노트가 지휘자로 있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인디애나 대학에서 야노슈 슈타커한테, 그리고 줄리아드 학교에서 조엘 크로스니크한테 배웠다.



- 장소 : **금호 아트홀**
- 일시 : **2009년 1월 22일 목요일 저녁 8시**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18,500개 음반 / 250,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 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2,000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 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밸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클래식 콘서트 DVD의 필수구입 아이템,
드디어 수입완제품으로 등장하다!

Beethoven: Symphonies

베토벤 : 교향곡 전집

클라우드디오 아바도(cond)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4DVD
for
2DVD

Medici Arts DVD
2057378

클라우드디오 아바도와 베를린 필하모닉이 완성한 베토벤 교향곡 전집은 클래식 콘서트 DVD의 대명사로 오래도록 사랑 받아온 아이템이다. 유로아츠 본사 제작의 수입완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위암진단을 받았던 아바도는 불굴의 의지로 이를 극복하였고, 이듬해 2월 베를린 필과 더불어 로마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에서 베토벤 교향곡 전집 공연을 성공리에 마무리 하였다. 바로 그 실황이 DVD로 발매된 것이다. 9번 교향곡이 2000년 5월 베를린 필하모닉에서의 실황으로 대체된 점이 아쉬운 하지만, 이 실황은 시각과 청각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가장 뛰어난 베토벤 교향곡전집으로 전세계 음악애호가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영국 그라모폰의 대표 리뷰어인 리처드 오스본은 아바도가 2000년에 완성한 CD전집보다도 이 DVD 전집이 한층 더 뛰어난 연주들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본 수입완제품에는 멀티카메라앵글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3,5,6,7번의 경우 아바도의 지휘하는 모습을 담은 <Conductor Camera Mode>로도 전곡을 감상할 수 있으며, 아바도의 베토벤관을 담은 26분 분량의 보너스 필름 'Abbado on Beethoven'도 포함되어있다. 4장의 DVD를 2장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표지사진
이 달의 주목할만한 DVD들

<아울로스뉴스> 2008년 10, 11월호
통권 제 34호 발행 : 2008년 12월 6일
발행인 : 임용묵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